

The Mæssage

(“The Message” by Eugene Peterson 의 허계영 번역 version)

예레미야



여기에 수록된 그림들은 '성경의 맥과 핵' 교재용으로
허설영(저희 큰언니)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것입니다. 무단 복제를 삼가 주세요.

1 장

재개발, 재건축

¹⁻⁴ [해설] 다음은 예레미야(베냐민 땅 아나돗에 살던 제사장 가문 힐기야의 아들)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유다 왕 요시야(아몬의 아들)의 통치 제 13 년부터 유다 왕 여호야김(요시야의 아들)의 통치 때까지 계속 예레미야에게 임했지요. 그 이후 유다 왕 시드기야(요시야의 아들) 11 년(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가던 해) 5 월까지도 주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⁵ [하나님] 내가 널 모태에서 빚기 전부터
난 너에 관한 모든 걸 알고 있었단다.
내가 세상 빛을 보기 전부터
널 위한 거룩한 계획을 갖고 있었지.
널 향한 나의 계획은 바로
'너를 많은 나라들의 선지자로 세우는 것'이었어.

⁶ [예레미야] 하지만 난 말했지요.
“저를요? (MZ 세대인 줄^^) 주 하나님! 제 꼴 좀 보세요.
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걸요?
전 한낱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요!” (민증 확인 요망^^)

⁷⁻⁸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소.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니, 아서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말해 줄 거야. 그럼 넌 그대로 그냥 가면 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알려 줄 거야. 그럼 넌 그대로 그냥 말하면 돼.
조금도 두려워 말거라.
내가 친히 네 곁에서 돌봐줄 테니...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⁹⁻¹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술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잘 봐! 내가 지금 막 네 입에 내 말을 넣어 줬단다. 내가 내 말을 직접 배달해 줬다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봤지? 내가 너한테 임무를 부여해 준 거야.
내가 여러 나라 정부들을 찾아가 수행할 임무-최후 통첩-를 준 거라고!
바로 ‘뿌리째 뽑고 무너뜨린다, 다 해체해 철거한다’는 내용이지.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다시 세우고, 다시 심는다’는 내용이란다.

일어나 네 할 말을 하거라.

11-12 [예레미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고요.

[하나님] 예레미야야, 뭐가 보이니?

[예레미야] 난 대답했소.

“살구나무 지팡이 하나가 걸어 다니는 게 보여요. 그것만 보이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소.

[하나님] 그래, 잘 봤구나! (양안 시력 2.0^^) 내가 이렇게 네 지팡이가 되어 주마.

내가 네게 주는 말을 다 지켜 성취시켜 주마.

13-15 [예레미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다시 내게 임했다고요.

[하나님] 이번엔 뭐가 보이니?

[예레미야] 내가 말했소.

“펼 펼 꿇는 술이 보여요. 그런데 술이 우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네요.” (후덜덜^^)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소.

[하나님] 북쪽에서, 이 땅 모든 주민들에게 이렇게 재앙이 쏟아져 내릴 거야.

잘 보거라! 내가 북쪽에서 모든 왕을 소집할 거란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15-16 [하나님]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맞은 편에 작전본부를 설치할 거야.

성벽 바로 앞, 유다 마을들을 지척에 두고 말야.

그렇게 내가 유다 백성들에게 판결을 내릴 거란다.

그들이 날 떠난 것-아, 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뜯보잡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애걸복걸한 것,

나무에 새겨 만든 신, 돌에 색칠해 만든 신한테 예배한 것-에 대한 판결을 내릴 거라고!

17 하지만 넌 일어나 업무복으로 갈아입거라. (출근 준비^^)

똑바로 서서 네 할 말을 하거라. 내가 명한 대로, 정확히 말하거라.

당당히 말해! 너마저 제명당하고 싶지 않거든.... (정리해고 위기^^)

18-19 기립! 차렷! 네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마.

넌 성채처럼 견고하게,

쇠기둥처럼 꿈쩍 않게,

콘크리트 벽처럼 단단히 만들어 주마.

넌 이 세상문화와 유다 왕들 및 제후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지역 지도자들을

대항하는 ‘1인 방어 시스템’이란다. (직함이 좀 긴 듯^^)

그들이 네게 싸움을 걸어와도 걱정하지 말거라! 넌 털끝 하나 안 다치게 해 줄 테니....

내가 너의 완벽한 지원군이 되어 주마.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2 장

이스라엘은 나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었는데...

1-3 [예레미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고요.

[하나님] 거리로 나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외치거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구나. 젊었을 땐 네가 절개를 지켰었는데...

그땐 우리 사랑이 신혼부부처럼 ‘꿀 똑똑’이었는데...

광야 시절, 넌 늘 나와 함께했지.

그 고생길에서도 넌 날 떠나지 않았어.

그렇게 이스라엘은 나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었는데...

내가 고르고 고른 극상품이었는데...

누구든 이스라엘에게 손댔다간 금방 후회하고 말았지.”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 * *

4-6 [예레미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오, 야곱의 집이여!

오, 그대 이스라엘의 집이여!

하나님의 메시지라오.

[하나님] 너희 조상들은 도대체 내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날 그리 멀리 떠났다니?

사기꾼 우상을 따라나서더니만

자기들마저 사기꾼이 됐구나.

난 그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단다.

[백성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우릴 애굽에서 꺼내 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작렬하는 태양 아래, 사막과 죽음의 계곡, 아무도 살아나오지 못한 그 땅

그토록 혹독하고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는 동안 우릴 늘 돌봐 주셨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7-8 [하나님] 너희를 풍성한 동산으로 인도해

각종 열매를 실컷 먹여줬건만... (전국이 뷔페식당^^)

내 땅을 차지하고는 곧 그곳을 오염시켜 버리다니!

내가 그토록 아끼던 땅을 오물로 더럽히다니! (전국이 쓰레기장^^)

제사장들마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라고 물을 생각도 안 하더구나.

소위 ‘종교 전문가’라는 자들도 나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지.

통치자들이 나한테 대들질 않나, 선지자들이 바알 신을 전파하질 않나,

그렇게 허황된 우상의 꿈, 그토록 어리석은 우상의 술책이나 쫓아다니다니!

9-11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너희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너희와 너희 자녀들, 손주들에게 책임을 물으려다.

주위를 돌아보거라. 지금껏 이런 길 본 적이 있니?

배를 타고 서쪽 섬들로 가 한번 보렴.

계달의 광야로 가 한번 살펴보렴.

눈을 씻고 찾아보거라, 이제껏 이런 일이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세상 어느 나라가 자기네 신을

신 축에도 못 드는 ‘듣보잡 신들’과 바꾼다더냐?

그런데 내 백성은 허황된 우상의 꿈, 어리석은 우상의 술책과

나의 영광을 바꿔 버렸구나! (최악의 거래^^)

12-13 하늘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놀라 일어서는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라며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손을 늘어뜨리는구나!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내 백성이 ‘종합선물세트’ 죄를 지었구나. (최악 패키지^^)

날 떠난 그들, 맑은 물이 솟아나는 샘인 날 버리고

웅덩이를 찾구나. 그것도 터진 웅덩이를!

얼마나 심하게 터졌는지, 물이 줄줄 새는 게 마치 대바구니 같구나.

14-17 나의 귀한 종 이스라엘이,

뼈대 있는 집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귀한 종 이스라엘이,

어쩌다 ‘사자들이 으르렁대며 서로 차지하려 달려드는 사냥감’ 신세가 되었던 말이나?

남은 거라곤 뼈다귀 몇 개뿐이구나.

쑥대밭이 된 성읍들뿐이로구나.

멤피스와 다바네스 출신 애굽인들이 너희 두개골을 박살냈구나.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게 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 아니겠어?

나 하나님이 그렇게도 너희 바른 길로 인도하려 했건만, 너희 시종일관 이렇게 살아왔잖니?

18-19 하다 하다 이제는 애굽에까지 달려가는구나. 뭐 좀 얻어먹을 게 있을까 기웃대면서….

그래, 나일강의 시원한 물 한 잔이나 얻어 마시려나?

앗수르로 달려가면 뭐 좀 얻어먹을 게 있으려나?
 유브라데 강물을 실컷 들이킬 수 있으려나? (고대의 예비양 생수^^)
 아니, 천만에! 오히려 너희의 악행으로 인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걸?
 너희 반역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걸?
 너희가 한 짓을 면밀히 살펴보자.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도...
 과연 그게 너희 하나님을 떠날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
 [예레미야] 하나님,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선포라오.

이방 우상(듣보잡 신) 중독

20-22 [하나님] 오래전 나는 너희의 멍에를 깨뜨려 줬어.
 너희를 그토록 옥죄던 멍에에서 해방시켜 줬지. 하지만 너희는 곧 이렇게 말했어.
 [백성들]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날 떠난 너희는
 섹스교 사당이라면, 어디든 물불 안 가리고 찾아갔지.
 정말이지 천박한 창녀와 다를 게 없었어.
 믿을 만한 종자를 골라 너희를 심었을 때
 너희는 극상품 포도나무였어.
 그러던 너희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렴.
 엉망으로 얹혀 비뚤어진 모습이 포도나무라 부르기도 어려울 지경이구나.
 초강력 세제로 때를 밀거라. (바스용품 구입요^^)
 때밀이 타올로 박박 문지르거라. (목욕관리사 청빙^^)
 찌들 대로 찌든 때, 벗겨지질 않는구나! (까마귀가 형님 하자고^^)
 정말 눈 뜨고 봐 줄 수가 없구나!
 [예레미야] 주 하나님의 선포라오.

23-24 [하나님] 너희가 어떻게 감히 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니?
 [백성들] 전 죄로 오염되지 않았어요. 섹스의 신 바알을 쫓아다니는 적도 없다구요!
 [하나님] 과연 그럴까? 너희가 계곡에 남겨놓은 흔적을 좀 보렴! (국과수 동원^^)
 사막 모래 위에 남긴 자국은 어떻게 설명할래? (범죄현장 조사완료^^)
 욕정을 주체 못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낙타처럼
 욕망에 눈이 멀어 뛰어다니는 들나귀처럼
 섹스의 향을 맡으려 코를 킁킁대는 너희를
 그 누가 가둬 둘 수 있겠니?
 섹스, 섹스, 더 많은 섹스에 도취되어 쫓아다녀도
 여전히 색욕에 혈떡이는 게, 난잡하기 이를 데 없구나!

25 진정하거라. 숨 좀 돌리거라.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래?
 왜 그리 너희 몸을 소모품처럼 쓰니? 도대체 뭘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백성들)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전 이방 우상(듣보잡 신)에게 중독됐거든요. 도저히 멈추질 못하겠어요.

* * *

26-28 [하나님] 도둑이 붙잡혔다고 원통해하듯
 이스라엘 백성이 원통해하는구나. (적반하장^^)
 왕들, 제후들, 제사장들, 선지자들도 함께 붙잡혔구나.
 나무를 찾아가 ‘아버지!’라 하고,
 돌맹이를 보고 ‘어머니! 당신이 날 낳으셨죠!’라고 하는 그들
 내가 본 거라곤 그들의 뒷모습뿐이었어.
 그들이 한번도 내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고난이 닥치자, 스스럼없이 내게 달려와 외치더구나.
 (백성들)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요!
 [하나님]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손수 만든 우상들을 찾아가 보지 그러니?
 그 우상들한테 사정해 보지 그래? 너희를 이 환난에서 구해달라고...
 유다, 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들을 소장하고 있던데? (취미: 우상수집^^)

‘죄악 프로젝트’ 론칭

29-30 [하나님] 너희가 날 그렇게 대놓고 반항한 이유가 뭐니?
 그 잘난 ‘독립’을 하겠다며 달아난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너희 자녀들을 훈련시키려 내가 그렇게 애썼지만, 다 시간 낭비였어!
 그들은 내게 조금도 관심없이, 나의 훈계를 무시하더구나.
 너희 역시 나 하나님의 사자(使者)들을 없애 버렸지.
 내가 보낸 사자(使者)들을 발바닥 때만큼도 귀히 여기지 않고 쓸어 버렸지.
 31-32 너희 세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내가 말했잖아! 내가 경고했잖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실망시킨 적이 있든?
 그런데 왜 날 무능한 존재처럼 여기는 거야?
 너희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백성들) 속이 다 시원하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나님] 젊은 여자가 자기 보석을 잇는 법이 있다든?

신부가 면사포를 잊은 채 결혼식에 입장하는 법이 있대?
그런데 내 백성은 날 잊다니...
단 하루도 내 생각을 하지 않는다니...!

* * *

33-35 [하나님] 너희의 시작은 화려했지.
최고의 인생을 살겠다고 큰소리쳤지.
최악의 학교를 설립하고
대학원 과정까지 개설해 악을 가르쳤지.
그리고 이젠 졸업생들을 내보내는구나. 어이쿠, 졸업가운과 모자가 참 멋지구나.
졸업가운이 희생자들 피로 얼룩져 있는 것만 빼면... (피해자 혈은 검출^^)
그들의 피가 너희 죄를 기소하는구나.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쳤는지...!
그런데도 너희는 뻔뻔스럽게 말하는구나.
(백성들) 난 아무 잘못 없어. 어차피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시는 걸?
하나님이 날 벌하지 않으신 걸 보면 알 수 있잖아?
[하나님] 지금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안 보이니?
'난 아무 잘못 없어'라고 말하는 너희를 겨냥한 심판이?
36-37 너희 생각엔 이게 별 일 아닌 것 같지? 그렇지?
'최악 프로젝트' 하나를 실패하면 또 다른 프로젝트를 론칭하는 게? (칠전팔기^^)
하지만 애굽도 너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 걸?
앗수르가 그랬던 것처럼 말야.
그때 너희는 한탄하며 그들을 떠나겠지.
너희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 나 하나님이 블랙리스트에 올렸단다.
그러니 그들에게 도움 얻을 생각은 꿈에도 말거라.

3 장

섹스교 강박증

¹ [예레미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고.
[하나님] 어떤 아내가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전 남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기 아내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짓은 두고두고 큰 오점으로 남지 않겠어?

너희라고 뭐 다르냐고? 이번엔 이 신, 다음엔 저 신이랑 ‘창녀짓’을 했는데…?

그런데도 너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뻔뻔스럽게 돌아오려 하는구나.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2-5 [하나님] 저 언덕들을 둘러보거라.

너희가 난잡한 짓을 하지 않은 언덕이 하나라도 있는지….

너희는 거기에서 야영까지 해가며 사슴을 사냥하듯

너희가 애인으로 삼은 우상들을 쫓아다녔잖니?

길거리 창녀처럼 다른 신들을 쫓았잖니?

그래서 비가 그친 거야. 하늘에서 더 이상 비가 안 온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고!

그래도 너희는 전혀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아무 잘못 없는 양 행동하더구나. 창녀처럼 뻔뻔스럽게….

그러고도 나한테 이런 말 할 용기가 나든?

(백성들) 아버지! 어렸을 땐 절 잘 돌봐 주시더니, 지금은 왜 이러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화만 내실 거냐고요?’

[하나님] 그게 너희의 상투적인 대사지.

너희야말로 계속 죄를 지으면서 말야.

하나님께 반항했던 걸 시인하거라.

6-10 [예레미야] 요시아 왕의 통치시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오.

[하나님] 너, 잘 알지? 이스라엘이 바람난 창녀처럼 얼마나 많은 언덕과 숲들을 돌아다녔는지?

그리고는 끝내 돌아오지 않더구나. 난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그 짓을 멈추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부도덕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혼증서’를 써 주면서 쫓아낸 걸 보고도, 이스라엘의 바람둥이 여동생

유다는 눈 하나 꿈쩍 않고 더 대담하게 창녀짓을 하더구나. 싸구려 섹스교를, 취미 삼아, 오락 삼아,

서슴지 않고 미친 짓, 더러운 짓을 벌여 전국에 썩은내가 진동하게 만들더구나. 바람난 유다는 이 모든

짓을 저지르면서 내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 가끔 날 보는 시늉만 했을 뿐….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11-12 [예레미야] 얼마 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소.

[하나님] 절개를 잃은 이스라엘? 그나마 바람난 유다보단 나았어.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거라. 북쪽 이스라엘에게 말하거라.

12-15 “지조를 잃은 이스라엘아, 돌아오거라.

내가 널 벌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란다.

난 널 사랑하기로 맹세했단다.

내 진노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단다.

넌 그냥 네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돼.

내가 하나님께 반항했다고 시인만 하면 된단 말야.

내 말에 대해선 귀를 들어막은 채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닥치는 대로

섹스고 숲으로 끌고 가 난잡한 짓을 벌여온 걸 인정하면 된다구!”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돌아오거라, 내 자녀들아! 이제 그만 방황을 멈추고!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내가, 그래, 바로 내가 너희의 진정한 남편이잖니?

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할 거란다.

이 사람은 이 성읍에서, 저 사람은 저 성읍에서 뽑아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갈 거라구!

내 뜻대로 통치할 선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지식과 지혜로 너희를 통치할 자들을!

¹⁶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마.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그날이 오면 아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 옛날이 좋았는데…。 우리한테 언약궤가 있던 시절!’ 그래, 다시는 ‘아, 옛날이 좋았는데…。’란 생각을 안 하게 될 거야. 너희가 좋았다 말하는 그 시절, 언약궤가 있던 그 시절은 너희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질 테니까!

¹⁷ 그리고 예루살렘이 새로운 언약궤-하나님의 보좌-가 될 테니까! 모든 불경건한 나라들도 악행에서 떠날 테니까! 그리고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테니까!

¹⁸ 그 날이 오면,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이 하나가 될 거야. (남북통일^^) 손을 마주잡은 그들, 북쪽 나라에서 나와, 내가 그들 조상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돌아올 거야!

* * *

¹⁹⁻²⁰ [하나님]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무슨 말을 해 줄지도 다 생각해 뒀단다.

“잘 됐구나! 내가 너희를 가족으로 다시 받아주마.

너희에게 기름진 좋은 땅-불경건한 나라들이 갖고 싶어 안달할 땅-을 주마.”

난 늘 꿈꿔 왔지. 너희가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말하는 모습을….

너희가 두 번 다시 날 떠나지 않는 모습을….

하지만 내게 그런 행운은 오지 않았어. 남편을 배신하고 떠난 여인처럼,

너희 이스라엘 온 집안은 끝내 날 배신하고 말았지.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²¹⁻²² [하나님] 언덕에서 들려오는 소리

비탄에 잠긴 이스라엘의 통곡소리

이스라엘이 허송세월한 걸 탄식하는구나.

자기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산 걸 애통해하는구나.

“방황하는 내 자녀들아, 돌아오거라!

내가 너희 바람기를 고쳐 줄 테니…”

* * *

22-25 [백성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세요!

최신 유행의 종교들? 다 사기예요!

‘새로 출시된 우상’의 구매자들? 다 낡은 거라고요!

우리가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께!

우린 그 사기꾼들한테 다 털렸어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

우리가 상속받은 유산을 다 빼앗겼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축,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다 빼앗겼다고요!

하긴, 우리가 만든 침대에 우리가 드러누운 거죠. (제 무덤을 팠다는^^)

불명예로 얼룩진 더러운 이불 속에 드러누운 거죠. (이불에 지도를 그렸다는^^)

이 모든 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우리 부모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때부터, 웅알이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줄곧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며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요!

4 장

1-2 [하나님] 오 이스라엘아, 너희가 돌아오고 싶다면,

그게 진심이어야 할 게다.

그 악취나는 죄의 도구들을 다 없애야 한단 말이다.

앞으로는 날 떠나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렴.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면서

진리와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게 될 거야.

불경건한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통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런 게 바로 진정한 가정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 * *

3-4 [예레미야] 다음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라요.

[하나님] 방치된 발을 다시 경작하거라.
 그렇다고 밭에 잡초는 심지 말고!
 그래, 나 하나님 앞에서 ‘삶의 할례’를 받으란 말야.
 방치되었던 너희 마음밭을 다시 갈란 말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아!
 자나깨나 불조심! 내 진노의 불을 조심하거라.
 왜냐하면 그 진노의 불은 한번 붙으면 꺼지지 않으니까.
 너희의 악행이 바로 그 불을 일으키는 휘발유란다.

하나님의 진노의 망치

5-8 [하나님] 유다에 경종을 울리거라.
 예루살렘에 소식을 전하거라.
 온 땅에 외치거라. “양각나팔을 불어라!”
 쇠뿔 메가폰에 대고 외쳐라!
 “빨리 빨리! 목숨을 부지하고 싶으면 대피소로 도망가시오!”
 시온에 경고의 신호탄을 보내거라.
 “잠시도 지체해서는 안 되요! 지금 그렇게 뉘 놓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요!”
 북쪽에서 재앙이 내려오고 있다, 내가 보낸 재앙이!
 지축을 흔들 정도로 엄청난 스케일의 재앙이!
 [예레미야] 숨어있던 사자처럼 침략자들이 뛰쳐나오는구료.
 모든 나라들을 찢어발길 기세구료.
 땅을 찢더미로 만들고
 성읍을 풍비박산 내려 하는구료.
 상복으로 갈아입으시오. 슬피 울며 애곡하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쇠망치가 우리 머리를 내리치셨다요.
 9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면...,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요.
 [하나님] 왕과 제후들이 공포에 질릴 거다.
 제사장들이 뉘를 잃고 선지자들이 겁에 질릴 거다.
 10 [예레미야] 이에 내가 말했다요.
 “이럴 수가! 주 하나님! 주님이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게 거짓말을 하시다니요?
 주님이 호언장담하시면서
 ‘모든 게 잘 될 테니 아무 염려 말라’고 하시던 그때,
 적들이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댄 걸요?”

* * *

11-12 [하나님] 그 날이 오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분명히 듣게 될 거야.

“북쪽 광활한 사막에서 오랑캐들이 들이닥치는구나!

무서운 바람, 엄청난 강풍이 몰아치는구나!

내가 이 바람을 호출했지.

내 백성을 심판할 허리케인을 불렀다구!”

너희의 악한 삶이 너희 심장을 꿰뚫는구나!

13-14 [예레미야] 저들을 보시오! 마치 해일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저들을!

전차들이 태풍처럼 땅을 울리며 달려오는구료.

군마들이 독수리처럼 날쌔게 돌진해 오는구료.

오, 우린 망했구나! 끝장났구나!

예루살렘아! 너희 삶에서 악을 씻어내거라. 구원받고 싶으면…!

그 사악하고 못된 마음, 도대체 언제까지 품고 있을래?

15-17 이게 뭐지? 단에서 온 전령인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비보인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알리시오.

이 뉴스를 예루살렘에 보도하시오. (실시간 뉴스속보^^)

[하나님] 멀리에서 온 침략자가 유다 성읍들에 선전포고를 했단다.

들개가 뼈다귀를 덮치듯 그들이 유다를 덮쳤단다.

왜냐고? 이는 유다가 내게 반항했기 때문이지.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18 [하나님] 이 모든 재앙이 닥친 건, 지금껏 너희가 엉망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야.

너희 악한 삶으로 인해 인생의 쓴맛을 보는 거지! (악행은 다나 그 열매는 쓰다^^)

너희의 악한 삶이 너희 심장을 꿰뚫는구나!

* * *

19-21 [예레미야] 극심한 복통으로 난 데굴데굴 굴렀지.

창에 찢린 듯, 타 들어가는 아픔을 겪었어.

장기가 갈갈이 찢기는 고통이 잠시도 끊이질 않는구나.

고막이 찢어질 듯한 양각나팔 소리!

아뿔사! 전쟁의 신호로구나!

연거푸 닥치는 재앙으로 인해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구나!

우리 집이 한순간에 무너졌구나.

벽이 눈 깜짝할 사이에 쓰러졌구나.
도대체 언제까지, 경고의 신호탄을 보아야 할까?
도대체 언제까지, 위험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를 들어야 할까?

죄라면 이골이 난 자들

²² [하나님] 내 백성이 이토록 어리석다니!

내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다니!

팔푼이들의 집단이로구나. 어리버리 멍청하기 짝이 없구나.

악에는 박사, 선에는 초딩!

²³⁻²⁶ [예레미야] 땅을 보니, 천지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로 돌아갔구료.

하늘을 보니,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구료. (별 볼 일 없음^^)

산을 바라보니, 사시나무 떨 듯 떠는구료.

언덕을 보니, 바람에 무참히 흔들리는구료.

세상에, 이럴 수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구료.

하늘에도 새 한 마리 없구료.

어떻게 이럴 수가! 정원과 과수원들이 폐허로 변했구료.

모든 성읍들이 유령도시로 변했구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오.

하나님이 불 같이 진노하셨다오.

²⁷⁻²⁸ 그렇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소.

[하나님] 온 나라가 폐허로 변할 거다.

하지만 아직 멀었어.

땅이 애통하고 하늘이 애곡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명했으니까. 그리고 그 명을 철회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리고 그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거니까.

당신들은 아무도 유혹할 수 없을 거요.

²⁹ [예레미야] ‘기병이다! 궁수다!’라는 외침에

모두들 피할 곳을 향해 달아나는구료.

도랑으로 숨어들고, 동굴로 기어드는구료.

성읍들이 텅 비었구료. 쥐새끼 하나 찾아볼 수 없구료.

³⁰⁻³¹ 그런데도 그대들은 지금 뭘 하는 건지…?

파티복을 차려 입고, 보석으로 꾸미고,

립스틱과 립글로스를 바르고, 마스크라로 치장하다니!

하지만 아무리 몇 부려도 소용없을 걸...?
당신들은 아무도 유혹하지 못할 테니까! 그들이 당신들을 죽이러 왔으니까!
이 소리는 또 뭐지? 해산하는 여인이 울부짖는 소리로구나.
첫 아이를 낳는 산모의 비명소리로구나.
딸 시온의 울음소리, 가쁜 숨소리, 살려달라 외치는 소리로구나!
[백성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아이고, 나 죽네!
살인자들이 달려드네!

5 장

하늘 높이 죄가 쌓였도다.

1-2 [하나님] 예루살렘 거리를 순찰하거라.
이곳저곳 두루 살피고 기록하거라.
시장과 광장도 둘러보거라.
옳은 일을 행하는 자, 진실되게 사는 자가
한 명,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만약 있다면 용서해 주련만...
말로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라고 하는 그들,
하지만 다 ‘영혼 없는 빈 말’에 불과한 걸?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3-6 하지만 하나님, 주님은 진실을 찾고 계시죠, 그렇죠?
주님이 그들을 세게 치셨지만, 그들은 눈 하나 꿈쩍 안 했죠. (맏집이 지나치게 좋음^^)
주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죠.
완고한, 바위보다 더 완고한 그들, 조금도 변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지요.
“그래, 그들은 그냥 가련한 백성인 걸?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불쌍한 백성인 걸?
그들이 언제 하나님에 대해 배워 보길 했나,
기도모임에 한번 나가 보길 했나...
그러니 이제 명문가 사람들을 찾아가 말해 줘야겠어.
그럼 그들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뭔지 좀 알게 되겠지.
그렇게 사태 파악이 좀 되겠지.”

하지만 명문가라고 해서 나을 게 전혀 없던 걸요?
 똑같이 반역이나 저지르던 걸요?
 하나님이랑은 아무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던 걸요?
 침략자들이 들이닥쳐 살기등등한 기세로 사람들을 죽이려 하네요.
 산 속의 사자처럼, 황야의 늑대처럼, 어슬렁거리는 퓨마처럼 달려드네요.
 거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백성들의 죄가 하늘 높이 쌓였기 때문이겠죠.
 그들의 배신이 도를 넘었기 때문이겠죠.

7-9 [하나님] 그런데도 내가 왜 너희를 계속 신경 써야 하지?
 너희 자녀들이 나랑 상관없이 막 살면서
 신도 아닌 ‘튼보잡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준 건, 어느 누구도 아닌 나였건만,
 그들은 소위 그 ‘거룩하다는’ 창녀들이나 찾아다녔지.
 날 떠나 섹스교 사당에서 난교파티를 벌였지.
 잘생기고 정력 좋은 종마들이 발로 땅을 긁으며 히힛대듯
 그들이 이웃집 부인이랑 놀아나려고 안달이 났었지.
 너희 생각엔 내가 이걸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것 같니?
 내가 이런 인간들을 가만 놔둘 것 같냐고?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요.

눈 뜬 장님, 귀 멀췌한 귀머거리

10-11 [하나님] 포도원으로 내려가서 포도나무들을 훑거라.
 단, 모조리 훑지는 말고, 조금은 남겨 놓거라.
 포도나무의 가지를 쳐 주거라.
 그 웃자란 가지들은 내게서 난 게 아니란다.
 그들은 수도 없이 날 배신했어.
 유다와 이스라엘 둘 다 말야.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요.

12-13 [하나님] 그들은 나 하나님에 대해 이런 거짓말을 퍼뜨렸다. (가짜뉴스^^)
 [백성들] 하나님이 뭐 대수야?
 그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기근이든, 전쟁이든 아무 것도 안 일어날 거라고!
 선지자들은 다 허풍쟁이야.
 모두 헛소리만 지껄이고 다닌다니까?

14 [예레미야] 이에 하나님,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오.

[하나님] 그들이 이판 식으로 말하니, 그들 말대로 되게 해 주마.

잘 보거라! 불길 같은 나의 말을 네 입에 넣어주마.

높이 쌓아 올린 장작처럼, 이 백성을 모조리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15-17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일동 주목!

내가 먼 나라 하나를 불러들여 너희를 치게 할 거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유구한 역사를 가진 강대국,

너희랑은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를 불러들일 거다.

너희는 그들 말을 한 마디도 못 알아들을 거다.

그들이 활을 겨누는 순간, 너희는 죽은 목숨이야!

대단한 전사들의 나라인 그들이

너희 집, 너희 가족의 농작물과 아이들을 탈취해 갈 거다.

너희 양과 소로 파티를 벌이고

너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모든 열매를 다 따 먹을 거다.

너희가 안전하다고 믿던 요새?

적들의 칼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 거다.

18-19 하지만 상황이 이리 처참해도, 너희가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니란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그때 사람들이 묻겠지.

(백성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럼 이렇게 대답해 주거라.

“다 자업자득 아니겠니? 너희가 나를 떠나, 너희 땅에서 이방 신을 섬겼으니

이젠 그들 땅에서 이방인을 섬길 수밖에...”

20-25 야곱의 집에 전하거라. 유다에 공고문을 붙이거라.

“너희 미련한 자들아, 이 멍청이들아!

너희는 참으로 눈 뜬 장님이요, 귀 멀췌한 귀머거리로구나.

너희는 왜 날 존중하지 않는 거니? 나에 대한 경외심이 어쩔 그리 눈꼽만큼도 없냐고?

그래, 해안선으로, 바다와 육지를 나눈 게 나란다.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모래사장에 경계선을 그린 것도 나야.

파도가 아무리 높이 쳐도 해안선은 못 넘게 만들었지.

아무리 치고 들어오려 해도 ‘딱 거기까지’라니까?

그런데 이 백성-도대체 뭐 이런 백성이 다 있는지!-은 계속 달아나기만 하는 게

도무지 제어하지도, 길들이지도 못하겠구나.

그들은 단 한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지.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봄비와 가을비를 주시는 하나님
 4 계절의 리듬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박자감각!!)
 해마다 추수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
 우릴 위해 모든 걸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는 하나님!”
 아무렴, 너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어.
 악행에 눈이 멀어 그런 말 할 생각조차 못했지.
 그 죄악의 발로 내 축복을 걷어차 버렸다고!

그 무엇, 그 누구 위해서도 일어서는 법이 없지.

26-29 [하나님] 내 백성이 악인들에게 겁탈당하는구나.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사냥 당하는구나.
 그 인간들이 죄 없는 자를 잡으려 덫을 놓았구나.
 무고한 남녀를 희생시키는구나.
 그들 집이 노략한 물건으로 가득하구나.
 사냥꾼의 보따리에 새가 가득하듯...
 권세와 부를 거머쥐어 거만하기 짝이 없는 그들
 고도비만, 복부지방, 개기름이 질질 흐르는구나. (체질량지수 BMI 40^^)
 하지만 더 최악인 것은, 그들에겐 양심이 없다는 것!
 그들에겐 옳고 그른 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
 그 무엇, 그 누구 위해서도 발벗고 나서는 적이 없지.
 고아들을 늑대에게 내던지고, 빈민들을 팽개치는 그들
 너희 생각엔 내가 이걸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것 같니?
 내가 이런 인간들을 가만 놔둘 것 같아?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 * *

30-31 [하나님] 정말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는구나. 너무 역겨워 토할 것만 같구나!
 어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된 건지...
 거짓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그 하수인 노릇하는 제사장들
 그런데도 내 백성이 그걸 좋아하는구나. 거짓말을 남김없이 먹어치우는구나. (먹방^^)
 그러다 종말이 오면, 그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6 장

거짓이 만연한 성읍

1-5 [하나님] 목숨을 부지하고 싶거든 달아나거라, 베냐민의 자녀들아!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거라. 어서!

‘나팔 마을’에서 양각나팔을 불거라.

‘봉수대 고장’에서 연기신호를 보내거라.

북쪽에서 재앙이 쏟아져 들어오는구나. 엄청난 테러가 몰려오는구나.

한때 ‘아름다운 초원’에 비유되던 내 사랑하는 딸 시온!

북쪽에서 온 ‘세퍼드들’이 딸 시온을 덮치다니!

그들이 ‘짐승군대’를 몰고 오다니!

사방에 진을 친 후, 어디에서 풀을 뜯을지 모의하는구나.

그리고는 이렇게 외치는구나.

(북쪽 사람들) 전쟁이다! 공격 준비!

모두 완전무장해라! 정오에 공격을 개시한다!

어? 너무 늦었나? 벌써 해가 지고 있네?

땅거미가 드리우네? 할 수 없지. 어쨌든 일어나라! 밤에라도 공격하자!

시온의 방어벽을 무너뜨리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6-8 [예레미야]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오.

[하나님] 시온의 나무들을 베어

예루살렘을 포위할 경사로를 세워라.

잔인함이 만연한 성읍, 폭력이 난무하는 예루살렘

끊임없이 샘솟는 우물처럼

예루살렘에선 악이 끊임없이 솟아나는구나.

거리마다 ‘폭력이다! 강간이다!’란 비명소리가 들리는구나.

피 흘리며 신음하는 희생자들이 사방에 널려 있구나.

예루살렘아, 너 정말 큰일났구나.

이젠 도저히 널 못 참아주겠구나.

네가 전멸당하기 직전이구나. 유령도시가 따로 없구나.

9 [예레미야]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명하셨다오.

[하나님] 시간이 다 됐다! 심판의 포도를 거두어라.

하나도 남김없이, 이스라엘을 탈탈 털어라.

포도나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다시 가 보아라.

한 알도 남김없이, 모든 포도를 다 거두어라.

거기 누구 내 목소리 들리는 사람 없소?

10-11 [예레미야] 내, 할 말이 있대요. 거기 누구 내 목소리 들리는 사람 없소?

내가 방을 붙이려 하는데, 누구 볼 사람 없소?

절망스럽구나! 그들 귀에 딱지가 앉았는지 말뚝처럼 귀가 먹었구나.

박쥐처럼 눈이 멀었구나.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는 그들,

도무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글부글 끓어

도저히 못 참겠구나.

11-12 [하나님] 내 진노를 거리의 아이들에게 쏟아 부어라.

이 진노를 비행 청소년들에게 풀어 놓아라.

아무도 예외는 없다. 남편도, 아내도 다 잡혀 갈 거다.

노인도, 오늘내일 하는 자도 다 잡혀갈 거다.

집도 포기하고, 재산도 마다한 채로,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버려둔 채로….

이 나라 백성을 향해 내가 신호를 보내는 순간, 그렇게 될 거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13-15 [하나님] 작은 자든 큰 자든, 너나없이 다 부정축재에 혈안이 됐구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 중간쯤에 있는 이들도

하나같이 진실을 왜곡하며 약을 파는구나.

내 백성이 뼈가 부러졌는데도, 아니 완전히 으스러졌는데도

그저 반창고만 붙여주며 끝내려 하다니!

그러면서 ‘별 거 아니오. 곧 괜찮아질 거요’라고 하다니!

실상은 전혀 괜찮지 않은데도…!

그들이 과연 이런 극악무도한 행위를 부끄러워할까?

천만에! 그들은 수치를 모른다. 얼굴을 붉히는 법조차 없지.

그들에겐 희망이 없어. 바닥을 친 그들, 일어날 가망이 없구나.

내가 보기에, 그들은 끝났어!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죽음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대요.

16-20 [예레미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임했대요.

[하나님] 거리로 나가 둘러보거라.

오래된 길, 이미 검증된 진리의 길이 어딘지 물어보거라.

그리고 그 길로 가거라.

너희 영혼을 위해 옳은 길로 가거라.

하지만 그들이 뭐라 한지 아니?

(백성들) 필요 없어요. 우린 그 길 안 가요!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보초병을 붙여줬는데도,

경고도 해 주고, 경보도 울려 줬는데,

백성들은 도리어 이렇게 말했지.

(백성들) 경보가 오작동한 거야. 신경 안 써도 돼.

[하나님] 결국 난 증인으로 다른 나라들을 불러 말했지.

“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지켜보거라. 잘 감시하거라!”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

“땅아, 잘 듣거라! 한 마디도 놓쳐선 안 돼!”

내가 이 백성에게 대재앙을 내리려다.

그들이 날 상대로 하던 게임의 결과를 보여주마.

그들은 내 말이라면 싹 다 무시했지.

내 가르침이라면 무조건 경멸했어.

시바에서 가져온 향이라면 내가 꺼뺄 죽을 것 같니?

진귀한 외제 향신료에 내가 감탄할 것 같아?

너희의 번제물? 난 전혀 기쁘지가 않아.

너희의 그 형식적인 종교의식? 나한테 아무 의미도 없다고!

²¹ [예레미야] 그대들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문이라고.

[하나님] 조심하거라! 내가 너희 앞길에 걸림돌과 장벽을 설치할 거니까.

너희는 거기 부딪쳐 나뒹굴 거다. 너희 부모든, 자식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모두다!

그게 너희가 맞을 최후란다.

²²⁻²³ [예레미야] 잘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문이라고.

[하나님] 조심하거라! 북쪽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오는구나.

먼 나라에서 엄청난 군대가 진군해 오는구나.

이빨까지 완전무장을 한 군대, 사악하고 무자비한 군대가 오는구나.

해일 소리, 천둥 소리를 방불케 하는 굉음! 뚜벅 뚜벅 뚜벅!

군마를 타고 전투대형을 갖추어

너희를 향해 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딸 시온에게로...

²⁴⁻²⁵ [예레미야] 우린 그 소식을 듣고 맥이 풀렸다네.

겉에 질려 온몸이 얼음이 됐지. (누가 ‘땡’ 좀 해 줘요!^^)
 공포에 목이 졸려 숨이 막히는구나.
 밖에 나갈 엄두도 마시오!
 집밖엔 한 발자국도 나서지 마시오!
 죽음이 거리를 배회하는구료.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구료.
 26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 시온아, 상복으로 갈아입거라.
 재로 얼굴을 검게 칠하거라.
 네가 외아들로 인해 비통하게 울게 될 거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구나. 6, 5, 4, 3...
 공포의 시간이 임박했구나!

* * *

27-30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내게 임무를 맡기셨소.
 [하나님] 내가 널 내 백성의 심사관으로 세웠단다.
 그들의 삶을 조사하고 평가하라고...
 미련 곱탕이들, 바늘로 찢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들,
 속까지 썩을 대로 썩은 그들,
 용광로 온도가 최고선까지 올라갔건만
 아무런 변화없이, 여전히 덩어리로 남아있는 광석 같구나.
 아무리 애써도 그들에게서 악을 정제해내지 못하니
 두 손 두 발 다 든 사람들, 그들을 ‘쓰레기’라 부르는구나.
 그들의 하나님인 내가 버린 쓰레기...

7 장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나라

1-2 [해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요요.
 [하나님] 예레미야야, 나 하나님의 성전 문에 서서 이 메시지를 전하거라.
 2-3 이렇게 말하거라.
 “잘 듣거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백성들아!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3-7 너희의 행실-가치관과 행동-을 깨끗이 하거라.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यो. 아무렴,
 하나님의 성전이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라고 말한다 해서, 그들을 믿으면 안 돼! 전혀

진심이 아니거든. 너희 행실 (가치관과 행동)을 깨끗이 할 때, 너희의 삶과 이웃을 향한 마음에 ‘봄맞이 대청소’를 시행할 때, 노숙자, 고아, 과부 착취하기를 멈출 때, 성전에서 순진한 사람들 등쳐먹기를 그만둘 때, 성전을 ‘우상의 전시장’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너희 영혼 망치는 짓을 그만둘 때, 그때 비로소 난 너희와 함께할 거다. 그때 비로소 이 나라-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가 나의 영원한 집이자, 내 성전이 될 거란 말이다!

8-11 정신차리거라! 지도자들이 늘어놓는 거짓말이나 덩석덩석 물다니! 머리 좀 쓰렴! 도둑질, 살인, 옆집 아낙네와의 간음, 상습적 사기, 이방신 숭배, 새로 론칭한 우상용품 구매 등등..., 이런 짓을 하고도 내 예배처소로 성별된 이 성전에 당당히 들어와서는 ‘우린 안전해!’라고 하다니, 지금 제정신이야? 그저 ‘성전’이라 불리는 이 장소에만 들어오면, 너희의 그 파렴치한 신성모독죄에 대해 면죄부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범죄자들 소굴이 따로 없구나! 내 예배처소로 성별된 성전을 이딴 식으로 변질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냐고? 제발 생각 좀 하며 살아! 나도 눈이라는 게 있단다.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보고 있단 말야!”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12 [하나님] 실로에 있던 그곳, 예전에 내가 내 백성을 만나던 그곳에 한번 가 보거라. 어찌다 그곳이 이런 폐허가 되었을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악한 길로 갔기 때문이지. 그래서 내가 거길 그렇게 만든 거라고!

13-15 내가 너희를 특별히 불러내 그토록 엄중히 경고했음에도 너희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왔잖니? 내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일렀음에도 너희 끝까지 고집부렸잖니? 내 예배처소로 성별된 이 성전, 너희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믿는 이 성전, 내가 너희 조상에게 선물로 줬던 이 성전을 이제 실로처럼 만들어 주마. 그럼 너희는 어떻게 될까? 예전에 실로 주변에 살던 너희의 오랜 친척, 북쪽에 거하던 너희 동족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도 멸절되는 거지.

16-18 그리고 예레미야야, 넌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한다고 시간낭비 말거라.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간구도,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야! 그들 일로 더이상 날 성가시게 말라고! 이제 난 안 들으려나. 그들이 유다의 마을마다, 예루살렘 거리마다 하는 짓들을 너도 봤잖니? 그들이 자녀에게 땀감을 주워 오게 한 후,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어머니는 ‘하늘 여왕’에게 바칠 빵을 굽는 걸 너도 보지 않았냐고? 그것도 모자라, 이방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전제를 부어 바치는 걸로 내 속을 뒤집어 줬지.

19 이게 과연 내게만 상처 준 일이었을까? 자기 자신한테도 상처가 되지 않았겠어? 스스로를 조롱거리, 수치거리로 만든 게 아니란 말야.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20 주 하나님께서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하오.

[하나님] 내 진노가 뜨겁게 타오르는구나. 이 나라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사람, 짐승, 들판의 나무, 밭의 채소-에 쏟아질 진노로구나. 아무도 끌 수 없는 불이로구나.

21-23 [예레미야]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라오.

[하나님] 가거라! 가서 어디 한번 너희 번제물을 다른 희생제물들과 함께 드려 보거라. 그리고 너희나 배 터지게 먹거라, 난 절대 그 제물 안 받을 테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내가 한번이라도 그들에게 그런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들을 원한단 애길 한 적이 있었니? 그저 이런 말만 했지. “나한테 순종하거라. 내 말대로 행하거라. 그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줄게. 그렇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내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살거라. 내 명대로 행하거라. 그럼 너희 삶이 순탄할 거야.”

24-26 하지만 그들이 내 말을 들었을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냥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했지. 온갖 못된 똥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더니, 갈수록 더하더구나.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을 벗어난 이래 지금까지, 난 끊임없이 내 종, 선지자들을 보내줬건만, 이 백성이 꺾등으로나 들은 줄 아니? 어림 반 톨어치도 없어! 노새처럼 고집 센 그들, 자기 조상들보다 훨씬 더 고집이 세다!

27-28 그들에게 자세히 전하거라. 하지만 그들이 들으리란 기대는 말거라. 그들에게 외치거라. 그러나 그들이 회답할 거란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게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거라.

“그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민족이요. 하나님의 훈계라면 다 거부했소. 진리는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 그대들 말에선 진리의 ‘진’자도 찾아볼 수 없구료.

29 그러니 이제 머리를 밀고, 언덕에 올라가 애곡하시오.

하나님을 이토록 화나게 만든 이 세대를, 주님이 등지고 떠나셨다오!”

30-31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버젓이 악을 저질렀어. 보란듯이 날 모독했지. 다른 곳도 아니고, 날 높이기 위해 세운, 바로 그 성전애다가 자기들의 음란한 신상을 세워 놨다고! 벤-힌놈 골짜기 어디든, 보이는 곳 어디든, 아기들을 번제로 바칠 도벳 제단을 세웠지. 그곳에서 자기 아들딸을 산 채로 태워 죽였다고! 어떻게 나의 존재를, 내 모든 명령을 그리도 심하게 왜곡시켰는지, 정말 충격이구나!

32-34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하지만 이제 곧, 머잖아 그곳이 더 이상 ‘도벳’과 ‘벤-힌놈’으로 불리지 않을 게다. 대신 ‘킬링필드’라 불릴 게다. 도벳에는 시체 매장할 곳도 없어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일 게다. 그렇게 널브러진 시체들을, 그곳을 점령한 까마귀와 코요테가 와서 파먹을 게다. 또한 유다 마을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미소도, 웃음도 다 사라질 게다. 결혼식 축하도, 축제의 노래도 끊길 게다. 쥐 죽은 듯 고요한 적막만이 흐를 게다.

8 장

1-2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 내가 유다 왕들, 제후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유골을 다 파헤쳐 마치 제사 드리는 것처럼 펼쳐 놓을 게다. 그 오랜 세월동안 그들이 그렇게 심취했던 온갖

‘뜰보잡 신들’-해, 달, 별, 하늘의 신-앞에, 그리고 그들이 개처럼 헌신했던 ‘행운의 별들’ 앞에 펼쳐 놓을 게다. 그렇게 그 유골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채, 밭의 비료와 거름이나 되게 해 주마.

³ 한편, 이 악한 세대에서 살아남은 자들-내가 저버린 곳, 그들을 쫓아버릴 곳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지지리도 운이 없는 자들-은 차라리 죽여달라 애원할 게다.

[예레미야]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의 말씀만 빼고 뭐든 다 아는 자들

⁴⁻⁷ [하나님] 그들에게 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거라.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든?

길을 잘못 들어서면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아?

그런데 이 백성은 왜 자꾸만 거꾸로 가는 거지?

왜 그렇게 계속 역주행을 하난 말야.

자기환상에 빠져, 돌아설 생각이 전혀 없구나.

아무리 귀를 기울여 봐도, 작은 속삭임조차 안 들리는구나.

그 어느 누구도 후회의 말을 안 하는구나.

‘죄송해요’라는 소리는 한 마디도 안 들리는구나.

눈이 먼 그들, 멍청하게 머리를 벽에 찰라대는구나.

두루미도 겨울 나리 남쪽으로 날아갈 때를 아는데,

종달새, 휘파람새, 파랑새도 다시 돌아올 때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내 백성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 하나님과 나의 통치에 대해, 기본도 모르고 있구나.

⁸⁻⁹ 너희가 어떻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나?

(백성들) 우등생인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맡았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구나.

[하나님] 그런 태도가 너희 어디로 몰고 갔는지 보거라. 너희를 환상에 가둬 버렸잖니?

너희 모두 종교 전문가들한테 뉘인 거야! (스미싱^^)

‘뭐든 다 안다’고 떠들어대는 그들, 가면이 벗겨질 거다.

실체가 드러나, 딱 걸릴 거다!

저들을 보거라! 저들이 과연 뭐든 다 아는구나. 나 하나님의 말씀만 빼고!

그런데도 그걸 ‘안다’고 할 수 있을까?

¹⁰⁻¹² 그렇게 ‘뭐든 다 안다’고 떠들어대는 자들에게 딱칠 일을 알려 주마.

내가 그들을 흠아비로, 노숙자로 만들어 주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정축재를 하는 그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 언저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진실을 왜곡하며 약을 파는구나.

내 사랑하는 딸-내 백성-의 뼈가 부러졌는데도,
 아니 뼈가 완전히 으스러졌는데도, 그저 반창고만 붙여주고 끝내는구나.
 그러면서 ‘별 거 아니오. 곧 괜찮아질 거요’라고 하는구나.
 실은 전혀 괜찮지 않은데도…!
 네 생각엔 그들이 이런 극악무도한 행위를 부끄러워할 것 같니?
 천만에! 수치를 모르는 그들, 얼굴 한번 붉히는 법이 없지.
 그들에게엔 희망이 없어. 바닥을 친 그들, 일어설 가망이 없구나.
 내가 보기에, 그들은 끝났어!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오.

* * *

13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뭐 좀 건질 게 있나 해서 내가 들에 나가 봤거든?
 그런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더구나.
 포도 한 알, 무화과 한 개도 맺힌 게 없었지.
 그저 시든 이파리 몇 개뿐…. (마지막 잎새^^)
 그래서 난 그들에게 줬던 걸 다 회수하기로 했단다.

14-16 (백성들) 우리가 왜 여기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지?
 조식을 결성해, 대도시로 가, 피 터지게 한번 싸워보자구!
 어차피 우린 하나님의 최후통첩을 받았는 걸?
 주님께 죄를 지은 우리,
 아무리 발버둥쳐도 어차피 망하게 돼 있잖아?
 사태가 개선되길 바랐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
 치료받길 기다렸지만 오히려 공포가 엄습해 왔잖아?
 북쪽 국경지대, 단에서 말발굽 소리만 들려왔을 뿐….
 다그닥 다그닥 말굽 소리, 히히힃 콧김 내뿜는 소리
 땅이 흔들리며 진동했잖아?
 온 나라를 집어삼킬 듯한 그들의 기세,
 이 전쟁으로 인해 온 성읍사람들이 먹잇감이 되고 말았잖아?

17 [하나님] 아직 멀었어! 내가 너희 가운데 독사를 풀어 놓으련다.
 요술로 달랠 수 없는 뱀, 너희를 물어 죽일 뱀을!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날로 업그레이드되는 악(惡)

18-22 [예레미야] 비탄에 잠긴 이 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네요.

오, 들어주세요! 제발 들어주세요! 내 사랑하는 백성의 외침을!
 온 땅에 울리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더 이상 시온에 안 계시나요?
 우리의 왕께서 영원히 떠나신 건가요?
 [하나님] 그들은 장난감 신을 왜 그리 자랑스러워할까?
 멍청하기 그지없는 신, 수입된 ‘듣보잡 신’을 왜 내 앞에서 그렇게 과시할까?
 (백성들) 추수도 끝나고 여름도 지났건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구나!
 여전히 구조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신세...
 [예레미야] 사랑하는 내 백성이 상처 입은 걸 보니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나, 슬픔에 사로잡혀 흐느낍니다.
 길르앗에 정녕 치료약이 없단 말인가요?
 그곳에 정말 의사가 하나도 없단 말인가요?
 어찌하여 내가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들은
 치유받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건가요?

9 장

1-2 [예레미야] 얼마나 좋을까,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눈이 샘이라면?
 그럼 나의 사랑하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밤낮으로 눈물이라도 흘리련만...
 때때로 난 생각하지.
 내게 황야의 오두막집이 있다면!
 광야에 작은 집이 있다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럼 내 백성을 피해 거기에 가 살련만...
 다시는 그들을 안 봐도 되련만...
 믿음이라곤 손톱만큼도 없는 백성, 책임감이라곤 조금도 없는 무리,
 타락한 자들의 모임인 그들을 다시는 안 봐도 되련만...

* * *

3-6 [하나님] 그들이 혀로 거짓말을 쏘아대는구나.
 활로 화살을 쏘아대듯...
 강력한 거짓의 군대
 진리와 원수 맺은 자들

그들의 악은 날로 업그레이드되는구나.

그렇게 날 생까는구나.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오랜 이웃이라고 믿지 말거라.

너희 할머니조차 믿어선 안 돼!

형제가 형제에게 사기를 치는구나. 그 옛날, 형을 속인 야곱처럼….

친구가 친구의 뒷담화를 하는구나.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는구나.

이웃이 이웃의 등을 쳐 먹는구나. 한번도 진실을 말하는 법이 없구나. (날 사랑하긴 한 거니?ㄹㄹㄹ)

혀에 ‘거짓말훈련’을 시킨 그들

이젠 아예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되었구나.

죄 위에 죄를 쌓고, 거짓 위에 거짓을 올리는구나.

그렇게 날 개무시 하는구나.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오.

7-9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오.

[하나님] 잘 보거라! 내가 그들을 분해해

실상을 드러내 주마.

이토록 악한 백성들에게, 이것 말고 내가 뭘 해 줄 게 있겠니?

그들의 혀, 독화살을 쏘아대는구나!

그들의 입, 무시무시한 거짓말을 내뿜는구나!

이웃에게 미소지으며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라고 인사하지만

등뒤에선 계락을 꾸미는구나.

네 생각엔 내가 이걸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것 같니?

내가 이런 인간들을 가만 놔둘 것 같아?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10-11 내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르네, 산 위의 초원이 사라지다니!

내가 장송곡을 부르네, 오래된 목초지가 없어지다니!

황폐한 불모지로 변하다니!

여행자들도 못 다니는 우범지대가 되다니!

양의 메에에에 소리도, 소의 음메음메 소리도 들리지 않네.

새들도, 야생 짐승도 모두 사라졌네.

살아 움직이는 것도, 살아 숨쉬는 것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을 폐허더미로 만들어 주마.

유기묘, 유기견만 어슬렁거리도록….

내가 유다 성읍들을 잿더미로 만들어 주마.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도시로….

* * *

12 [예레미야] 내가 이렇게 물었지요.

“여기 누구 없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해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겠지요. 하나님께 이 모든 사건의 내막을 듣고 그걸 우리에게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요?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폐허가 된 거요?

어쩌다 여행자 하나 없는 황무지가 됐겠지요?”

13-15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하나님] 이 모든 게 그들이 나의 분명한 가르침을 저버렸기 때문이란단다. 그들은 내 말이라면 아예 귀를 막았지. 내가 일러준 삶의 방식을 거부하며 제 멋대로 살았어. 그러면서 바알 신을 택했지. 바알 신이 자기네 소원을 다 들어줄 줄 알았거든. 그렇게 자기 부모의 길을 그대로 답습했어.

[예레미야] 그 결과 이렇게 된 거라오.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그들에게 돼지똥을 먹여 주마. 그들이 독을 마시게 해 주마.

16 그런 다음 머나먼 곳으로 쫓아내 주마. 그들도, 그들 부모도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불경건한 백성들에게 보내 주마. 그런 다음, 죽음이 그들을 끝까지 쫓아다니게 해 주마. 그렇게 그들을 다 없애 주마.

적자인생

17-19 [예레미야] 천군천사의 하나님에게서 온 메시지라오.

[하나님] 너희가 처한 상황을 보거라.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거라.

곡(哭)하는 자를 불러 너희의 죽은 자를 애도하게 하거라.

어서 불러오거라. 너희 죽은 자들을 위한 애가를 불러 줄 자를….

너희의 눈물이 흐르게 해 줄 자를,

너희 울음소리에 맞춰 장송곡을 연주해 줄 자를….

들어 보거라!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의 폭포수 소리를!

(백성들)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우리 민족이 수치를 당했구나!

우리가 이대로 고향에서 쫓겨나는구나. 우리 땅을 떠나야 하는구나!

* * *

20-21 [예레미야] 애곡하는 여인들이여!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오!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을 들으시오.

딸에게 장송곡을 가르치시오.

친구에게 비련의 노래를 알려 주시오.

죽음이 창 틈으로 기어들어와 방안까지 잠입했구료.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어린이들이 떨어져 죽고

운동장에서 경기하던 젊은이들이 쓰러지는구료.

²²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나님] 이 소식을 널리 전하거라!

시체들이 지천에 깔렸구나.

양과 염소의 똥이 들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 같구나.

추수꾼들에게 버려진 곡식단이 별판 곳곳에서 썩어가는 형상이로구나.

²³⁻²⁴ [예레미야]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나님] 현인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영웅은 공적을 과시하지 말며

부자는 부를 떠벌리지 말거라.

정 자랑하려거든, 이것만, 오직 이것만 자랑하거라.

날 이해하고, 날 아는 것만 자랑하거라!

나는 하나님이란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

옳은 일만 하는 하나님! 모든 걸 정의롭고 공의롭게 바로잡는 하나님!

내 뜻대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는 하나님!

이게 바로 나의 특징이란다. (하나님의 자소서^^)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고.

* * *

²⁵⁻²⁶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고.

[하나님] 깨어 있거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허세만 가득한 자들, 내가 하나하나 손봐 줄 거란다.

애굽, 유다, 에돔, 암몬, 모압! (출석점검^^)

이 나라들이 함께 대규모 ‘종교 쇼’를 벌이고 있구나.

이스라엘? 너도 전혀 나을 게 없어! (방심하고 있다가 뒤늦게 깜놀^^)

10 장

막대기 신들

¹⁻⁵ [예레미야] 이스라엘의 집이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오.

초집중해 잘 들으시오.

[하나님] 불경건한 나라들을 너희 모델로 삼아선 안 돼.

그들의 요란뻑직한 현란함에 압도당할 필요도 없어.

그 민족들의 종교? 그건 그저 한 줄기 연기에 불과하단다.
 그들의 우상? 그건 목공이 도끼로 나무를 베어 만든 것뿐이야.
 나무토막에 반짝이는 금속으로 요란한 장식을 하고는
 망치로 못을 박아 세워 놓았지.
 마치 배추밭의 허수아비 같지 않니? 한 마디 말도 못하잖아.
 사람이 베고 다니는 죽은 나무토막인 걸? 한 걸음도 못 걷잖아.
 그런 물건에 현혹되지 말거라.
 그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 없으니….

6-9 [예레미야] 오 하나님! 그들 모두는 주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기가 막힐 정도로 위대하신 주님! 그 위대한 이름!
 만국의 왕이신 주님께 그 누가 감동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마땅히 경배 받으실 주님!
 저 머나먼 나라, 그 잘난 자들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주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걸요?
 어리석은 그들, 자기 신들을 줄 세우지만 그건 막대기의 행렬일 뿐인 걸요.
 그런 건 뿔감으로 밖에 더 쓰겠어요?
 다시스에서 들여온 은박으로 도금하고
 우바스에서 수입한 금박을 입혀
 보라색 천, 자주색 천으로 화려하게 옷 입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한낱 막대기에 불과한 걸요.

10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시잖아요.
 살아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
 주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흔들리죠.
 아무렴요, 불경건한 나라들이 벌벌 떨지요.

11-15 [하나님] 그들에게 전하거라.
 “막대기 신들? 그들이 만든 게 하나라도 있니?
 하늘도, 땅도, 아무것도 못 만들잖아?
 그들 자신도 땅과 하늘 사이에서 결국 허망하게 사라지고 마는 걸?”
 [예레미야]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지요.
 그렇게 온 우주를 손수 빚으셨지요.
 주님이 천둥을 보내시니 비가 쏟아지네요.
 주님은 구름을 띄우시고
 번개로 폭풍을 장식하시며

창고에서 바람을 꺼내 발사하시죠.

하지만 막대기 신 숭배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상 제작자들이 자기가 만든 신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네요.

그들의 신은 엉터리, 죽은 막대기, 생명 없는 나무우상

한날 ‘썰렁 개그’에 지나지 않는 그들

심판의 불이 내리면, 한 줌 재로 변하고 말죠.

¹⁶ 하지만 ‘야곱의 분깃’이 되신 분은 실재하신다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다니!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바로 천군천사의 하나님!

* * *

¹⁷⁻¹⁸ [예레미야] 보파리를 챙기시오, 적의 공격 아래 놓인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다오.

[하나님] 잘 봐! 내가 이곳 모든 주민들을 내쫓으려나.

당장, 그래, 지금 당장!

그들 숨이 깔딱거릴 때까지 압박해 주마.

그들 숨이 끊길 때까지 목 졸라 주마.

* * *

¹⁹⁻²⁰ [예레미야] 그날은 암흑의 날, 회생불가의 날, 치명적인 날!

나는 말했지. ‘어떻게, 어떻게 내가 이 고통을 견딜 거라 생각했을까?’

우리 집이 무너졌는데? 지붕이 폭삭 주저앉았는데?

자식들이 사라졌는데? 다시는 아이들을 볼 수 없는데?

집을 다시 세워줄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남았구나.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²¹ 이 모든 건 지도자들의 어리석음 때문

그들은 단 한번도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지 않았어.

그래서 모든 게 엉망이 된 거야.

그래서 온 백성이 뿔뿔이 흩어진 거야.

²² 잘 들어 보시오! 무언가 오고 있소!

북쪽 국경지대에서 큰 소동이 일고 있구요.

머잖아 유다 성읍들이 박살나겠구요.

그래서 유기견, 유기묘들 차지가 되겠구요.

²³⁻²⁵ 전 알아요, 하나님,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생명을 1 초라도 연장할 수 있겠어요?

인간에겐 생명을 관장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걸요?

그러니 하나님, 우릴 바로잡아 주세요. 주님 눈에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화를 삭여 주세요. 안 그럼 우린 끝장이라구요!
주님의 진노일랑 불경건한 나라들에게 쏟아 주세요.
주님 인정하길 거부했던 나라들에게,
주님께 기도하길 거부했던 나라들에게,
야곱을 사냥감으로 삼았던 그자들에게,
그래요, 야곱을 집어삼킨 그들에게,
백성과 목초지를 날로 먹은 그들에게….

11 장

계약내용

¹ [해설] 다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²⁻⁴ [하나님]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선포하거라. 이렇게 전하거라.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다. 이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저주를 받을 거야. 계약내용은 간단명료해.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 그 고난의 용광로에서 해방시켜 줬을 때에도 난 그들에게 계약내용을 명확히 제시했어.

⁴⁻⁵ 내 말에 100% 순종하거라. 내 명을 끝이끝대로 수행하거라. 너희의 순종으로 이 계약은 성사된단다. (순종이 인감도장^^) 그렇게 너희는 내 것이, 나는 너희 것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비옥하고 푸른 땅을 주겠다는-을 수행하는 조건이기도 했단다. 그리고 너희도 알다시피 난 그 계약대로 시행했지.”

[예레미야] 내가 대답했다고요.

“네, 하나님, 맞습니다.”

⁶⁻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소.

[하나님] 이 모든 내용을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전파하거라. 이렇게 전하거라.

“이 계약내용을 잘 듣고 그대로 실행하거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줬을 때 난 그들에게 경고했어. 그후로도 끊임없이, 계속 경고했지. 난 한 순간도 경고를 멈춘 적이 없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내게 순종하라고 경고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 그들은 내게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었지. 그들은 늘 자기 맘대로 살았어. 그래서 결국 내가 손쓸 수밖에 없었던 거야. 계약내용대로 징벌을 명했지. 내가 그렇게 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그들이 끝내 무시했던 바로 그 계약내용대로 말야.”

⁹⁻¹⁰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요.

[하나님]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려 하는구나.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경배했던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재현하면서 내게 불순종하는구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통속이 됐구나. 그들이 작당해, 내가 그들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서슴없이 파기하는구나.

11-13 나, 너희 하나님이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다. 잘 보거라! 난 너희를 파멸시킬 거다!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할 거다. 아무리 도와달라고 울부짖어도 난 듣지 않을 거다. 그럼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이 제사 드렸던 신들에게 기도하겠지. 하지만 그대 봤자 아무 소용없을 거다. 유다야! 너희는 마을마다 제각각 신을 두었잖니? 예루살렘 골목마다 ‘섹스의 신’-하지만 실은 ‘발기부전의 신’-인 바알을 위해 제단을 세웠잖니?

14 그리고 너 예레미야야, 넌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거라. 단 한 마디도! 그들을 위한 기도는 한 마디도 말거라. 그들이 죽겠다며 아무리 아우성쳐도 난 한 마디도 안 들을 거니까!

수많은 서원과 경건 프로그램

15-16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는구나.

다름아닌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말이다.

‘어떻게 하면 이 화를 피할 수 있을까?’라며 고민하는구나.

너희 생각엔 그런 서원을 한다 해서, 경건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해서
이 재앙을 면할 것 같니?

종교행위로 이 파멸을 벗어날 것 같아?

한때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표현했었지.

‘건실한 참나무,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참나무’

하지만 너희 꼴을 보아 하니, 천둥 한번, 번개 한번에 처참히 쓰러지게 생겼구나.

17 천군천사의 하나님, 그래, 너희를 심었던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파멸을 선포했다.

왜냐고? 너희가 파멸을 자초하는 생활을 했으니까!

저 처량한 신 바알에게 끊임없이 제사와 제물을 갖다 바쳤으니까! 그렇게 날 노엽게 했으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똑같이 말야! (난형난제, 백중지세, 호각지세, 옹호상박-한 마디로 박빙^^)

* * *

18-19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현상황에 대해 제게 말씀해 주셨죠.

전 그렇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 주님은 제 눈을 열어 저들의 악한 계략을 보게 하셨죠.

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순진(사실은 무지)했죠.

그들이 저를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제 뒤에서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죠.

(백성들) 저 설교자를 처치하자. 그래야 설교가 끝나지.

저자를 완전히 없애 버리자. 우리 기억에서 말끔히 지워 버리자.

²⁰ [예레미야] 난 계속 말했다오.

“천군천사의 하나님, 공정한 재판관이신 주님!

드러난 행동뿐 아니라 숨은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

이자들의 정체가 드러나 수치를 당하게 해 주세요.

주님은 저에 대해 정확히 아시잖아요. 부디 제 오명을 씻어 주세요.”

²¹⁻²³ 그러자 내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다음과 같이 명확히 말씀하셨다오.

[하나님] 아나돗 사람들이 전에 널 살해하려 모의하면서 이런 말을 했잖니?

(아나돗 사람들) 하나님 이름을 들먹여가며 더 이상 우리한테 설교하지 마시오! 우리 말 안 들었다간 죽여버릴 테니까….

[하나님] 내가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말해 주마. 그래,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말이란다. 반드시 내가 그들을 징벌할 테다. 그들 젊은이들은 전사(戰死)하고, 어린아이들은 아사(餓死)할 거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다, 아무도! 내가 아나돗 사람들을 파멸시킬 거다. 그들이 그렇게 최후를 맞이할 거다!

12 장

앞으로는 말이랑 경주해야 할 텐데….

¹⁻⁴ [예레미야] 주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모든 사태를 바로잡아 주시죠.

그에 대해선 반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여쭙 봐도 될까요?

왜 나쁜 사람들이 멀쩡히 잘 사는 거죠?

왜 사기꾼들이 대박 나는 거냐고요?

주님이 그들을 심으시니 그들이 뿌리내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무성히 자라 열매를 맺는 거 아니냐고요?

그들은 주님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마치 주님의 오랜 친구나 되는 것처럼 떠들어댄다고요!

하지만 저에 대해서는 알뜰 없으시죠.

저한테는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들도 자기 행실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해 주세요.

도살될 양처럼, 자기 목숨으로 죄값을 치르게 해 주세요.

도대체 얼마나 더 이런 일을 참아야 하는 거죠?

나라는 황폐해지고, 농장은 폐허가 됐는데….

이 모든 게 악인들의 그릇된 삶 때문 아닌가요?
짐승들과 새들마저 죽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아무 신경도 안 쓴다고요!
하나님도 자기네한테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죠.

* * *

5-6 [하나님] 예레미야야, 네가 이렇게 사람들과 경주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하물며 말과 경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조용한 때에도 이렇게 마음을 다잡을 수 없다면
요단강이 범람하듯 큰 문제가 닥치면 어찌려고 그러니?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네 형제랑 사촌들이 너와 맞서는구나.
그들이 널 잡으러 나왔구나. 어떻게 해도 그들을 말릴 수가 없구나.
그들을 믿지 말거라. 그들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올 때 특히 더 조심하거라.

* * *

7-11 [하나님] 난 이스라엘 집안을 버릴 거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떠날 거란 말이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자들을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줄 테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자가 밀림의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댔으니까.
날 향해 이를 갈며 달려들었으니까.
나도 이제 더는 못 참겠구나.
내가 그리도 소중히 여기던 그가, 공작새처럼 우쭐대다니!
하지만 제아무리 공작새라도 독수리의 공격에는 속수무책이잖니?
독수리한테 공격당한 후엔, 굶주린 짐승들의 밥이 되잖니?
짐승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잔치를 벌이잖니?
이방인 목자들도 그렇게 내 들판에 들이닥쳐 약탈하고 짓밟을 거다.
나의 아름다운 들판, 내가 잘 가꾼 들판을,
그들이 빈 깡통이나 텅구는, 엉경귀나 자라는 땅으로 만들 거다.
그들이 이곳을 쓰레기장으로 만들 거다.
페허의 땅, 통곡의 땅으로 만들 거다.
온 나라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황무지로 만들어 놓을 거란 말이다.

* * *

12-13 [하나님] 야만인들이 쳐들어와 너희 언덕과 들판을 차지할 게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 온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될 게다.
살아 있는 건 하나도 안전한 게 없을 게다.
밀을 심어도 잡초를 거두고 (콩 심은 데 콩, 아니 밀 심은 데 잡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며
빈약한 소출로 인해 개탄할 게다.
이 모든 게 나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 때문이란다!

* * *

14-17 [예레미야]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웃나라들-내가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그 땅을 망쳐 놓은 못된 나라들-에 관한 메시지란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릴 거다. 그 다음 유다도 뽑아버릴 거다. 하지만 못된 이웃나라들을 뽑아버린 후엔, 난 마음을 돌이켜 유다를 따뜻이 받아주마. 그들 모두를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안 발으로 돌려보내 주마. 그때 그들이 나의 길로 행한다면-그동안 내 백성이 바알 신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웠지만-이제 나한테 기도하면 만사형통할 거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땅에서 그들을 뿌리째 뽑아내 수레에 싣고 가 쓰레기장에 던져 버릴 거다. 그렇게 철저히 망하게 만들 거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고.

13 장

막 사는 백성들

1-2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오.

[하나님] 가서 모시 반바지 하나를 사 입거라. 그걸 계속 입고 다니거라. 세탁하려 벗어도 안 된다.

[예레미야] 난 하나님의 명대로 반바지를 사 입었다오. (마침 세일 중^^)

3-5 얼마 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오.

[하나님] 지금 당장 브랏에 가서 네가 산 반바지를 바위틈에 감춰 놓거라.

[예레미야] 그래서 난 하나님 말씀대로 브랏에 반바지를 감췄다오. (명품이었는데...^^)

6-7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오.

[하나님] 브랏에 가서, 전에 내가 이런 대로 감춰 뒀던 모시 반바지를 꺼내 보거라.

[예레미야] 그래서 내가 브랏으로 가 반바지를 감춰 뒀던 곳에서 반바지를 꺼내 봤다오. 그 긴 시간이 흘렀으니, 반바지가 다 썩어 걸레조각처럼 되었던군.

8-11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소.

[하나님]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오만을 이런 식으로 무너뜨릴 거란다. 내게 순종하지 않는 무리, 그냥 자기 맘대로 막 사는 자들, 종류를 가리지 않고 ‘듣보잡 신들’을 쫓아다니는 그들! 네 반바지가 오래 돼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그들도 썩고 말 거다. 반바지가 몸을 가려주고 보호해 주듯, 나 역시 이스라엘의 온 집안을 살뜰히 보살펴 뒀건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내가 온세상에

자랑거리로 삼은, 나의 자랑스러운 백성-이란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건만.... 오히려 그들은 내 말이라면 무조건 다 거부했어!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¹² [하나님]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거라.

(예레미야) 하나님의 메시지라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소.

“본디 포도주병엔 포도주가 가득해야 하는 법!”

[하나님] 그럼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겠지.

(백성들) 허, 이 양반 보게, 누굴 바보로 아나? 포도주병에 포도주가 차 있어야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딴다고?

¹³⁻¹⁴ [하나님] 그럼 넌 이렇게 말하거라.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오.

[하나님] 자세히 보거라. 이와 같이 내가 이 나라 온백성을 포도주로 채우련다. 다윗의 왕좌에서 다스리는 왕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포도주를 마셔 취하게 하련다. 그렇게 그들이 취했을 때, 내가 그들-포도주로 가득 채운 포도주병 같은 그들-을 치련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치련다. 그 어떤 것도 날 막을 순 없다. 동정, 자비, 연민? 내게 그런 걸 기대하지 말거라. 술이 가득 찬 포도주병 같은 그들, 술에 젖어 사는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쳐 버릴 거라고!’

늘 당연히 여겼던 빛

¹⁵⁻¹⁷ [예레미야] 그후 내가 이렇게 말했다오.

“잘 들으시오. 귀를 쫓긋 세우고 들으란 말이오.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발하도록 하시오.

주님이 그 빛을 꺼 버리시기 전에,

여러분이 암흑길을 걷다 걸려 넘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늘 당연히 여겼던 그 빛이 사라져

온 세상이 어둠에 잠기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이 끝내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 혼자 먼 곳으로 가 여러분을 위해 애곡하리다.

여러분의 그 완고한 교만으로 인해 애곡하리다.

나 혼자서 쓰디쓴 눈물 흘리리이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ㄷㄷㄷ})

내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 쏟아지리다.

포로로 잡혀갈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 애곡하리다.

* * *

18-19 [예레미야] 가서 왕과 왕후에게 전하시오.

이제 그만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그 빛나는 왕관이 마마의 머리에서 벗겨질 거라고...
네 겹의 마을들이 포위되어 모든 주민이 갇히게 될 거요.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거요. 온 나라가 그렇게 잊혀질 거요.

* * *

20-22 [예레미야] 보아라, 예루살렘아! 자세히 보아라.

북쪽에서 적군이 몰려오는구나.
네가 돌보던 그 아름다운 양떼, 이 백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니?
네가 아침 떨던 이 백성,
네가 우러러봤던 이들이 널 깔보면
네 기분이 어떨 것 같니?
이런 걸 상상이나 해 봤어?
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일 거야.
그때 넌 이렇게 말하겠지.
(예루살렘) 이게 뭐 일이라?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예레미야] 이유는 간단해. 네가 유죄이기 때문이지. 그것도 중범죄!
너의 죄로 인해 네 목숨이 위태로워진 거야.
네가 지금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건 다 네 죄 때문이라고! (네 죄를 알렸다!^^)

23 아프리카 사람의 피부색을 바꿀 수 있을까? (마이클 잭슨?^^)
표범의 점무늬를 없앨 수 있겠냐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될까?^^)
그토록 오랜 세월 악을 일삼아 온 네가
선한 일을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24-27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쫓아 버리련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산산이 날려 버리련다.
이 모든 걸 자초한 건 바로 너희야!
난 너희 행위대로 갚아 주는 것뿐이야!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이건 다 너희가 날 잊은 채
대형 사기사건-일명 ‘바알 신’ 스캔들-에 연루됐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 옷을 찢어 버리려는 거야.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치를 주려는 거야.
너희가 ‘듣보잡 신들’, 그 우상들에게 미쳐
여신들과 바람났던 것, 남신들과 간음했던 것

산의 신, 밭의 신 등, 눈만 돌리면 너흰 또 다른 신을 쫓아다니더구나.
오, 예루살렘아, 이 얼마나 역겨운 삶이란 말이나!
너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

14 장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

1-6 [해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뭄에 대해 주신 메시지요.

[하나님] 유다가 흐느끼는구나. 성읍들이 애곡하는구나.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 애도하는구나.

예루살렘의 곡성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물을 길어 오라고 부자들이 종을 저수지에 보냈지만

저수지는 이미 마른 지 오래...

종들이 빈 양동이로 돌아오는구나. 고개를 저으며 한탄하는구나.

농사짓는 일도 울스톱이구나.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니, 농부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구나.

머리를 가로저으며 한탄하는구나.

어미 사슴마저 들판에 새끼를 버렸구나. 풀 한 포기 없으니 그릴 수밖에...

눈이 풀린 채로, 젓가락처럼 마른 다리로,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구나.

7-9 [백성들] 우리도 우리 죄를 압니다. 우리가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릴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주님 자신을 위해 우릴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우린 끊임없이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이스라엘의 희망이신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이스라엘을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실 유일하신 분!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릴 소 닭 보듯 하시는 겁니까?

오늘 여기 오셔서 쑥 둘러보시고는, 왜 내일이면 가버리시는 겁니까?

왜 거기 서서 수수방관하고 계시난 말입니다.

이 위기상황에 속수무책이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여기, 바로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우릴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 주신 주님!

제발 저희를 이렇게 대책 없이 버려 두지 마세요!

¹⁰ [예레미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셨소.

[하나님] 그들은 자기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 생각없이

여기저기 방랑하며 다니길 좋아했잖니?

그러니 나도 이제 아무것도 해 줄 게 없구나.

그들의 죄목대로 벌할 것밖에는….

킬링필드

¹¹⁻¹²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오.

[하나님] 넌 더 이상 이 백성의 형편이 나아지길 기도하지 말거라.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한다 해도 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게다. 그들의 기도시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 해도, 그들이 가축이나 농작물 등 별의별 제물을 다 가져온다 해도, 난 전쟁과 기아와 질병으로 그들을 끝장내 버릴 거라고!

¹³ [예레미야] 내가 말했다오.

“하지만 주 하나님! 많은 설교자들이 다 잘될 거라고 설교하고 있는 걸요? 전쟁도 기아도 없을 테니 아무 걱정 말라고 하는 걸요?”

¹⁴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오.

[하나님] 그 설교자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내 이름을 들먹여가며 거짓말을 늘어놓지. 난 그들을 보낸 적도, 그들에게 명한 적도, 그들과 얘기한 적도 없단다. 그들이 설교하고 다니는 설교는 한낱 망상이자, 사기이자, 어둠 속 바람소리일 뿐이라고!

¹⁵⁻¹⁶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려는 거야. 내 이름을 들먹여가며 설교하는 그들을, 난 결코 보낸 적이 없단다. ‘전쟁이나 기아는 절대 안 온다’고 말한 그 설교자들이야말로 다름아닌 전쟁과 기아로 죽게 될 게다.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역시 전쟁과 기아의 희생자가 될 게다.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도 다 죽을 게다. 장례식도 못 치를 개죽음을 당할 게다. 매장되지 않은 시체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뒹굴 게다. 내가 그들의 모든 악행을 이렇게 다 갚아줄 게다.

¹⁷⁻¹⁸ 그리고 너, 예레미야야, 넌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게다.

(예레미야) 내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네.

눈물이 밤낮으로 멈추질 않네.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얻어맞아 시퍼렇게 멍들었구나.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상처를 입었구나.

들판에 나가 보니,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구나.

킬링필드의 현장을 보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구나.

성읍 안에 들어가 보니, 굶어 죽은 자들의 시체가 즐비하구나.

그 광경을 보고 충격에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구나.

그런데도 설교자들과 제사장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구나.

19-22 하나님, 주님이 유다에게 최후통첩을 보내시다니요?

시온 좀 봐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를 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시는 건가요?

우리가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죽을 것만 같아요!

그토록 평화를 바랐지만, 좋은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토록 치유를 기다렸지만, 오히려 복부를 가격당하고 말았죠.

오 하나님, 저희도 인정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우리 조상때부터 대대로 그랬지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 조상들도 죄를 지었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죄를 지었지요.

주님, 제발 우릴 떠나지 마세요! 주님의 명성이 위태로워질까 두렵습니다.

이대로 떠나지 마세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버려둔 채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와의 신의를 저버리지 마세요.

불경건한 나라들의 그 ‘튼보잡 신들’이 비를 내릴 수 있을까요?

하늘이 제 힘으로 땅을 적실 수 있을까요?

오 하나님,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걸요?

우리가 기다리는 분도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요.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걸 행하시는 하나님!

15 장

1-2 [예레미야]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오.

[하나님] 예레미야야,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애걸한다 해도, 난 이 백성을 거들떠도 안 볼 거다. 백성들을 쫓아버리거라. 썩 물러가라고 하거라. 그들이 만약 네게 ‘우리더러 어디로 가라고요?’라고 묻는다면 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하거라.

“너희에게 죽음이 예정돼 있다면 가서 죽거라.

전사할 운명이라면 전사하거라.

굶어 죽을 운명이라면 굶어 죽거라.

포로로 끌려갈 운명이라면 끌려가거라.”

3-4 내가 [4 단계 징벌]을 준비했다.

- 1 단계: 전쟁터에서 죽음당함

- 2 단계: 들개에게 던져진 시체를 개가 먹음
- 3 단계: 들개가 먹다 남긴 시체를 독수리가 먹어 치움
- 4 단계: 독수리가 남긴 뼈를 하이애나가 갉아먹음

그것 참 볼만한 광경일 게야, 그치? 온 세상이 그걸 보고 충격에 빠지겠지. 이 모든 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벌인 짓 때문이란다.

⁵ 예루살렘아, 널 불쌍히 여길 자가 있다고 생각하니?

널 위해 눈물을 흘릴 자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세상에, 이게 웬일이람?’이라며 관심 갖고 물어봐 줄 자가 있을 것 같아?

⁶⁻⁹ 날 떠난 건 너였잖아. 기억 안 나?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네가 먼저 내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잖아.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옆구리 쿡쿡 찔렀지^^)

그래서 내가 널 잡아다 죽치려는 거야.

낙시바늘에 걸린 널, 다시 놔주는 것도 이젠 신물이 나는구나.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 널 낙엽처럼 흩어버릴 게다.

그렇게 널 완전히 망하게 해 주마.

왜냐고? 그 어떤 길로도 널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너희를 과부들의 나라로 만들어 주마. (국호! 과부국ㄹㄹㄹ)

바닷가 모래알보다 더 많은 과부가 생길 거다.

정오 뉴스를 통해 엄마들이 자기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될 거다.

갑작스럽고도 끔찍한 죽음에 엄마들이 비통해할 거다.

자기 아들 일곱 명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엄마가

인생 전성기의 자녀를 잃었다는 비보를 접한 엄마가

놀라서 숨도 제대로 못 쉴 거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자신의 태양이 정오에 저 버렸으니…!

하지만 거기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다 모아다가

적군에게 죽임당하게 해 주마.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내가 너희 재산을 그들에게 공짜로 다 넘겨 버렸단다.

¹⁰⁻¹¹ [예레미야] 불쌍한 내 어머니! 저 같은 아들을 두시다니요.

온 나라를 고발해야 하는 불행한 임무를 부여받은 저 같은 아들을 두시다니요.

저는 누구 하나 해친 적 없는데, 모두가 절 잡겠다고 혈안이 되었네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제가 얼마나 힘껏 그들을 도왔는지,

그들을 위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그들의 원수를 제가 얼마나 열심히 대적했는지….

전 언제나 그들 편에서, 재앙을 막으려 노력해온 걸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요.

* * *

12-14 [하나님] 오 이스라엘아, 오 유다야!

네가 과연 막을 수 있을까?
북쪽에서 들이닥치는 무쇠 괴물을? (무쇠 팔, 무쇠 다리, 로켓트 주먹^^)
내가 너희 죄를 벌하려 너희 재산을 그들에게 다 쥐 버렸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고 공짜로 다 넘겨버렸는데?
너희가 낮설고 머나먼 땅에 끌려가
원수의 노예가 될 텐데?
맹렬히 불타오르는 나의 진노로 인해
뜨거운 심판(뜨심^^)을 받게 될 텐데?

* * *

15-18 [예레미야] 제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대항해 주실 거죠? 제 편을 들어 주실 거죠?
그들이 저를 파멸시키려는데도 수수방관하고 계실 건 아니죠?
좀 보세요, 제가 지금 얼마나 심한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전 그걸 받아먹었죠.
말씀을 꿀꺽 삼켰을 때 얼마나 맛있던지...!
오 하나님, 천군천사의 하나님!
제가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게 전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
조롱하며 히히덕거리는 그들과 전 한번도 섞인 적이 없었어요.
주님께 이끌리어 저의 길을 갔지요.
주님이 절 분노로 채우셨으니까요. 그들 죄로 인해 제 속이 끓어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이 아픔은 가시지 않는 거죠?
상처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심해지니 어찌면 좋죠?
하나님, 주님은 정녕 허상일 뿐 실존하시지 않는단 말인가요?
저 멀리 보이는 오아시스,
다가가면 아무것도 없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으신단 말인가요?

* * *

19-21 [예레미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오.

[하나님] 그 말, 당장 거두거라. 그럼 내가 널 다시 받아 주마.
내 앞에 우뚝 서게 해 주마.

진실된 말, 긍정적인 말만 하거라. 쓸데없이 칭얼거리지 말거라.
 네가 그래야만, 그래, 그래야만 날 대변할 수 있지 않겠니?
 그들 비위를 맞추려고 네 말을 바꾸지 말거라. (한 소신 해야지?^^)
 너의 말로 그들을 바꾸거라.
 내가 널 강한 철벽으로 만들어주마.
 난공불락의, 튼튼한 벽으로 만들어주마.
 그들의 공격에도 흠집 하나 안 나게 해 주마.
 왜냐고? 내가 네 편이 되어줄 거니까! 널 보호하고 구원해 줄 거니까!
 그 흉악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내가 널 건져 줄 거니까!
 그 극악무도한 자들의 손에서 구해 줄 거니까!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16 장

피조물이 신을 만들겠다고?

¹[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라오.
²⁻⁴ [하나님] 예레미야야, 너 결혼하지 말거라. (비혼선언^^) 여기에서 가정을 갖지 말란 말야.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 그들을 낳는 모든 부모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으니, 이제 사망이 전염병처럼 퍼져 나갈 거야. 아무도 애도하지 않는 죽음, 매장되지 못해 썩어 악취를 풍기는 죽음! 살해당한 자들, 굶어 죽은 자들! 시체가 까마귀와 똥개들의 먹이가 될 죽음!
⁵⁻⁷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소.
 [하나님] 너는 애곡하는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장례식장에도 가지 말거라. (육개장은 장례식장 게 맛있는데""") 동정심도 갖지 말거라. 이 백성이 당할 일에 대해 난 더 이상 신경 안 쓰기로 했단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내게서 더 이상 변함없는 사랑을 기대하지 말거라. 내게서 더 이상 연민도 바라지 말거라. 유명한 자든, 이름없는 자든 똑같이 여기에서 죽을 게다. 그들의 죽음을 아무도 애도하지 않을 게다. 시체조차 매장되지 못할 게다. 장례식? 그런 게 어딴어?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며, 아무도 ‘안 됐군요’란 말을 하지 않을 텐데...? 술 한 잔 올리는 이도 없을 게다. 설사 그게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의 죽음이라도....
⁸ 또한 축제가 열리더라도 거기 가서 즐기지 말거라.
⁹ [예레미야]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오.

[하나님] 잘 보거라! 내가 이 땅에서 미소든, 폭소든, 모든 웃음을 다 없애려 한다. 이제 신랑신부를 축하할 일도 없을 게다. 이런 일이 바로 네 살아생전에, 네 눈앞에서 벌어질 게다.

10-13 네가 이 애길 백성들한테 전하면 그들이 이렇게 묻겠지.

(백성들)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런 재난으로 우릴 위협하시는 거냐고요? 우리가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뭘 어쨌다고 하나님께 이런 취급을 받는 거죠?

[하나님] 그럼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거라.

“이것은 너희 조상들이 날 떠났기 때문이란단다. 그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날 떠났잖니? ‘듣보잡 신’에 마음을 빼앗겨 숭배하며 섬겼잖니? 날 무시하면서 내 애길 전혀 안 들었잖니? 하지만 너희는 더 나빠! 거울 속 너희 모습을 자세히 보거라. 언제든, 뭐든 너희 맘대로 하잖니? 나한테는 눈길 한번 안 주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없애려는 거야. 너희를 떠나면 땅, 그 차가운 이국 땅으로 내쫓으려는 거라고! 거기 가서 너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듣보잡 신들’을, 어디 한번 질리도록 섬겨 보거라. 그렇게 실컷 즐겨 보라고! 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테니….

14-15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거라.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올 거란다.

(사람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 대신 이런 말을 하겠지.

(사람들) 이스라엘을 복녘 땅에서 다시 데려오신 하나님, 그들을 흩어 놓으셨던 곳에서 다시 데려오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 맞아. 내가 원래 그들 조상들에게 줬던 땅으로, 난 그들을 도로 데려다 놓을 거란다.”

* * *

16-17 [하나님]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보거라. 내가 낚시꾼들을 한 데 불러모을 거란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고.

[하나님] 낚시꾼들이 내 백성을 낚아 심판대에 세울 거다. (사람 낚는 어부^^) 그 다음엔 내가 사냥꾼들을 보낼 거야. 사냥꾼들이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동굴이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그들을 사냥할 거다. 내가 이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단다. 난 그들의 행적을 한번도 놓친 적이 없어. (위치추적기 부착^^)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단 한번도 놓치지 않았지.

18 난 어느 것 하나 봐주지 않을 거야. 그들이 자기 악행에 대해 두 배로 값을 치르게 될 거야. 그들이 싹 다 말아먹은 것, ‘듣보잡 신들’로 자기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은 것, 악취나는 우상 쓰레기들을 산더미처럼 온사방에 쌓아 둔 것에 대해 말야.

19-20 [예레미야] 나의 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환난이 닥쳤을 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동서남북 땅끝에서 불경건한 나라들이 이렇게 말하며 올 것입니다.

(불경건한 나라들) 우리 조상들은 거짓말과 망상 등, 한낱 연기를 붙잡고 살았다고.

[예레미야] 피조물이 신을 만들 수 있단지요?

그들이 공장에서 만들어 내는 건 고작 ‘듣보잡 신’뿐인 걸요?

21 [하나님] 이제 잘 보거라. 내가 이 우둔한 백성들을 가르칠 테니....
지금부터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마.
내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나의 이름 '하나님-‘나는 나다’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7 장

어둡고 거짓된 마음, 소망이 없구나.

1-2 [하나님] 유다의 죄가 새겨졌구나. 강철 끌로 아로새겨졌구나.
다이아몬드 축이 달린 끌로 새겨졌구나. (몽블랑 만년필로^^)
화강암처럼 단단한 그들 마음에
그들이 제사 드리던 제단의 돌 모서리에 새겨졌구나.
그들을 기소하는 증거들이 명백하구나.
나무숲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그럴듯한 언덕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만들었던 섹스교 제단들
그 '신성한' 섹스교 사당들이 그 증거로구나.

3-4 너희 산들을 가판대 삼아
너희 모든 소유를 팔아 버리련다. (창고 대방출^^)
너희 전재산을 배상금으로 내놔야 할 게다.
온 나라를 죄로 뒤덮은 것에 대한 배상금으로....
너희가 선물로 받은 그 땅을 내놔야 할 게다.
내가 유산으로 준 그 땅을 너희가 잃게 될 게다.
너희를 적국의 노예로 만들어 주마.
머나먼 이국 땅에서 노예살이 하게 해 주마.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나의 진노,
그 누구도 꺼뜨리지 못할 거란다.

* * *

5-6 [예레미야] 하나님의 메시지라오.
[하나님] 한낱 인간을 의지하던 자,
제아무리 강해도 저주를 받을 게다!
제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 여기면서

하나님을 짐스러워하던 자
 대평원에 굴러다니는 가시덤불처럼
 비옥한 땅엔 뿌리도 못 내릴 게다.
 근본도 없이, 목적도 없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땅에 머물게 될 게다.
 7-8 하지만 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남자,
 내게 단단히 붙어 있는 여자는 복을 받을 거란다.
 그들은 에덴에 다시 심기운 나무처럼
 강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거란다.
 뜨거운 여름에도 아무 걱정 없이
 잎사귀 하나 떨구지 않을 거란다.
 계속되는 가뭄에도 고요하고 평안하게
 사시사철 신선한 열매를 맺을 거란다.

* * *

9-10 [하나님] 어둡고 거짓된 마음, 소망이 없구나.
 아무도 풀 수 없는 실타래 같구나. (점점 영키는 고양이 실타래^^)
 하지만 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자세히 살피지.
 그 정신을 면밀히 검사하지.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보며, 사물의 뿌리를 보니까.
 겉모양이 아닌, 본질을 보니까.

* * *

11 [예레미야] 남의 등 쳐먹고 부자가 된 자는
 다른 새 등지에 몰래 알을 낳는 뱀꾸기 같다네.
 알이 부화하면, 모든 속임수가 드러나듯
 그날이 오면 그의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네.

* * *

12-13 [예레미야] 주님의 성소는 처음부터 높은 곳에 마련돼 있었지요!
 그 높은 곳에 영광의 보좌가 있었지요!
 오 하나님, 주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떠나는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간 자는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는 허무한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 * *

14-18 [예레미야]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은 나의 찬양!

그들이 제 뒤에서 뭐라고 떠들어대는지 들어 보세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어디 있다는 거야?

그것 좀 한번 보고 싶구먼!

[예레미야] 하지만 멸망의 날을 선포한 건 제 생각이 아니었잖아요.

애초에 전 환난을 원치도 않았다고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나는데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러니 절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이젠 저도 한시름 놓고 쉬고 싶단 말예요!

저 말고, 절 괴롭히는 사람들을 괴롭히세요.

저 말고, 절 망신 주는 사람들을 망신 주세요.

그들에게 멸망의 날이 임하게 해 주세요.

그들이 망하게 해 주세요. 폭삭!

안식일을 거룩하게!

19-20 [예레미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고요.

[하나님]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거라. 유다 왕들이 드나드는 ‘백성의 문’에서 시작해,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이란 성문은 다 찾아다니며 전하거라.

(예레미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유다의 왕들이여!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문들을 드나드는 모든 백성들도 잘 들으십시오!

21-23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목숨이 아깝거든 조심하거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거라. 안식일 날, 평일처럼 물건을 이러저리 옮기면 안 돼. 평일처럼 장사해도 안 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했듯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해. 너희도 알다시피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들은 내 말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 내게 안내받는 것도, 교훈 얻는 것도 싫어했어. 안식일에도 그저 장사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렸었지.

24-26 하지만 너희는 내 말을 허투루 들어선 안 돼. 너희도 그동안 안식일마다 너희 일 하느라 정신이 없었지. 그렇게 안식일을 더럽혔지. 이제 그런 짓일랑 당장 멈추거라. 안식일에는 평소처럼 장사하지 말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거라. 그럼 다윗의 후손인 유다 왕들과 신하들이 계속 말과 병거를 타고 이 성문을 드나들 수 있을 거야.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이 늘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될 거야. 유다 전역에서, 베냐민 지역에서, 예루살렘 근교에서, 높고 낮은 산촌에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물밑 듯 밀려올 거야. 그들이 온갖 종류의 제물들-짐승들, 곡식들, 향료들, 감사의 예물들-을 가지고 나 하나님의 성소로 몰려와 예배할 거야.

²⁷ 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지 않게 보낸다면, 여전히 안식일에도 계속 일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면, 장사에 목을 매 분주히 성문을 드나든다면, 내가 이 성문을 다 태워 버릴 거야. 아니지, 온 도시를, 궁궐들이며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 불은 아무도 끌 수 없을 거야!” (예루살렘 소방국 비상^^)

18 장

희대의 사기꾼을 경배하다니…!

¹⁻² [해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바로 일어나 토기장이네 집으로 가거라. 거기 도착하면 네 할 말을 일러 줄게.

³⁻⁴ [예레미야] 그래서 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갔다오. 갔더니 마침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일하고 있더군. 흔히 그렇듯, 진흙으로 도자기를 만들다 보면 작품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잖소? 토기장이도 그랬다오. 작품이 맘에 안 들면, 곧 그걸 몽겐 후,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 새로 도자기를 만들더군.

⁵⁻¹⁰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아, 난 이 토기장이처럼 하면 안 되니?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이 토기장이를 좀 봐. 토기장이가 자기 그릇을 빚듯 나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으려 해. 나도 언제든 백성과 나라를 뿌리째 뽑아 버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자기 악행을 회개하기만 한다면, 마음을 바꿔 그들과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지. 백성과 나라를 다시 심기로 결정할 수 있단 말이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끝내 내게 협조하지 않는다면, 다시 생각을 바꿔 그 결심을 철회할 수도 있어.

¹¹ 가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시민들한테 나의 이 메시지를 전하거라.

“경고한다! 난 너희한테 재앙을 내릴 생각이다. 너희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다. 그러니 망하기 전에 어서 돌이키거라. 제발 똑바로 살란 말야.”

¹² 하긴, 그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할 게 ‘뻔할 뻔’자지. (안 봐도 비디오^^)

(백성들)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래 봤자 무슨 소용이 있다고요? 우린 지금껏 살던 대로 살 거예요.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고요!

* * *

¹³⁻¹⁷ [예레미야] 하나님의 메시지라오.

[하나님] 주변 나라들에게 한번 물어보거라. 불경건한 나라들에게 물어보거라.

이런 얘기를 한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는지….

처녀 이스라엘이 창녀가 되다니!

레바논 봉우리의 눈이 사라질 수 있다더냐? (지구온난화로^^)

깊은 산속 옹달샘이 말라붙을 수 있다더냐? (토끼가 다 먹으면^^)

그건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내 백성은 날 떠났구나.

희대의 사기꾼을 경배하러 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구나.

그들이 궤도를 이탈했구나. 오래 전부터 잘 놓여진 길을 벗어나

덤불 사이, 잡초밭, 뿌리와 덩굴이 얽히고 설킨 길을 헤치며 가는구나. (만수산 드렁칫^^)

그들 땅이 엉망으로 변해 가는구나.

사람들이 침이나 뱀을, 미련함의 상징으로 변하고 있구나.

지나가는 여행자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젓는구나.

그들 원수 앞에서 내가 내 백성을 쫓아 버리련다.

추풍낙엽처럼 흩어 버리련다.

그럼 그들은 멸망의 날, 자기들을 떠나는 내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겠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언감생심 내 얼굴 볼 생각은 꿈에도 못하겠지.

* * *

18 [예레미야] 사람들이 말하더군.

[사람들] 이리 와서 함께 모의해 보자. 예레미야를 없앨 음모를 꾸미자. 우리에게겐 엄연히 율법을 가르쳐 줄 제사장들이 있잖아? 현명한 충고를 해 줄 지략가들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들이 있잖아? 그러니 앞뒤 볼 것 없이 예레미야에게 망신을 주자. 예레미야, 정말 눈꼴 서서 더는 못 봐주겠어!

19-23 [예레미야] 그때 난 하나님께 말씀드렸대요.

“하나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 원수들의 말 좀 들어 보세요!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들이 심지어 이런 짓까지 하네요! 날 죽일 공모를 하다니요?

그들을 위해 제가 늘 주님 앞에 서서 중보하던,

주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애썼던 거 기억하시죠?

하지만 저도 이제 그만하렵니다! 그들 자녀가 굶어 죽게 해 주세요!

그들이 전쟁에서 몰살당하게 해 주세요!

그들 아내는 자녀 없는 과부가 되게 해 주세요! 그들의 친구들도 죽여주세요!

그들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살해당하게 해 주세요!

전쟁으로 그들을 위협해 주세요!

공포의 비명소리로 그들 집을 가득 채워 주세요!

그들이 절 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요!
 지금 제 목에 올가미가 걸려 있단 말예요!
 하나님,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절 죽이기로 결심한 것도 잘 아시잖아요.
 그들의 범죄를 묵인하지 마세요.
 그들의 죄악을 하나도 눈 감아 주지 마시라고요!
 그들을 주님 앞에 끌어다 놓으세요.
 주님의 진노의 쇄를 뜨거울 때 치시라고요! (쇠뿔도 단김에^^)

19 장

산산조각난 도자기

¹⁻²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오.

[하나님] 가서 도자기 하나를 사거라. (이왕이면 본차이나로^^) 그 다음 백성의 지도자 몇 사람이랑 지도자급 제사장들을 모아 벤-히눔 골짜기의 ‘깨진 도자기의 문(Potsherd Gate)’으로 가 거기에서 내 말을 전하거라.

³⁻⁵ (예레미야)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오.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재앙을 쏟아 부으려 한다. 오, 들리느냐? 재앙 쏟아지는 소리가? 너희는 날 버리고 떠났지. 너희 부모나 옛적 유다 왕들이 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 ‘듣보잡 신들’을 섬겨 이곳을 이방 땅처럼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재앙을 내리는 거야. 너희는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했잖니? ‘듣보잡 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아 너희 자녀를 산 채로 불살라 제물로 바쳤잖니? 내가 전혀 명한 적 없는, 꿈에도 생각지 않은, 그런 끔찍한 잔혹행위를 대놓고 저질렀잖니? 그래서 내가 이 재앙을 내리는 거란 말야!

⁶⁻⁹ 나 하나님이 선포한다! 그 날이 바로 너희 죄값을 치르는 날이다! 그동안 ‘도벳’ 혹은 ‘벤-히눔 골짜기’로 불리던 이곳 이름이 그날엔 ‘킬링필드’로 바뀔 거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곳에 갇고 있던 모든 계획? 내가 다 묵사발로 만들어 주마. 그들이 원수에게 죽임당하게 만들어 주마. 산더미처럼 쌓인 그들의 시체, 까마귀와 들개 밥이 되게 해 주마. 이 성읍을 ‘대살육 박물관’으로 만들어 주마.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끔찍한 잔혹성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해 주마. 사람들이 식인종으로 돌변할 거다. 적의 포위공격에 지친 그들이 인간성을 상실해 자기 자녀마저 잡아먹을 거다. 그렇다, 그들은 서로를 잡아먹을 거다. 가족이든 친구든 가리지 않고!”

¹⁰⁻¹³ 이 모든 애길 전한 후, 너와 함께한 자들 앞에서 그 도자기를 깨뜨리거라. 그리고 이렇게 전하거라. (예레미야)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이오.

[하나님] 내가 이 백성과 성읍을 이 도자기처럼 박살내, 다시는 이어 붙일 수 없게 만들 거다. 도벳에 시체를 묻다 묻다 도저히 묻을 자리가 없게 될 거다. 이 성읍 전체가 도벳처럼 될 거다. 백성이나 왕들이 하나같이 이 성읍을 하늘의 일월성신이나 섬기는 우상숭배의 전당으로 만들었으니, 성읍 전체가 도벳처럼 열린 무덤이 될 거다. 온 성읍에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할 거다. 성읍 전체가 도벳처럼 될 거다.

도벳(Topheth)

예루살렘 남쪽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마련된 물렉 제사를 드리는 제단의 이름으로 도벳 사당이라고도 한다(왕하 23:10; 렘 7:31).

인신제사가 행해지던 곳: 도벳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포트’(topheth)는 ‘불 타는 곳’이란 뜻이다.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불태우는 연기가 피어오르게 되었다(왕하 23:10; 대하 28:3; 33:6). 이곳은 바알과 물렉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아하스와 므낫세는 이곳에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 물렉에게 제사를 드렸다(대하 28:3; 33:6).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의 이러한 죄악 때문에 도벳이 그들이 죽어 묻히는 살륙의 골짜기로 변할 것이라고 하셨다(렘 7:32).

한때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이곳에서 드러지는 인신제사를 금하였다(왕하 23:10).

-출처: 비전성경사전, 두란노

14-15 [해설] 그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보내신 도벳을 떠나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자리잡고 서서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천군천사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요.

[하나님] 너희가 고집을 부리면서 꿈쩍도 않는구나. 내 말대로 행하기를 끝내 거부하는구나. 경고한다! 위험이 닥칠 거다! 내가 전에 선포한 대로 재앙을 내릴 거다! 이 도시뿐 아니라 모든 위성도시들에!

20 장

인생은 눈물 어린 고생길

1-5 [해설] 제사장 바스홀(임멜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고참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그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매질한 후, 하나님의 성전 위쪽에 있는 ‘베냐민 문’ 옆 창고에 가두었지 뭐예요? 그리고는 다음날 바스홀이 와서 예레미야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바스홀에게 말했죠.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제사장님께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신답니다. 바스홀 대신 ‘시한폭탄’이란 이름을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넌 너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에게 위험천만한 인물이구나.

네 친구들은 하나같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될 거다. 그걸 넌 그저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 거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게 다가 아니다. 내가 유다를 통째로 바벨론 왕에게 넘겨줄 거다. 바벨론 왕이 맘대로 유다를 주무르도록 내줄 거라고! 바벨론 왕이 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 다 죽이든지 자기 멋대로 하게 해 줄 거다. 이 성읍에서 값 좀 나가는 것들-왕실 보물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 사람들의 재산과 소유 일체-을 내가 뭉땅 너희 원수에게 넘겨줄 거다. 그들이 보물창고를 살살이 뒤져 맘에 드는 건 다 바벨론으로 가져갈 거다.

⁶ 그리고 너, 바스홀아, 너랑 네 모든 가족 역시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란 말이다. 너희 모두 거기서 죽어 매장될 거다. 너랑 네 거짓 설교에 놀아나던 네 모든 측근들이 다 그렇게 될 거다.

* * *

⁷⁻¹⁰ [예레미야] 하나님, 주님이 절 그토록 몰아붙이실 때 전 모든 걸 주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를 이렇게 만인의 웃음거리로 만드시다니요!

사람들이 대놓고 절 놀리는 걸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입을 열 때마다

‘그건 살인이오!’이나 ‘그건 강간이오!’라고 외치니까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한 제게 돌아오는 거라곤

온통 모욕과 경멸뿐이지요.

하지만 제가 ‘됐어! 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이 제 뱃속에서 불길처럼 일어나 제 뼈를 태우죠.

그로 인해 제가 기진맥진하게 되니…,

도대체 저더러 어찌란 말씀인가요? 저,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제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들….

(사람들) 저기 원조 ‘시한폭탄’이 오는구나. 저자의 입을 막자! 저자를 고발하자!

[예레미야] 제 오랜 친구들조차 제가 바닥에 고꾸라지길 바라면서 지켜보네요.

(사람들) 저자가 밭 한번 빼끗하면, 그땐 저자를 잡을 수 있어.

저자를 영원히 없앨 수 있다고!

¹¹ [예레미야] 하지만 하나님, 가장 강하신 용사이신 주님이 제 편이시니

저를 뒤쫓는 자들은 결국 다 흩어지고 말 겁니다.

몸개그 하는 광대들처럼 스스로 걸려 넘어져

영원히 잊지 못할 굴욕의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

¹² 오, 천군천사의 하나님! 아무도 주님을 속일 순 없죠.

주님은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을 꿰뚫어 보시니까요.

제 송사를 주님 손에 맡기오니

저들이 한 짓대로 갚아 주세요.

¹³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드리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자!

악인의 손아귀에서 악자를 구출해 내시는 주님을!

* * *

14-18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스럽구나!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내 어머니가 날 낳으신 날에 저주가 있을지어다!

또한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도 저주가 있을지어다! (애먼 사람에게 날벼락^^)

(조산원) 아기 아빠가 되셨네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순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내 출생의 소식이 사라졌다면…!

출생신고가 지워졌다면…!

그 출생소식을 가져온 사람,

그 비보를 가져온 사람이 겁에 질려 죽었다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가 날 죽여줬다면…!

내가 있던 모태를 내 무덤으로 삼게 해줬다면…!

내 어머니가 날 가졌을 때

내 어머니의 태중에서 내가 사산아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도대체 왜, 내가 모태에서 나왔을까?

인생은 눈물 겨운 고생길에 불과한데?

앞날이라고 뭐 크게 다를 게 있을까?

21 장

정의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거라!

1-2 [해설] 시드기야 왕이 브스홀(말기야의 아들)과 제사장 스바냐(마아세야의 아들)를 통해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했을 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시드기야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려고 전쟁을 일으켰소. 우릴 위해 기도해 주시오. 주님께 도와달라 청해 주시오. 어찌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행하셨던 그 유명한 기적을 다시 일으키셔서 느부갓네살을 쫓아 버리실 수도 있잖소?

3-7 [해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레미야] 시드기야 전하께 전하시오. (전하께 전하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전하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네가 네 군대와 작별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네가 바벨론 왕과 갈대아인들을 대항해 그토록 열심히 싸우고 있다만…, 네 군대의 사기가 꺾이는 모습을 네가 친히 보게 될 거다. 네 무기가

아무썩에도 쓸모 없게 되는 걸 보게 될 거란 말야. 왜냐고? 내가 직접 그들(바벨론 왕과 갈대아인들)을 이끌고 성읍으로 돌진할 거니까! 내가 그들 편이 되어 너와 맞서 싸울 거니까! 후회없이, 전력을 다해 싸울 거니까! 나의 이 불붙는 진노를 동력 삼아 싸울 거니까! 이 성읍의 존재들-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강력한 전염병(COVID-586BC^^)으로 다 없애 줄 거니까! 그 다음 너, 유다 왕 시드기야랑 네 신하들, 그리고 질병 및 살상, 기아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을 내 손으로 직접 적에게 넘겨줄 거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너희를 넘겨줄 거니까! 그래, 너희를 죽이러 온 원수들에게 너희를 넘겨줄 거란 말이다!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죽일 거라고!

8-10 백성의 무리에게 이렇게 전하거라.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잘 듣거라. 너희가 삶과 죽음 중 양자택일할 기회를 주마. 이 성읍 안에 남아있으면 너희 다 죽고 말 거다. 전쟁이든, 기아든, 질병이든, 어떤 이유로든 죽임을 당할 거야. 하지만 이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갈대아인들에게 나가 투항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지. 비록 모든 걸 잃겠지만, 목숨만은 부지할 거다. 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이미 결정했단다. 이 성읍에 대해 내가 그 정도로 크게 진노했단 말야! 나 하나님의 선포다.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려다. 그가 이 성읍을 잿더미로 만들도록!

* * *

11-14 [하나님] 유다 왕실은 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거라.

다윗의 집안은 나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경청하거라.

정의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거라.

착취당하는 자들을 구해 주거라.

화재-나의 진노의 불로 인한-를 예방하거라. (자나 깨나 불조심^^)

그 불은 한번 붙으면 절대 끌 수 없으니...

너희 사악한 무리여, 너희가 내 진노의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구나.

정말 모르겠니? 내가 너희를 대적하고 있다는 걸, 너희와 맞서 싸우고 있다는 걸?

너희 생각엔 지금 안심해도 될 것 같지? 모든 게 안전하고 평화로울 것 같지?

너희가 이렇게 말하더구나.

(사람들) 누가 감히 우릴 넘보겠어? 누가 우리 파티를 망칠 수 있겠냐고?

[하나님] 흥, 내가 그럴 수 있지!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다!

너희 사악한 무리를 내가 반드시 응징해주마!

나의 건잡을 수 없는 진노의 불을 붙여주마!

너희 눈앞에 있는 전부를 잿더미로 만들 불을!

22 장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기 (하나님 팔로워^^)

1-3 [예레미야]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 너는 왕궁으로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거라. 가서 이렇게 전하거라.

“오 다윗의 왕좌에 앉아 있는 유다 왕아! 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거라. 너와 네 신하들, 그리고 이 왕궁 문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과 함께 듣거라. 나 하나님의 메시지다. 정의를 추구하거라. 백성간의 일들(민사소송^^)을 공정히 처리하거라. 착취당하는 자들을 구해내거라. 노숙자, 고아, 과부를 착취하던 걸 당장 멈추거라. (갑질 금지^^) 살인도 당장 멈추거라!

4-5 너희가 이 계명에 순종하면, 다윗의 후손인 왕들, 그리고 왕의 신하들과 유다 백성이 말과 마차를 타고 계속해서 이 성문을 드나들 수 있을 게다. 하지만 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맹세코-하나님의 선포다!-이곳을 잿더미로 만들어 주마.

* * *

6-7 [예레미야] 유다 왕궁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이요. (판결에 앞서 피고, 최후진술 하세요!^^)

[하나님] 너, 유다 왕궁은 내가 좋아하는 장소였어.

길르앗의 사랑스러운 언덕처럼

레바논의 우뚝 솟은 봉우리처럼...

그런 널 이제 내가 쓰레기장으로 만들련다.

널 텅 빈 유령도시로 만들련다, 맹세코!

거대한 망치와 건물해체 장비들로 무장한 철거인력들을 동원해

온 나라를 톱밥처럼 갈아버린 후, 남김없이 불살라 주마!

8-9 그럼 각처에서 온 여행객들이 이곳을 지나며 말하겠지.

(여행객들) 그 멋진 도시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대?

[하나님]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다.

(사람들) 그들이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는군.

글쎄, 다른 우상들을 들여와 섬겼다지 뭐가?

궁궐은 멋지게 건축, 생명은 여지없이 해체

10 [예레미야] 서거하신 왕, 요시아 전하를 위해 울지 마시오.

쓸데없는 눈물을 낭비하지 마시오.

요시아 전하의 아들을 위해 우시오.

포로로 끌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그를 위해 우시오.

다시는 고향을 보지 못할 그를 위해 우시오.

11-12 다음은 살룸 진하(자기 아버지를 이어 유다 왕으로 즉위한 요시야의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오.

[하나님] 살룸이 떠났구나. 영원히 떠났구나. 끌려간 곳에서 죽겠구나. 다시는 고향산천을 보지 못하겠구나.

* * *

13-17 [하나님] 백성을 착취해 궁궐을 짓는 너,
사람들의 피고름을 빨아 멋드러지게 자기 집을 짓는 너는 망할 거다.
하인들을 속이고 월급을 주지 않는 자가 말하는구나.

(유다 왕) 난 세련된 맨션을 지을 거야.
넒찍한 방이랑 화려한 창문도 만들어야지!
고가의 희귀한 목재를 들여와 최신 스타일로 꾸밀 거야.
[하나님] 그래, 그게 널 왕으로 만들어 준대? 멋진 왕궁을 짓는 게?
너희 아버지는 잘 살았는데...,
정의를 행하고 공의로 백성을 다스렸는데...

그때 모든 일이 잘 풀렸는데... (잘 풀리는 집^^)
그가 무너진 걸 바로 세울 땐
유다가 문제없이 잘 돌아갔는데... (잘 돌아가는 집^^)
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너도 그렇게 될 텐데...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하지만 넌 눈이 멀었구나. 뇌가 없는 인간이구나.
오로지 너 자신만 생각하는구나.
약자를 이용하고 백성을 착취해 네 살 길만 찾는구나.

18-19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요시야의 아들)에게 내리신 판결문이오.

[하나님] 그 인간, 패망하게 될 거다!
아무도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다.
‘불쌍하고 불쌍한 형제여!’라고 하지도,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도 않을 거다.
‘가련하고 가련한 폐하여!’라고 하지도 않을 거다.
그러면서 ‘당나귀급 장례식’이나 치러 줄 거다.
시체를 성밖에 내다 버리는 것으로 장례식을 끝낼 거다. (장례비용 절감^^)

너희 인생을 완전히 망쳐 왔구나.

20-23 [하나님] 예루살렘 백성들아, 레바논 꼭대기에 올라가 울거라.
바산의 산에 올라 애곡하거라.

아바림 능선에 올라 통곡하거라.

너희 인생이 송두리째 망한 것에 대해….

너희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그토록 경고했건만 너희 이렇게 말했지.

(백성들) 우린 관심 없어요!

[하나님] 너희는 처음부터 내내 그런 식이었어.

내 말엔 단 한번도 귀기울이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너희 지도자들을 다 쫓아내려 해.

너희 친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해 주마.

너희 자신은 시궁창에 처박아 주마.

이게 다 너희의 악한 삶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거라고!

너희 대도시 사람들은 (차도남 차도녀^^) 자신이 뭐라도 되는 양 행동했지.

자신을 ‘산의 왕’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너희는 머잖아 고통에 몸부림칠 거다.

해산의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에 괴로워할 거라고!

* * *

24-26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아, 한때는 내 오른손 손가락의 인장반지였던 너! 하지만 이제 널 내 손에서 빼내어, 널 끌어가 죽이려 하는 자들-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갈대아인들-에게 넘겨주련다. 너와 네 어머니 둘 다 이방나라-머나먼 이국 땅-에 던져 버리련다. 너희 둘 다 거기에서 죽게 해 주마.

27 그때 널 고향을 그리워하겠지. 애타게 고향을 그리워하겠지. 하지만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할 거다.

28-30 여호야긴은 새는 양동이란 말인가? 쓸모없는, 녹슨 양동이란 말인가?

(집에서 새는 양동이, 밖에서도 샌다^^)

그러지 않고서야 왜 그와 자녀들이 버려진 거지?

도대체 왜 그들이 머나먼 이국 땅에 내쳐진 거지?

오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나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기울이거라.

나 하나님의 판결문에 귀기울이거라.

‘이자를 자식 없는 사람처럼 여기거라.

쓸모없는 인간처럼 취급하거라.

그에게서 대가 끊길 테니,

왕의 혈통으론 그가 마지막일 테니, 그가 마지막 왕이 될 테니….’

23 장

진정한 다윗의 가지

¹⁻⁴ [하나님] 내 양을 도살하고 흩어버리는 목자들-지도자들-은 망하게 될 거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을 엉뚱한 길로 인도한 목자들-지도자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양을 흩어버렸구나. 너희가 내 양을 쫓아버렸구나. 너희 이렇게 양들을 지켜보지 않았지만 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단다. 너희의 범죄행위를 샅샅이 지켜보고 있다고!

내 양들 중 남은 애들을 내가 불러 모으련다. 내가 그들을 쫓아버렸던 땅 전역에서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련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데려오련다. 그들을 회복시켜 번성케 해 주마. 그들을 잘 돌봐 줄 이들을 그들의 목자-지도자-로 세워 주마.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공포 속에서 살지 않게 해 주마. 잃어버린 양들을 내가 다시 다 모아 주마!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⁵⁻⁶ [하나님] 때가 오고 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의로운 다윗의 가지를 세울 때가 오고 있다.

그는 공의를 행할 거다. 사람들을 하나로 단결시킬 거다.

그의 시대가 오면 유다가 다시 안전해질 거란다.

이스라엘이 다시 평안을 누릴 거란다.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부를 거란다.

(사람들)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

⁷⁻⁸ [하나님] 잘 보거라. 때가 오고 있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라고 말하지 않을 거다. 대신 ‘이스라엘 자손이 쫓겨갔던 북쪽 나라와 다른 나라들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라고 말할 거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명의의, 그 좋은 땅에서 살게 될 거다.

‘다 잘 될 거요’라는 설교

⁹ [예레미야] 오, 머리가 어지럽구나.

팔다리에 힘이 없구나.

술 취한 것처럼 휘청대는구나.

과음한 것처럼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 때문이라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때문이이라오.

10-12 거짓 선지자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는지 아오?

[하나님] 믿어지니? 간음하는 자들이 우글거리는 나라!

믿음이 없는 자들, 음란한 우상숭배자들로 득실대는 나라!

그들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구나.

땅이 황무지로 변했구나.

그들의 배신으로 인해 이 나라가 오물통이 되었구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마저 신성모독에 앞장서는구나.

나를 자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들

나의 성전마저 죄로 떡칠을 해 놓은 그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하지만 그들이 오래 가진 못할 거다.

암흑행 미끄러운 비탈길에서 굴러

칠혹 같은 어둠으로 곤두박질칠 거다.

그렇게 짓밟을 치르게 해 주마.

그렇게 멸망하게 해 주마.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 * *

13-14 [하나님] 난 사마리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을 보았어.

바보천치처럼 행동하는 그들 모습에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듣보잡 신’인 바알을 주제로 설교하는 그들,

내 백성을 그렇게 혼란에 빠뜨리다니!

그런데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한 술 더 뜨더구나. 정말 끔찍했지!

섹스에 집착하며 거짓된 삶을 살던 그들

사악한 문화를 배양하는 그들, 반성의 여지가 없더구나.

옛날 소돔에 살던 쓰레기들처럼 악한 그들!

옛적 고모라와 다를 바 없는 그들의 타락상!

15 [예레미야] 그래서 천군천사의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다오.

[하나님] 내가 구더기 고기로 저녁을 지어 그들을 대접해 주마. (무슨 반찬? 구더기 반찬!^^)

식후에는 독약 음료를 제공해 주마.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있단다.

이 나라를 오염시키는 악의 근원이 바로 그들이라고!

* * *

16-17 [예레미야]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나님] 그 선지자들 설교에 귀기울일 것 없다.

다 헛소리니까. 거짓말, 거짓말, 끝없는 거짓말….

이 모든 건 그들이 지어낸 거란다.

그들 얘기 중에 내게서 나온 건 한 마디도 없다고!

나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회중에게

그들이 ‘다 잘될 거요’라고 설파하는구나.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백성에게

‘나쁜 일은 절대 없을 거요’라고 설교하는구나.

18-20 진정한 하나님인 나를 만나는 데 신경 쓰는 자가 이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도 있든?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을 보이는 자가 하나라도 있든?

내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는 자가 하나라도 있든?

잘 봐! 머잖아 나 하나님의 허리케인이 불어닥칠 테니….

나의 허리케인이 곧 휘몰아칠 테니….

악인들의 머리를 팽이 돌리듯 뱅글뱅글 돌려 줄 테니! (상모 쓴 호랑이^^)

나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꺼지지 않을 거다.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전에는….

내가 시작한 일을 끝내기 전에는….

마지막에 비로소 보게 될 거다. 나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걸!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소’란 얘기는 당장 그만두거라.

21-22 [하나님] 난 그 선지자들을 보낸 적이 없단다.

그들 맘대로 간 거야.

난 그들한테 한 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

그들이 제멋대로 선포한 거라고!

만약 그들이 나와 마주앉아 날 만났더라면

내 백성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했을 텐데,

내 백성이 옳은 길로 가게 해 줬을 텐데,

내 백성이 악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 줬을 텐데….

* * *

23-24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고.

[하나님] 난 너희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인 걸?

동시에 멀리에도 있는 하나님이잖아?

그 누가 내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단 말야? (숨바꼭질 불가능^^)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나는 어느 곳에든 다 존재하는 걸?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어디든 내가 다 존재하는 걸?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 * *

25-27 [하나님] 나도 그들이 뭐라 하는지 다 알아. 자기를 설교 주제로 날 이용하는 그들, 그딴 식으로 설교하는 선지자들이 말하더구나.

(거짓 선지자들) 내가 꿈을 꾸었소! 내가 꿈을 꾸었다고!

[하나님] 도대체 이런 짓거리를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 과대망상에 빠진 이들이 날 소재로 삼아 거짓과 헛된 망상을 퍼뜨리는 걸 말야. 정작 나한테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이, 꿈얘기나 해대면서 서로 망상을 부추기는 그들! 그들이 그딴 식으로 내 백성이 날 떠나게 만들더구나. 예전에 ‘든보잡 신’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겨 내게서 마음이 떠났던 그들 조상처럼 말야.

28-29 꿈 꾸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선지자들아!

계속 그렇게 어리석은 꿈 얘기나 하면서 살거라.

그러나 내게서 메시지를 받은 선지자들은

그 메시지를 진실되고 충성되게 전하거라.

알곡과 쭉정이가 어찌 같을 수 있겠니?

세상 어떤 것이 나 하나님의 선포와 같을 수 있겠니?

모닥불이랑 산불이랑 어찌 같을 수 있겠니?

호미랑 포크레인이랑 어찌 같을 수 있겠니?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30-31 [하나님] 서로 ‘선지자님’이라 칭하면서 서로에게서 설교거리를 얻는 그들, 정말 질린다! 그래,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자기가 지어낸 얘기를 참설교인 양 떠들어대는 그들!

32 오, 정말이지 난 질렸어. 자기 망상으로 만들어낸 거짓말로 설교하는 ‘자칭’ 선지자들, 그걸 온 나라에 퍼뜨리는 그들, 천박하고 무모한 거짓말로 내 백성의 삶을 망치는 그들한테 질렸단 말야!

난 그런 선지자를 보낸 적이 없단다. 그들 중 단 한 명도 인준해 준 적이 없다고! 그들이 이 백성을 위해서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니? 아무것도!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33 [하나님]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요?’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전하거라.

“바로 너! 네가 바로 문제야! 그래서 내가 널 없애려는 거야.”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³⁴ [하나님]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메시지라오!’라며 함부로 떠돌고 다니는 자와 그 가족에게 내가 벌을 내릴 것이야!

³⁵⁻³⁶ 그러니 ‘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떠돌고 다니지 말고 서로에게 이렇게 묻거라. ‘이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양, ‘하나님이 내게 이리 말씀하셨소, 하나님이 내게 저리 말씀하셨소’라고 떠돌고 다니지 말란 말야. 그런 얘기라면 정말 질리는구나! 내가 인준해 준 사람만 나를 대언할 수 있단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메시지-살아 계신,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왜곡되고 말 테니까...

³⁷⁻³⁸ 물론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건 괜찮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선지자님께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렇다고 너희가 모든 대답을 아는 양, 무엇이든 다 알고 있는 양 행동해선 안 돼. 내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하나님이 내게 저렇게 말씀하셨소’ 이런 얘기는 제발 그만하라고!

³⁹⁻⁴⁰ 지금 내 말 잘 듣고 있지? 조심하거라! 이러다간 내가 너희를 낚아채 땅에 매다 쫓을 수도 있어! 아니지,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줬던 이 성읍 전체를 뒤엎을 수도 있단다. 너희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성읍을 더이상 참아 주기가 어렵구나. 너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막 살 수 있을 것 같아? 오, 이러다간 너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거다! 너희가 인류 역사의 수치거리가 되고 말 거라고!

24 장

무화과 두 바구니

¹⁻²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성전 앞에 놓여 있는 무화과 두 바구니를 보여 주셨소. 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야긴(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을 잡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간 후였다오. 그때 유다의 지도자들, 장인들, 숙련공들도 함께 끌려갔지. 한 바구니에는 잘 익어, 먹기에 딱 좋은 극상품 무화과가 들어 있었고, 다른 한 바구니에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들어 있었다오.

³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소.

[하나님] 예레미야야, 뭐가 보이니?

[예레미야] “무화과가 보이는데요?” 내가 대답했다오. “최고 품질의 극상품 무화과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보이네요.”

⁴⁻⁶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소.

[하나님] 이게 바로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야. 내가 이 땅에서 바벨론인의 땅으로 보낸 포로들은 좋은 무화과와 같단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기필코 잘 대해 주려 해. 내가 그들을 늘 살펴줄

거란다. 그들을 잘 살게 해 줄 거야. 그리고 결국엔 그들을 이 땅으로 데려올 거야. 난 그들을 세우지, 무너뜨리지 않아. 난 그들을 심지, 뿌리째 뽑지 않는다구!

⁷ 그리고 그들에게 나 하나님을 아는 마음도 줄 거야. 그렇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올 테니까....

⁸⁻¹⁰ 반면,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무화과는 유다 왕 시드기야를 상징한단다. 내가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을 그렇게 만들 거야. 이곳의 생존자들이랑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도 다 같은 신세가 될 게야. 온세상이 그들을 보며 역겨움을 느낄 게다. 그렇게 그들은 사람들에게 미움 받는 왕따가 될 거다. 내가 그들을 쫓아버린 곳에서는, 사람들이 저주할 때 그들 이름을 사용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 기아, 질병 등으로 파리떼처럼 죽어 나갈 거다. 내가 그들 조상과 그들에게 줬던 땅에서, 그들이 완전히 멸절될 때까지 이런 일이 지속될 거다.

25 장

지금 유행하는 가짜 신? 따르면 안 돼!

¹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나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이 메시지는 여호야김(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4 년,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해에 임했다오.

² 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에게 전했다오.

³ 요시야(유다 왕 아몬의 아들) 13 년부터 오늘날까지-무려 23 년간이나!-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해서 임했소. 그래서 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오. 하지만 그대들은 한 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았지.

⁴⁻⁶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뿐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보내셨지만, 그대들은 한번도 귀기울이지 않았소. 그 선지자들이 그대들에게 이렇게 전했다오 말ियो.

[하나님] 돌아오거라! 너희 모두, 지금 당장! 악한 삶과 악한 행실을 버리고 돌아오거라! 나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 너희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에서 살고 싶거든 돌아오란 말이다! 지금 유행하는 가짜 신? 그걸 따라선 안 돼. ‘듣보잡 신들’? 거기에 취하지도, 그걸 예배해선 안 된다고! 너희의 그 우상 사업-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위험천만한 사업-으로 내 진노를 일으키지 말란 말야!

⁷ 너희 내 말 듣기를 완강히 거부했지. 그래서 난 지금 몹시 화가 나 있단다. 너희는 이 ‘우상 제조업’으로 인해 망하고 말 거다!

⁸⁻¹¹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판결이다! 이 모든 악한 짓거리에 대한 판결이란 말이다.

“너희가 내 말을 거부했으니, 이제 내가 직접 나서서 북녘 땅에서 이 일을 수행할 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데려올 거다. 그들을 이 땅과 이 백성,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보낼 거다. 그들이 이곳을 완전히 소탕할 거다. 난 지금 사상초유의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 온갖 기쁨의 소리-

노랫소리, 웃음소리, 결혼잔치 소리, 일꾼들의 흥겨운 소리(노동가^^), 촛불을 밝힌 저녁식탁에서 이야기 꽃을 피우는 소리-를 다 없애 주마. 온 나라를 거대한 황무지로 만들어 주마. 이 나라들이 70 년간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게 해 주마.

12-14 하지만 70 년 후엔 내가 바벨론 왕과 바벨론 온 나라의 죄를 벌할 거다. 그곳을 황무지로 만들 거다. 내가 바벨론을 향해 경고했던 것-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 예레미야가 불경건한 나라들에게 선포한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행할 거다. 많은 나라, 힘센 왕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 거다. 그들이 행한 대로 당하게 될 거다. 그때 바벨론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거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온인류를 재판에 회부하시는 하나님

15-16 [예레미야] 다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라오.

[하나님] 내가 네게 주는 이 포도주잔에 나의 진노의 포도주를 채우거라. 내가 널 온 민족에게 보낼 테니, 그들에게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거라. 내가 그들에게 대학살을 풀어 놓을 때, 정신이 혼미해져 비틀거리게 하거라.

17-26 [예레미야] 그래서 난 하나님의 손에서 포도주잔을 받아, 주님이 보내신 모든 나라들에게 그 잔을 마시게 했소.

그러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 왕들과 지도자들이 다 거대한 황무지로 변했소. 이처럼 끔찍한 저주가 임한 거라오.

애굽 왕 바로와 고관대작들, 그리고 모든 백성, 그리고 애굽에 섞여 사는 외국인들,

우스의 모든 왕들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의 모든 왕들, 아스돗의 잔류민들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 사람들

두로, 시돈, 그리고 바다 건너 해안지방의 모든 왕들

드단, 데마, 부스, 그리고 사막 근처에 사는 유목민들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사막을 옮겨 다니는 여러 베두인 족장과 추장들

시므리, 엘람, 그리고 메대의 모든 왕들

북녘 땅 원근각처의 왕들 하나하나

지구상의 모든 왕국들

마지막으로 세삭(곧 바벨론)의 왕이 그 잔을 마시게 될 거요.

27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거라.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걸 마시고, 취하고, 토하거라.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거라. 너희가 대학살을 당하게 될 거다.”

28 잔 마시기를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이렇게 말하거라.

(예레미야)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마시라 명하셨소. 그러니 어서 마시시오! (원샷^^)

29 [하나님] 각오 단단히 하거라, 최악의 사태가 닥칠 테니…. 내 소유로 삼았던 이 성읍에 내가 대제앙을 일으킬 거다. 빠져나갈 생각일랑 꿈에도 말거라. 그래, 너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거다. 이것은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을 향한 칼이니까….

[예레미야]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선포라오.

30-31 [하나님] 예레미야야, 이걸 곧이곧대로 다 전하거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이 메시지를 선포하거라.

(예레미야)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서 사자처럼 울부짖으시니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천둥이 치는구료.

주님의 백성을 향해 울리는구료.

고막이 찢어질 듯한 고함소리,

추수꾼들의 함성 같은 외침소리,

그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는구료.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의 귀에 울리는구료.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나라들을 재판에 회부하셨다오.

주님이 온 인류를 재판에 회부하셨단 말이오. (내용증명 발송^^)

악인들에게 내려질 확실한 판결

그것은 바로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 (칼 든 망나니들 총동원^^)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 * *

32 [예레미야]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메시지라오.

[하나님] 최악의 사태를 각오하거라! 멸망의 날이 온다!

제앙이 퍼지고 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팬데믹^^)

온 땅을 휩쓸 거대한 폭풍이 들이닥치고 있다!

* * *

33 [예레미야] 그날이 오면, 온 땅이 시체로 뒤덮일 거요. 하나님의 심판에 죽임당한 자들의 시체…. 아무도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거나 장례를 치러 주지 않을 거요. 그들이 쓰러져 죽은 자리에 시체가 그대로 널브러져 있을 거요. 거름밭에 뿌려진 말뚝처럼….

* * *

34-38 [예레미야] 목자들아! 울부짖어라, 살려달라고 외치거라!

양떼 주인들아, 바닥에 엎드리거라!

때가 임박했구나, 너희가 도살당할 때가!

주인이 세심히 골라, 목을 따는 양의 신세가 됐구나.

통치자들아, 어찌했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걸?

목자들아, 어찌면 좋니? 도망칠 탈출구가 없는 걸? (방탈출 실패^^)

들리느냐? 통치자들의 아우성소리가?
 목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아름다웠던 그들의 목초지, 하나님이 파괴하시려 하는구나.
 평화로웠던 양 우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죽음의 적막이 감도는구나.
 은신처에서 뛰어나온 사자처럼
 하나님이 불시에 들이닥치시리라.
 주님의 진노의 칼에 이 나라가 갈기갈기 찢기겠구나.
 온 땅이 쑥대밭이 되겠구나.

26 장

삶을 개혁하라!

¹ [해설] 다음은 여호야김(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이 재위에 오를 무렵,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요.

²⁻³ [하나님] 나 하나님의 메시지란다. 나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서 선포하거라. 유다 전역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걸 빠짐없이 전하거라. 한 마디도 빠뜨려서는 안 돼. 혹여라도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악한 삶에서 돌아올지도 모르잖니? 그렇게만 된다면야 그들의 악행에 대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재고해 볼 텐데….

⁴⁻⁶ 그들에게 전하거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가 내 말 듣기를 거부한다면, 이처럼 명확한 내 가르침대로 살기를 거부한다면, 내가 끊임없이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 듣기를 거부한다면-사실 너희는 단 한번도 귀기울여 듣지 않았지. 이제라고 뭐 달라지겠냐만은-나는 이 성전을 실로처럼 폐허더미로 만들 거다. 또한 이 성읍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할 테다.

⁷⁻⁹ [해설] 그날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이들-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은 모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전하라 명하신 내용을 예레미야가 다 전하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아우성치며 그를 사로잡았어요.

[사람들] 사형! 당신은 사형당해 마땅하오! 당신이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가며, 이 성전이 실로처럼 폐허더미가 될 거라고, 또한 이 성읍이 인적 끊긴 유령도시로 변할 거라고 선포하는 거요?

[해설] 그렇게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예레미야를 쫓아냈어요.

* * *

¹⁰ [해설] 유다 왕실의 고관들도 이 얘기를 듣고 진상 조사차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새 문(New Gate)’에서 현장법정을 열었어요. (찾아가는 법정 서비스^^)

11 먼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백성들도 가세했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백성들] 이자를 사형에 처하시오! 이자는 죽어 마땅하오! 이자가 이 성읍에 대해 저주를 선포했소. 여러분 모두, 이자의 얘기를 직접 들은 증인들이오!

12-13 [해설] 그러자 예레미야가 군중 앞에서 드러내 놓고 고관들에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이 성읍에 저주를 선포하라고 날 보내셨다오. 그 내용은 여러분이 들은 대로요. 그러니 이제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소?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오!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란 말이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순종하시오. 혹여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재앙을 재고해 주실 지도 모르니….

14-15 그리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 목숨을 여러분의 자비에 맡길 테니, 여러분 좋을 대로 하시오. 하지만 경고하건 대, 여러분이 날 죽이면, 여러분은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이니, 여러분과 이 성읍 백성들이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오. 난 한 마디도 내 맘대로 말하지 않았소.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라 하신 말씀만 전했던 말이오. 그러니 여러분은 나 예레미야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거요!

16 [해설] 왕궁 고관들은 백성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앞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왕궁 관리들] 무죄! 이 사람에게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겠소.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한테 말한 거요! (이례적인 판결에 팔레스타인 헤럴드 속보^^)

17-18 [해설] 그러자 존경받는 지도자 몇 명이 일어나 군중을 향해 연설하기 시작했어요.

[지도자들] 유다 왕 히스기야의 통치시절,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었소.

(미가) 이것은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너희 같은 인간들 때문에

시온이 다시 쑥대밭이 되고

예루살렘이 폐허더미로 변할 거다.

산 위에는 성전 대신, 잡목 몇 그루만 서 있게 될 거다.

19 [지도자들] 그때 히스기야 전하나 유다 백성들이 모레셋 사람 미가를 죽였답니까? 미가 선지자가 그런 선포를 했다고 해서 그를 죽였단 말이오. 히스기야 전하는 오히려 미가 선지자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소? 그러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재앙을 다 취소하셨잖소? 친구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불러들일 찰나에 있소. (우릴 무시하면 무시무시한 일이^^)

* * *

20-23 [해설] (전에도 우리야(기랏-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야는 예레미야와 같이 이 나라와 성읍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었어요. 그런데 우리야의 설교를 들은 여호야김과 왕실은 우리야를 죽이려 했어요.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우리야는 애굽으로 피신했죠. 그러자 여호야김 왕은 엘라단(악볼의 아들) 일행을 보내 우리야를 잡아오게 했어요. 애굽에서 체포된 우리야가 왕 앞에 끌려오자, 여호야김 왕은 우리야를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야의 장례식을 치러 주기는커녕 시신을 성밖에서 버렸답니다.

24 하지만 예레미야의 경우는 달랐어요. 아히감(사반의 아들)이 나서서 예레미야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예레미야가 폭도들 손에 죽임당하는 걸 피할 수 있었답니다.)

27 장

너희 목에 맨 멍에

1-4 [해설] 시드기야(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의 재위 초기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 마구와 멍에를 만들어 네 몸에 메거라.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왕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거라. (사진 첨부^^) 현재 유다 왕 시드기야를 겁건하러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 나라 대사들을 통해 이 메시지를 전달하거라. (당시 G6 고위회담이 예루살렘에서 개최됐다는^^) 그래서 그들 왕에게 전하게 하거라.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너희 임금들에게 전하거라.

5-8 지구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든 동물들의 창조주인 나 하나님은 그 누구의 조언이나 도움 없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지. 현재로서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세상을 넘겨준 상태다. 야생동물들조차 그에게 복종하게 해 줬단다. 이제 모든 나라가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및 손자의 휘하에 있게 될 게다. 하지만 언젠가는 느부갓네살의 나라도 유통기한이 다 되어 판이 뒤집힐 게다. 그때엔 약자로 전락한 바벨론이 벌벌 기게 될 게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모든 나라와 왕국이 바벨론 왕의 멍에와 마구를 매야 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지 않는 나라는 내가 전쟁과 기아와 질병으로 벌해, 결국 내 뜻대로 끌고 갈 거다.

9-11 그러니 너희 주변의 그 모든 선지자들, 무당들, 점쟁이들 말을 들어선 안 돼. 그들이 ‘우리가 미래를 알고 있소.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면 안 되오!’라고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너희가 그 거짓말에 넘어갔다면 머나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 거다. 내가 직접 너희를 너희 땅에서 쫓아낼 거란 말야. 하지만 바벨론 왕의 말을 듣고 그의 멍에를 받아들이는 나라는, 현재 거하는 땅에서 자기 맘대로 살 수 있게 해 주마.

12-15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내려 주마. 너도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거라. 바벨론 왕과 그 백성을 섬기거라. 그래야 제 명대로 살 수 있어! ‘바벨론에게 운명을 맡기지 않는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나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왜 굳이 죽임을 당하려는 거니? 왜 굳이 기아와 질병으로 개죽음을 당하려는 거냐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말라’는 선지자들 말을 들어선 안 돼! 그들은 거짓말, 거짓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에 대한 나 하나님의 입장은 이렇단다. ‘나는 그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보냈다면, 계속 거짓말만 선포하는구나. 그런데도 너희가 만약 그들 말을 듣는다면, 난 너희를 이곳에서 쫓아낼 거다. 그럼 너희와 거짓 선지자들은 끝장이야!

16-22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말한다. 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에게 ‘우리가 장담하오. 바벨론이 약탈해 간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조만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거요’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선포? 그거 조금도 귀담아들을 필요 없어! 다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그들 말은 들은 척도 말거라. 너희는 그냥 바벨론 왕한테 항복하고 천수를 누리면 돼. 그런데 왜 굳이 이 성읍을 폐허더미로 만들려는 거니?

그들이 정말 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참선지자라면, 자기자신부터 천군천사의 하나님께 나아와서, 아직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남아 있는 기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해! 아직 바벨론에게 넘어가지 않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라고!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이 아직 남아 있는 성전 기물들-기둥, 거대한 청동 물두멍, 받침대, 기타 대접류와 잔 등,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여호야김의 아들)을 유다와 예루살렘 고위층들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 갈 때 남겨두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말했잖니? ‘하나님의 성전, 왕궁 및 예루살렘에 남겨진 기물들도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거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 기물들을 원래 자리로 돌려 놓겠다’고 나 하나님이 말하기 전까지는, 그것들이 바벨론에 그대로 있게 될 거란 말이지….

28 장

나무 명에가 쇠 명으로

1-2 [해설] 같은 해(시드기야 왕 4 년) 5 월, 하나냐(앗술의 아들, 기브온 출신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대들며 이렇게 말했어요.

2-4 [하나냐]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메시지요. (일명 직통계시^^)
“내가 바벨론 왕의 명에를 확실히 부서뜨려 주마. 내가 2 년 안에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약탈해 바벨론으로 가져갔던-을 전부 다 이곳에 도로 반환시켜 주마. 또한 바벨론에 끌려갔던 여호야긴(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과 모든 포로들도 도로 데리고 와 주마.”

하나님의 선포라오.

“그래, 내가 바벨론 왕의 명에를 뽀각내 주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그에게 매일 필요 없어!”

5-9 [해설] 그러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냐에게 맞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참으로 잘 됐구려! 그 말이 사실이면 정말 좋겠소! 바벨론으로 옮겨진 성전 기물들과 모든 포로들을 하나님이 돌려놓으셔서 그대의 예언을 성취시켜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잘 들으시오. 내 말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대와 여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걸 잘 들으란 말이오. 우리보다 앞서 활동했던 옛 선지자들이 여러 나라와 왕국에 임할 심판-전쟁과 질병과 재앙-을 경고했는데, 그 중에 ‘모든 게 잘 될 거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다’라고 선포한

선지자는 거의 없었잖소? 그런 일은 가뭄에 콩 나듯 있었지…. 그러니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만약 그대로 되면 되는 거겠지.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보내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10-11 [해설] 그러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어깨에 지워져 있던 멍에를 잡아채 부숴 버렸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냐] 하나님의 메시지요.

“바로 이와 같이 내가 바벨론 왕이 지게 한 멍에를 부숴뜨리련다. 2년 안에 모든 나라의 목에서 바벨론 왕을 끌어 내리련다.”

[해설] 그러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12-14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어깨에 지워진 멍에를 부수고 나서 얼마 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나님] 하나냐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전하거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네가 나무 멍에를 부숴다만, 이제 넌 쇠 멍에를 메게 될 거다. 이게 바로 천군천사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도 내가 쇠멍에를 씌웠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마구를 지게 할 게다. 그들이 느부갓네살의 말을 들어야 할 게다. 왜냐고? 그건 바로 내가 들짐승들마저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줬기 때문이지.”

15-16 [해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가서 말했어요.

[예레미야] 잠깐만, 하나냐! 하나님은 그대를 보내신 적이 없소. 그대는 온 백성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들이 거짓을 믿게 만들고 있소. (원조 보이소피싱^^)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오.

[하나님] 그래, 내가 널 보냈단 말이지? 좋다. 정 그렇다면 내가 널 보내주마. 다른 아닌 지구 밖으로 널 보내주마. (지구를 떠나거라~!^^) 네가 하나님을 대적해 난리를 피웠으니, 올해가 가기 전, 넌 죽고 말 거다.

17 [해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지자 하나냐는 그 해 7월에 죽었습니다!

29 장

너희가 꿈꾸는 미래를 주마.

1-2 [해설] 다음은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배지로 끌려 간 사람 중 생존자들-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여호야긴 왕과 왕의 어머니(대비마마^^), 왕실 각료들, 숙련된 노동자들과 장인 등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모든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3 이 편지는 엘라사(사반의 아들)와 그마라(힐기야의 아들)편에 전달됐어요. 그들이 누구냐고요? 그들은 바로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신들이었습니다.

⁴ [하나님]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모든 포로들에게 말한다.

⁵ “너희는 바벨론 땅에 집을 짓고 편하게 살거라.

그 땅에 과수원도 가꾸어 거기서 재배된 걸 먹고 살거라.

⁶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거라. 또한 너희 자녀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하거라. (신혼부부 대출 우대^^)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그 땅에서 번성하고, 소멸되지 않게 하거라.

⁷ 바벨론을 고향 삼아 편하게 지내면서, 바벨론의 발전을 위해 애쓰거라.

바벨론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거라. 바벨론이 잘 돼야 너희도 잘 될 테니...”

⁸⁻⁹ [예레미야] 그렇소. 믿거나 말거나, 이게 바로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요.

[하나님] 바벨론 땅 어딜 가나 밭에 차이는 소위 설교자란 사람들, 그 ‘척척박사들’에게 속아넘어가지 말거라. 그들이 너희를 낚으려고 만들어낸 망상에 넘어가지 말거라. 그들은 내가 자기네를 보냈다면, 거짓으로 설교하고 다니는 사기꾼일 뿐이야. 난 그들을 보낸 적이 없어! 정말이야!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요.

¹⁰⁻¹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하나님] 내가 약속한 대로 바벨론 유배기간 70 년이 다 차야만(하루도 안 봐 줌), 내가 너희를 찾아가 너희를 이끌고 고향 땅에 데려올 거야. 내가 할 일은 내가 잘 안단다. 이 모든 계획을 세운 게 바로 나니까. 너희를 버리지 않고 돌봐 주겠다는 계획, 너희가 꿈꾸는 미래를 주겠다는 계획을 세운 게 바로 나니까.

¹² 너희가 날 부르면, 날 찾아와 기도하면, 난 귀기울이여 들을 거야.

¹³⁻¹⁴ 너희가 날 찾으면, 난 너희를 만나줄 거야.

맞아, 너희가 날 애써 찾으면, 그리고 날 찾길 간절히, 간절히 원하면, 난 너희를 절대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요.

[하나님] 너희에게 유리하도록 내가 상황을 반전시킬 거야. 너희가 쫓겨간 그 나라에서 너희를 다시 데려올 거야.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요.

[하나님] 너희를 보낸 유배지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데려올 거야. 내가 장담할게!

¹⁵⁻¹⁹ 그런데 너희는 지금 유행처럼 일어나는 자칭 ‘바벨론 전문가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라고 믿는구나. 나 하나님이 그 일부러 바로잡아 주마. 너희와 함께 유배지로 끌려오지 않은 자들-아직 다윗의 왕좌에 앉아 있는 왕과 예루살렘에 남겨진 모든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이 말한다. 잘 봐! 머잖아 엄청난 재앙-전쟁, 기아, 질병-이 닥칠 테니!

썩어 문드러진 사과 자루에 불과한 그들, 내가 그 나라를 전쟁과 기아와 질병으로 없앨 거다. 온세상이 그 악취에 코를 틀어막고, 그 끔찍한 광경에 눈을 질끈 감을 거다. 내가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이 내

말을 끊임없이, 긴박하게 전했음에도 거기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은 그들, 빈민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거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²⁰⁻²³ [하나님] 그리고 너희,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포로들도 나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기울이거라.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유포하는 소위 ‘바벨론 전문가들’-아합(골라야의 아들)과 시드기야(마하세야의 아들)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줄 테다. (블랙리스트 공개^^) 그럼 느부갓네살이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거다. 유다 땅에서 끌려간 포로들이 그 처형장면을 보고는 앞으로 누굴 저주할 때 그들을 예로 들어 이렇게 말할 게다.

(백성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와 아합을 불사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불에 바싹 구운 오징어처럼 만들어 주시길!

[하나님] 그 두 사람-성 범죄자이자 사기꾼 선지자인 그들-은 마땅한 벌을 받게 될 거다. 그들은 만나서 여자마다, 심지어 옆집 부인들까지도 자기 침대로 끌어들었잖니? 또 나 하나님의 메시지라면서 거짓말을 유포하고 다녔잖니? 난 그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도? 나랑 그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걸 친히 목격했으니, 그들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게다. (현행법^^)

²⁴⁻²⁶ 지금부터는 스마야(느헬람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란다.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주는 메시지란 말이다. 네가 온 예루살렘 백성들한테, 그리고 제사장 스바냐(마아세야의 아들)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네 맘대로 편지를 보냈더구나. 그 편지에서 너는 스바냐한테 이렇게 말했지. (스마야)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해 당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소. 당신을 하나님의 성전 책임자로 세우셨단 말이오. 그리고 당신에게 ‘선지자 행세를 하고 다니는 길거리 부랑자들을 다 잡아 가두라’고 하셨소.

²⁷⁻²⁸ 그런데 당신은 왜 아나dot 사람 예레미야가 선지자 행세를 하고 다니는데도 그의 입을 막지 않는 거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한테 이런 편지까지 보냈단 말이오.

[예레미야] 포로 기간은 장기화될 것이오. 그러니 포로지에서 집을 짓고 편하게 사시오. 텃밭도 가꾸고 바벨론 요리도 배우시오.

²⁹ [해설] 제사장 스바냐가 이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줬어요.

* * *

³⁰⁻³² [해설] 그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거라.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관해 나 하나님이 하는 얘기를 전하거라.

“스마야가 너희에게 거짓을 선포하고 있구나. 난 그를 보낸 적이 없어. 스마야는 지금 너희 거짓말로 현혹하는 거야. 그래서 나 하나님이 스마야에게 판결을 내린다. 난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온 가족을 벌할 거다. 스마야는 곁에 아무도 없이, 빈털터리로 생을 마감할 거다. 그의 집안에서 살아남아 ‘내가

장차 내 백성에게 내려 줄 복'을 누릴 자가 아무도 없을 게다. 이는 스마야가 나에게 맞서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이지.”

30 장

이스라엘아, 낙심하지 말거라!

¹⁻² [해설] 다음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예요.

[예레미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요.

[하나님] 지금부터 너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책에 기록하거라.

³ 보거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 상황을 반전시킬 거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전에 그들 조상에게 줬던 땅으로 그들을 데려올 거란다. 그들이 다시 그 땅의 소유권을 되찾게 해 주마.

⁴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요.

⁵⁻⁷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 공포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구나.

평화가 깨졌구나, 박살났구나.

주위를 살펴보아라! 주변을 돌아보아라!

세상 어느 남자가 아기를 낳는단?

그런데 이 남자들은 왜 해산하는 여인처럼 다 배를 움켜잡고 있는 거지?

왜 다들 얼굴이 일그러진 채 시체처럼 창백한 거지?

깊은 흑암의 날, 더할 나위없이 캄캄한 날,

전무후무한 암흑의 날이 닥쳤구나!

야곱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쳤구나.

하지만 야곱은 살아남을 거야.

⁸⁻⁹ 내가 어둠을 헤치고 찾아가

그들 목에서 멍에를 부숴뜨릴 거거든.

그들을 묶고 있는 마구를 벗겨줄 거거든.

그들이 더 이상 이방인들을 위해 노예처럼 일하지 않아도 되게 해 주련다.

그들이 자기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마.

그들을 위해 ‘다윗 왕’을 세워 주마.

¹⁰⁻¹¹ 그러니 야곱아, 나의 사랑하는 종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거라.

낙심하지 말거라, 이스라엘아!

위를 올려다보거라! 내가 떠나면 이국 땅에서 너희를 구해낼 거란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유배지에서 이끌고 올 거란다.

야곱이 돌아와 행복한 삶,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해 주마.

내가 너와 함께할 거란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란다.

그 모든 불경건한 나라들을 박살내 주마.

내가 한때는 너를 그곳으로 쫓아냈지만

너희를 끝까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란다.

내가 너희를 벌하겠지만, 그것은 공정한 벌이란다.

그건 손바닥 때리는 정도의 가벼운 징벌은 아닐 게다.

12-15 [예레미야]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나님] 너희가 다 탈진되어 파김치가 되었구나.

모두가 너희를 포기했구나.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이는구나.

너희가 잘 나갈 땐 친구를 자칭하던 자들,

이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구나.

맞아, 너희를 때려눕힌 건 바로 나란다.

너희가 잊지 못할, 심한 징벌을 내렸지.

너희의 죄과가 너무 커서,

너희의 죄악이 끝도 없어서...

그런데도 너희는 자기 상처나 앓으며 자기연민에 빠져 있구나.

너희는 응당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것뿐이야!

아니 이보다 더한 벌을 받아도 싸다고!

너희의 죄과가 너무 커서,

너희의 죄악이 끝도 없어서...

내가 이 모든 벌을 너희에게 내린 거란다.

16-17 하지만 때가 되면 너희에게 상처를 입힌 자가 도리어 상처를 입게 될 거야.

너희의 원수들이 모두 노예로 전락하고 말 거야.

너희 약탈자들이 약탈당하고

너희 재산을 털어간 자들이 탈탈 털리게 될 거야.

하지만 너희만은 내가 치료해 주마.

불치병에 걸린 자들도 낫게 해 주마.

사람들은 다 널 포기했지만,

모두들 네게 가망이 없다고 했지만,

시온이 무슨 쓸모가 있겠냐고 했지만...

18-21 [예레미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다시 임했다고.

[하나님] 내가 야곱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마.

야곱을 불쌍히 여겨, 그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주마.
 원래 있던 자리에 성읍이 다시 세워지고
 호화주택들이 다시 그 화려함을 자랑하게 될 거란다.
 창문에선 감사가 쏟아져 나오고
 문에선 웃음소리가 새어 나올 거란다.
 그렇게 너희 형편이 점점 더 좋아질 거란다.
 슬픔의 날은 끝났어!
 번성의 날, 번창의 날만이 기다리고 있지.
 멸시의 날은 끝났어!
 그들이 다시 아기 낳기를 원하게 될 거야. (저출산 극복^^)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공동체를 이룰 거야.
 그들을 해치는 자? 그게 누구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들의 혈통에서 통치자가 나오고
 그들 민족에게서 지도자가 나올 거야.
 그들 후손 중에 영도자가 나올 거야.
 난 그가 언제든 자유로이, 쉽게 내게 다가오게 해 줄 거야. (프리패스^^)
 세상 어느 누가 것처럼
 감히 초대도 안 받고 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겠니?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²² [하나님]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지.
²³⁻²⁴ [예레미야] 보시오! 하나님의 허리케인이 불어오는구료.
 주님의 폭풍이 들이닥치는구료.
 악인들 머리를 팽그르르 돌려 버릴 바람이!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내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모든 걸 쓸어 버리시기 전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을 하나님의 진노, 맹렬한 진노!
 이 모든 게 끝났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일이 완수됐음을 보게 될 거요.

31 장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면

모든 게 한낮의 태양처럼 명확해질 거다.

‘내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남녀노소를 막론하고)의 하나님’이란 사실이,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란 사실이 불 보듯 명확해질 거다.

* * *

²⁻⁶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오.

[하나님] 살육의 현장에서 살아남아

광야에서 은혜를 체험한 이 백성,

안식할 곳을 찾아 헤매던 이스라엘이

그들을 친히 찾아온 나 하나님을 만났지.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오.

[하나님] 난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단다. 물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러니 사랑, 사랑, 더 많은 사랑을 기대해 보렴!

사랑하는 처녀 딸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다시 시작해 보려 해. 널 다시 일으켜 주마.

넌 다시 노래하게 될 거야.

탬버린을 치며 춤추게 될 거야.

옛날 그 시절처럼

사마리아 언덕 비탈에 다시 포도원을 만들게 될 거야.

그리고 편안히 앉아 포도열매를 즐기게 될 거야. (한마디로 등 따습고 배 부르게 될 거란 얘기^^)

맞아, 풍성한 포도 수확을 즐기게 될 거야.

머지않아 에브라임 산꼭대기 보초병이 이렇게 외치게 될 거야.

[보초병] 다 일어나 시온으로 갑시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갑시다!

* * *

⁷ [예레미야] 오, 그렇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오.

[하나님] 야곱을 향해 목청껏 환호성을 지르거라!

그 1 등 국가에게 희소식을 전하거라!

환호성을 지르거라! 찬양을 부르거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거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의 알곡들을 구원하셨다!”

⁸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보거라.

내가 북쪽 나라에서 내 백성을 데려올 거란다.

땅끝에서 그들을 불러모을 거란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절뚝거리는 자들을 불러모을 거란다.

임산부들, 진통하는 산모들까지 다 데려올 거란다.

그 엄청난 인파를 데려올 거란다!

⁹ 잘 봐, 그들이 오는 것을!

내가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고 올 때,

맑은 시냇물로 이끌고 올 때,

거침없는 탄탄대로로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겠지.

아무렴, 난 이스라엘의 아버지니까!

에브라임은 내 첫아들이니까!

¹⁰⁻¹⁴ 나라들아, 잘 듣거라! 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은 세계에 알리거라. (현장 르보^^) 그들에게 전하거라.

“이스라엘을 흠으셨던 분이 그들을 다시 불러모으실 거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그들을 세심하게 보살피실 거다.

자기 양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살피실 거다.

나 하나님이 야곱을 빼내기 위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했단다.

바벨론 강패의 손에서 야곱을 빼내기 위해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했단다.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시온의 비탈을 올라올 거란다.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보고 얼굴이 환해질 거란다.

선물 목록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양떼와 소떼!

그들 삶이 물 댄 동산처럼 변할 거란다.

다시는 바짝 마른 채로 방치될 일이 없을 거란다. (스프링클러 완비^^)

젊은 처자들이 흥에 겨워 춤출 거란다.

청년, 노인 할 것 없이 다 함께 춤출 거란다. (일명 ‘세대차 해소’ 춤^^)

내가 그들의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줄 거란다.

그들에게 풍성한 위로를 쏟아부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줄 거란다.

내 장담컨대, 제사장들도 하루 세끼 든든히 먹게 될 거란다.

내 백성의 공간이 차고 넘치게 될 거란다. (여보, 아버지 댁에 공간 새로 지어 드려야겠어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 * *

¹⁵⁻¹⁷ [예레미야]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다고요.

[하나님] 잘 듣거라! 라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목놓아 우는 쓰라린 통곡소리들!

라헬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 울고 있구나.

그 어떤 위로도 거부하는구나.

그녀의 자녀들이 사라졌으니….

머나먼 유배지로 가버렸으니….

[예레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오.

[하나님] 이제 하염없는 그 눈물을 거두렴.

네 울음을 멈추렴.

네 슬픔을 보상 받으렴.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네 자녀들이 이제 집에 올 거란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렴!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¹⁸⁻¹⁹ [하나님] 에브라임이 참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지.

그래,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걸 분명히 들었어.

[에브라임] 주님은 절 특별히 훈련시키셨어요. (엘리트 코스^^)

한 살배기 야생마인 제게 안장을 지우셨지요.

저를 잘 길들이셔서, 순종적으로 만드셨지요.

주는 나의 하나님!

제가 그 오랜 세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정치 없이 뛰어다녔던 걸 회개합니다.

주님이 절 길들이셔서 순종적으로 만드셨을 때에야 비로소 깨달았지요.

지난 과거, 그 거칠고 반항적이던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수치심에 가슴을 칩니다.

더 이상은 그렇게 못 살겠어요!

²⁰ [하나님] 오, 에브라임은 내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내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식이지.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내 가슴은 그리움으로 터질 것만 같았어!

가슴 사무치도록 그를 외쳐 부르누나.

애틋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누나.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²¹⁻²² [하나님] 너희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표지판을 세우거라.

좋은 지도를 구하거라.

도로사정을 연구하거라. (실시간 도로교통 정보^^)

너희가 끌려갔던 길, 바로 거기로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란다.

돌아오거라, 나의 사랑하는 처녀 딸 이스라엘아!

돌아오거라, 네 고향집으로!

너의 그 방랑벽, 언제나 버릴래?

너의 그 변덕, 언제나 끝낼래?

나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로이 창조할 거란다.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여인을! 그렇게 변화된 여인을!

* * *

23-24 [예레미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나님] 내가 사태를 바로잡아 내 백성을 데려올 때, 거리마다 오래전 인사말이 들릴 거란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오, 진정한 나의 고향!’ ‘오, 거룩한 산!’ (고향집 눈 속에선 꽃등불이 타겠네 ♪ ^^)

모든 유다 백성들이 서로 다정하고 화목하게 지낼 거다. 도시건, 시골이건 가리지 않고….

25 내가 너희 지친 몸에 활력을 주마.

너희 피곤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마.

26 [예레미야] 그때 난 잠에서 깨 주위를 둘러보았소. 아, 얼마나 편히 꿀잠을 잤는지…!

* * *

27-28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고.

[하나님] 준비하거라. 때가 오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사람과 동물을 심을 거란다. 농부가 씨를 심듯 그들을 심을 거란다. 예전엔 가차없이 뽑아, 갈기갈기 찢어 버렸지만, 이제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 곁에서 도울 거란다. 그들을 다시 세우고 심을 거란다.

29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이런 구닥다리 속담은 안 들릴 거란다.

‘부모가 풋사과를 먹으니 자녀가 배가 아프구나.’

30 아무렴, 모두들 자기 죄에 대해선 자기가 값을 치를 거란다. 너희가 풋사과를 먹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희 배가 아플 거란 말야.

* * *

31-32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고.

[하나님] 그래, 때가 오고 있단다.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와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가…. 이번 언약은 예전 언약(내가 그들 조상의 손을 잡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던 때 맺은 언약)과는 다를 거야. 그때 난 그들의 남편이 되어 결혼서약을 지켰지만, 그들은 서약을 깨뜨렸지.

33-34 이번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완전히 새로운 거란다. 내가 그들 안에 나의 법을 넣어줄 거란다. 그들 가슴판에 나의 법을 새겨줄 거라구!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란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나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학교’를 세울 일이 없을 거야. 왜냐고? 그들이 날 직접

알게 될 테니까. 머리가 좋은 나쁜든, 우등생이든 지진아든, 누구나 날 직접 알게 될 테니까. (전교생 1:1 튜터 시스템^^) 내가 그들의 과거를 깨끗이 지워줄 거란다. 난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완전히 잊을 거란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이토록 질서정연한 우주가 산산이 부서지지 않는 한

³⁵ [예레미야] 하나님의 메시지라오.

낮에는 해로, 밤에는 달과 별로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

바다를 휘저어 하얀 파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이름 ‘천군천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메시지라오.

³⁶ [하나님] 이토록 질서정연한 우주가 산산이 부서지지 않는 한,

우주가 내 목전에서 붕괴돼 혼돈으로 치닫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 산산이 흩어질 일은 없단다.

이 나라가 내 목전에서 사라질 일은 없단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 * *

³⁷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너희가 하늘의 크기를 줄자로 잴 수 있다면,

지구의 내핵까지 탐사할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난 너희의 행위를 역겨워하며

이스라엘을 등질 거란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 * *

³⁸⁻⁴⁰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때가 오고 있구나. 나 하나님의 도성이 재건될 때가, 하나넬의 망대에서 모퉁이 문(Corner Gate)까지의 길이 복원될 때가.... 도성의 서쪽 경계는 가렛산에서 고아(Goath)까지 될 거란다. 남쪽 경계는 화장터가 있던 계곡 전체-일명 ‘죽음의 계곡’까지, 동쪽 경계로는 기드론 시내까지 펼쳐진 계단식 밭 전체까지, 그리고 북쪽 경계로는 말문(Horse Gate)까지가 될 거란다. (말문이 막히네^^) 이 도성은 나에게 성스럽고 거룩한 곳이 될 거란다.

다시는 이 도성이 무너지거나 파괴되지 않을 거란다.

32 장

살육과 질병이 코 앞에 닥쳤다고요!

¹⁻⁵ [해설] 다음은 유다 왕 시드기야 10 년(느부갓네살 18 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에요. 당시 바벨론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레미야는 왕궁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비난하면서 옥에 가두라 했던 거예요.

[시드기야] 그대가 감히 이런 말을 했는지?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하나님) 경고한다.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려다. 그가 이 성읍을 접수하게 될 거다. 성읍뿐 아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도 갈대아인들 손에 넘어갈 거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죄값을 치르게 될 거다. 내가 그를 도로 찾을 때까지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 지내게 될 거다. 나 하나님이 선포한다. 어디 한번 바벨론 사람들을 대항해 실컷 싸워 보거라. 그래 봤자 아무 소용없겠지만...”

⁶⁻⁷ [해설] 예레미야가 말했어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라요.

[하나님] 준비하거라. 지금 하나멜(네 삼촌 살룸의 아들, 촌수 정리를 하자면 사촌)이 널 만나러 오고 있단다. 하나멜이 와서 너한테 이런 말을 할 거야.

(하나멜) 아나돗에 있는 내 밭 좀 사 주게나. 자네한테는 그 밭을 살 법적 권리가 있지 않나?

⁸ [예레미야] 얼마 후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사촌 하나멜이, 날 감옥으로 찾아와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멜] 베냐민 지역, 아나돗에 있는 내 밭 좀 사 주게나. 자네는 이 밭을 우리 가문 명의로 지킬 법적 권한이 있지 않은가? 그걸 좀 사 주게. 그 밭을 넘겨 받으란 말일세.

[예레미야] 난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란 걸 알았대요.

⁹⁻¹² 그래서 내 사촌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지. 밭값으로는 은 17 세겔(노동자 68 일분의 임금, 현시가 약 700 만원-역자 주)을 지불했대요. 이에 필요한 절차도 다 밟았대요.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매매증서를 써 인장을 찍고, 저울에 돈을 달아 봤지. 그렇게 계약내용과 계약조건이 담긴 증서-봉인된 증서와 봉인되지 않은 증서 두 가지-를 바룩(네리야의 아들, 마세야의 손자)에게 맡김으로써 매매를 진행했대요. 이 모든 절차는, 계약서에 서명한 내 사촌 하나멜과 증인들, 그리고 감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대요.

¹³⁻¹⁵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바룩에게 말했소.

“이것은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네. 이 문서-봉인된 문서와 봉인되지 않은 문서 두 가지-를 받아 도자기에 안전하게 보관하게나. 왜냐하면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네.”

(하나님) 너희 삶이 다시 정상화될 날이 올 거란다. 이 백성이 다시 집이며, 밭이며, 포도원을 매매할 날이 올 거란다.

16-19 [예레미야] 난 바룩(네리야의 아들)에게 그 법적 서류를 넘겨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사랑하는 나의 주 하나님, 주님은 놀라운 능력으로-그저 한번의 손짓으로!-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꾸준히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모의 죄값을 자녀가 치르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하여 ‘천군천사의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지켜보시는 주님은 그들이 살아온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지요.

20-23 일찍이 애굽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주님! 주님은 바로 여기, 이스라엘뿐 아니라 어디에서든 여전히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죠. 그 명성이 결코 실추되지 않도록 지키시는 주님! 애굽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신 주님! 그 엄청난 구원을 그저 손짓 한번으로 이루신 주님! 일찍이 그들 조상에게 주시겠다 굳게 약속하셨던 땅, 이 기름지고 풍성한 땅을 마침내 그들에게 안겨주신 주님! 하지만 이곳에 들어와 땅을 부여받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지요. 주님 말씀을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24-25 오, 적들이 이 성읍을 차지하러 와, 성읍을 포위하고 공성 쌓은 걸 좀 보세요! 살육, 기아, 질병이 코 앞에 닥쳤네요. 바벨론 사람들이 우릴 공격하고 있다고요! 주님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네요. 매일매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네요! 이 성읍이 지금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생겼는데, 주 하나님께서는 제게 받을 사라고 말씀하시다니요. 그것도 현금으로 받 값을 지불하라고 하시다니요. (대출불가, 카드불가, 할부불가^^)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다니요.

* * *

26-30 [해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나는 하나님,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하나님이다. 나에게 불가능이 있겠니? 그러니 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거라. 이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말거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사람들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려 한다. 지금 너희를 공격하고 있는 갈대아인들이 이 성읍을 침입해 들어와 잣더미로 만들 거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진노한 줄 아니? 그동안 집집마다 자기 집 지붕을 제단 삼아 바알에게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야. 집집마다 수없이 많은 우상에게 제사 드렸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이런 짓을, 내가 그토록 혐오하는 이런 짓을 그리 오래 해 왔는데, 이런 그들의 모습에 내가 어찌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니?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31-35 [하나님] 그래, 이 성읍은 생겨난 이래 줄곧 날 진노하게 만들었지. 이제 나도 정말 지쳤다. 그래서 내가 이 성읍을 무너뜨리려는 거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이 악한 삶을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으니까!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설교자들, 도시사람(차도남, 차도녀^^), 시골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 한통속이 되어 보란 듯이 내 화를 돋우었지. 그들은 내게 배신을 때렸어. 심지어 내 얼굴조차

쳐다보려 하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그토록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 가르쳤는데도 말야!

그들은 내 말을 경청하려고도, 내게 가르침을 받으려고도 안 했어. 심지어 성전-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세워진 바로 이 성전-안에 그 역겨운 남신, 여신 우상들을 세워, 날 대놓고 모독했다고! 그러더니 결국 힌놈 골짜기에 사당을 지어 바알 우상한테 바치질 않나, 거기에서 자녀들을 몰래 우상한테 제물로 태워 드리질 않나-이야말로 내가 절대 참을 수 없는 악질 행위인데!-그러면서 온나라를 거대한 죄악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지.

* * *

³⁶ [하나님] 너희는 ‘살육과 기아와 질병 가운데, 이 성읍이 바벨론 왕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지. 하지만 이 성읍에 대해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단다.

³⁷⁻⁴⁰ 잘 보렴! 내가 진노와 격노와 분노에 겨워 이 백성을 여러 나라로 쫓아내겠지만, 언젠가는 이들을 다시 모아들일 거란다. 그래, 그들을 다시 이곳에 데려와 평화롭게 살게 해 줄 거야. 그렇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들이 한 마음으로 언제나 날 영화롭게 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자자손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야. 아, 그게 다가 아니지. 난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 곁에서 그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그런 언약 말이야. (행복 보장, 하나님 보험^^) 그들 마음 속에 날 향한 깊은 경외심을 채워줄 거야. 그들이 내게서 한눈 팔 생각도 못하게 될 거야.

⁴¹ 오, 그들로 인해 내가 얼마나 기쁠지! 오, 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해 줄 때, 내가 얼마나 기쁠지! 난 마음과 영혼을 다해 이 나라에 그들을 심을 거란다. 여기서 그들을 지켜 줄 거라구!

⁴²⁻⁴⁴ 그래, 이게 바로 나 하나님의 메시지란다. 비록 내가 이 백성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겠지만, 결국엔 그들이 놀랄 정도로 번영시켜 줄 거야. 내 약속하마.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시 밭을 사게 될 거란다. 그래, 너희가 ‘이 땅이 이렇게 황량하게 변하고 마는구나! 이 땅이 이대로 개들 차지가 되는구나! 바벨론 사람들이 파괴한 이 땅, 도저히 사람 살 곳이 못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바로 이 나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아무렴, 사람들이 다시 농장을 사게 될 거란다. 그것도 합법적으로-적법한 증인들을 세운 가운데, 매매증서를 작성한 후 인장을 찍어-농장을 사게 될 거야. 바로 여기 베냐민 땅에서, 또 예루살렘 근교에서, 그리고 유다의 마을들과 산촌에서, 세벨라와 네겟에서 다시 밭을 사게 될 거란다. 그렇게 너희가 잃었던 걸 다 되찾게 해 주마. 나 하나님의 선포란다!

33 장

네가 상상도 못한 일들

¹ [해설]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혀 있던 때, 하나님께서 두번째 메시지를 주셨어요.

²⁻³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을 만들되 생명이 살기 적합한 곳으로 만든 나 하나님의 메시지란다. 내게 부르짖거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해 주마. 네가 상상도 못한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들을 말해 주마.

⁴⁻⁵ 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성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할 말이 있단다. 백성들 집뿐 아니라 왕들의 집마저 파괴됐구나. 갈대아인들과의 전쟁(이갈전: 이스라엘-갈대아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구나. 백성들이 갈대아인에게 학살당했구나. 나의 불붙는 진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구나. 거리마다 그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구나.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니? 너희가 이 성읍에서 못된 짓만 골라가며 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내 속을 뒤집어 놔기 때문이라고!

⁶⁻⁹ 하지만 이제 잘 보거라. 내가 이 성읍을 완전히 뒤바꿔 줄 테니.... 이 성읍에 진정한 치유-내적 치유뿐 아니라 외적 치유도-를 베풀어주마. 백성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마. 그들 삶에 축복이 넘쳐 흐르게 해 주마. 유다와 예루살렘이 잃었던 걸 전부 다 회복시켜 주마. 모든 걸 다시 세워, 새 것처럼 만들어 주마. 그들이 내게 대항해 저질렀던 더러운 짓을 깨끗이 씻어 주마. 그들이 범한 모든 잘못, 그들이 행한 모든 반역을 다 용서해 주마. 예루살렘은 세상 모든 나라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중심'이 될 거란다. 내가 예루살렘에 좋은 일을 엄청나게 행한다는 소식을 온 세상이 듣게 될 거란다. 내가 예루살렘에 쏟아부어 주는 축복을 보고, 그들이 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될 거란 말야!

¹⁰⁻¹¹ 그래, 나 하나님의 메시지란다. 너희는 이 곳 유다와 예루살렘의 황량하고 텅 빈 거리를 보며 이렇게 말했지.

(백성들) 정말 믿을 수가 없군. 이렇게 황무지가 되다니...! 여기에선 개들조차 살기 어렵겠는 걸?

[하나님] 하지만 이곳에서 머지않아 웃음소리, 축하 소리, 결혼식 축하연 소리가 들려올 거란다. 사람들이 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감사 제물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감탄하게 될 거란다.

(백성들) 천군천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주님의 사랑엔 유효기간이 없죠.

[하나님] 이 땅이 잃어버렸던 걸 내가 전부 다 회복시켜 주마.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들어 주마. 나, 하나님의 말이란다.

¹²⁻¹³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곳이 곧 떠돌이 개들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황량해지겠지만, 결국엔 목자가 자기 양떼를 돌보는 푸른 초장으로 바뀌게 될 거란다. 모든 곳-세벨라와 네겝 주변의 산들, 베냐민 지역 전체, 예루살렘 주변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를 보게 될 거야. 목자들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세심히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나 하나님의 말이란다.

‘다윗 나무’에서 싹튼 진정한 새순

14-18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고요.

[하나님] 두고 봐. 때가 올 테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안에 했던 약속을 이룰 날이 오고 있다구!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 나무’에서 진정한 새순이 싹트게 해 줄 거야. 그가 이 나라를 정직하고 공의롭게 이끌 거야. 그렇게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그날이 오면, 유다가 평안해지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될 거야. 그땐 ‘하나님이 우릴 위해 모든 걸 회복시키셨다’란 말이 이 성읍의 모토가 될 거란다. 나 하나님이 장담하마.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될 거란다. 그날이 오면, 번제와 소제(곡식제물), 희생제물로 나를 영화롭게 할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거란다.

* * *

19-22 [해설] 다음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요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오.

[하나님] 내가 낮과 맺은 언약, 밤과 맺은 언약이 파기된다 해도, 그래서 낮과 밤의 질서가 깨진다 해도, 그렇게 밤낮이 뒤죽박죽된다 해도, 내가 내 종 다윗과 맺은 언약은 결코 파기하지 않을 거란다. 그 후손이 통치하지 못하게 될 일은 절대 없을 거란 말야.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야. 하늘의 별들이 셀 수없이 많듯, 바다의 모래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듯, 내 종 다윗의 자손들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도 수없이 많아질 거란다.

* * *

23-24 [해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요요.

[하나님] ‘하나님이 일찍이 택하신 두 집안-이스라엘과 유다-을 버리셨다’는 말을 들어 본 적 있니? 아니면, 내 백성이 멸시당하는 걸 본 적 있어? 그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걸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냐고?

25-26 나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단다. 낮과 밤이랑 내가 맺은 언약이 파기된다 손치더라도, 하늘과 땅이 내 설계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들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거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후손의 통치자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오지 못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구! 그리고 그들이 잃었던 것도 전부 다 되찾게 해 줄 거란다. 결론은…?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거라는 거지!

34 장

노예들에게 자유를!

¹[해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군대 및 동맹군, 그리고 소집 가능한 병력을 총동원해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들을 맹공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요요.

2-3 [하나님] 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거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잘 듣거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줄 거다. 그가 이 성읍을 찢터미로 만들 거다. 빠져나갈 생각은 꿈에도 말거라. 넌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 그의 죄수가 될 거니까. 바벨론 왕이 너랑 직접 대면한 후, 널 포로로 바벨론에 끌고 갈 거다.

4-5 오, 유다 왕 시드기야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끝까지 잘 듣거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 봐야^^) 하지만 네가 살해당하진 않고 평화롭게 죽을 거다. 네 조상들-너의 선왕들-의 장례식을 영예롭게 치러줬던 것처럼, 네 장례식도 영예롭게 치러줄 거다. 그들이 제대로 격식을 갖추어 네 죽음을 애도할 거다. ‘전하, 전하!’라며 애곡할 거다. 내가 엄중히 약속하마. 나 하나님의 선포란다.

6-7 [해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메시지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또박또박 전했어요. 그때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유다 성읍들을 맹공격하고 있었어요. 유다에서 그때까지 함락되지 않고 남아 있던 요새 성읍은 라기스와 아세가, 두 곳뿐이었죠.

* * *

8-10 [해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당시 시드기야 왕은 ‘히브리인 노예들을 남녀 불문하고 해방시켜 주겠다’고 예루살렘 시민들과 언약을 맺은 상태였어요. ‘유다에서는 아무도 동족 유대인을 노예로 부릴 수 없다’는 걸 골자로 한 언약이었죠. 그리고 그 언약에 서명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모든 남녀 노예를 해방시켜 줬어요.

11 그런데 얼마 안 돼,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지 뭐예요? 약속을 어기고, 전에 노예로 부리던 사람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온 거예요.

12-14 바로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너희 조상들을, 내가 해방시켜 주고 난 그들과 언약을 맺었지. 그때 난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

“너희 모두는, 부득이하게 자신을 팔아 노예가 된 너희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제 7 년째 해방시켜 주거라. 6 년간 노예로 살던 사람을 해방시켜 주란 말이다.”

하지만 너희 조상들은 날 개무시했지.

15-16 그런데 너희마저, 너희마저 무슨 짓을 한 거니? 처음엔 너희가 옳은 길로 돌이켜, 옳은 일을 행하는 것 같더니,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짐짓 엄숙히 맹세해가며 형제자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같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곧 배신을 때리고 나와 맺은 언약을 조롱하다니! 바로 얼마 전 해방시켜 줬던 그들을 다시 노예로 삼다니! 완력으로 그들을 다시 노예로 부리다니!

17-20 그러니 나 하나님이 말하지 않을 수 없구나. 너희는 내게 불순종했다. 노예가 된 너희 형제자매를 해방시켜 주지 않았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주마. 하나님의 선포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자유-전쟁과 질병과 기아로 죽임을 당할 자유-를 선포해 주마. 내가 너희를 공포영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마.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자 마자 몸서리치게 해 주마.

나와 맺은 언약을 파기한 모든 자들, 수송아지를 반으로 갈라 그 사이로 걸어가는 언약식을 치르면서 엄숙히 약속한 걸 지키지 않은 자들, 그날 반으로 가른 수송아지 사이로 걸어난 모든 사람들-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왕궁관리들,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의 목숨을, 그들을 죽이려 작정한 그들 원수에게 넘겨주마.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게 해 주마. 그들의 시체가 까마귀와 떠돌이 개들의 먹이가 되게 해 주마.

²¹⁻²² 또 유다 왕 시드기야와 왕궁대신들 역시, 그들을 죽이려 작정한 원수들에게 넘겨주마.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게 해 주마. 일단은 바벨론 왕 군대가 물러가겠지만, 조만간 다시 쳐들어올 거다. 왜냐하면 내가 바벨론 왕 군대에게, 이 성읍에 다시 오라고 명할 거니까. 그들이 다시 쳐들어와 이 땅을 점령해 쟁터미로 만들 거다. 유다 주변 성읍들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내가 그 성읍들을 유령도시로 만들어 아무도 살 수 없도록, 아무도 살지 않도록 만들 테니.... 나 하나님의 선포다.

35 장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모임

¹ [해설] 다음은 10 년 전, 여호야김(이스라엘 왕 요시야의 아들)의 재위시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예요.

² [하나님] 너는 레갑 공동체를 찾아가, 그들을 하나님 성전에 있는 방으로 초청한 후, 포도주를 대접하거라.

³⁻⁴ [예레미야] 그래서 내가 야아사냐(예레미야의 아들이자 하바시냐의 손자)를 찾아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레갑 공동체 전체-를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난(익다라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사람)의 접견실로 갔다오. 그 방은 성전 관리들이 쓰는 회의실 바로 옆, 마아세야(살롬의 아들, 성전업무 책임자)의 방 바로 위에 있었다오.

⁵ 거기에서 내가 레갑 사람들을 향해 포도주잔과 포도주병을 들고 말했소.

“건배! 함께 잔을 들시다!” (위하여!^^)

⁶⁻⁷ 하지만 그들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라며 거부하더군.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오.

[레갑 사람들] 우리 조상 요나답 님(레갑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요나답) 너희는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말거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 모두 말이다. 또한 집을 지어 정착하지도 말거라. 밭농사나 텃밭농사나 포도원 농사도 짓지 말거라. 재산을 소유하지도 말거라. 유목민처럼 장막에 거하거라. 그런 유목생활을 통해 자손을 번창시키며 행복하게 살거라.

⁸⁻¹⁰ [레갑 사람들] 원네들은 그렇게 살아왔습죠. 요나답 님(레갑의 아들)의 명령을 다 준행하면서요. 우리와 우리 아내, 우리 아들딸들 모두 포도주는 입에도 대지 않는답니다. 또한 우리는 집을 짓지도 않고, 포도원 농사나 밭농사나 텃밭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원네들은 유목민처럼 장막에서 삽니다오. 우리 조상 요나답 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걸 다 준행하며 살고 있습죠.

11 하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 땅을 침입하자, 우린 ‘갈대아와 아람 군대를 피해 예루살렘으로 가자. 거기에서 안전하게 거할 곳을 찾아보자’라고 했습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겁니다요.

왜 깨닫지 못하는 거지?

12-15 [해설] 그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는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다. 네가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면 좋겠구나.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는 거니? 왜 내 말을 준행하지 않는 거냐고?”

[예레미야] 하나님이 선포하셨다오.

[하나님] 요나답(레갑의 아들)이 자손들에게 명한 걸, 그들은 그토록 철두철미하게 준행하는데.... 요나답이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다고, 오늘날까지 포도주는 입에도 대지 않는데.... 그들은 그렇게 자기 조상의 명을 존중하며 순종하는데....

하지만 너희 꼴을 보거라! 내가 너희 주의를 끌기 위해 그토록 애를 썼건만, 너희는 계속해서 날 무시했잖니? 너희한테 끊임없이 내 종, 선지자들을 보내, ‘이젠 제발 너희 삶을 바꾸거라, 과거의 악한 삶을 청산하고 옳은 일을 하거라, 수시로 출시되는 ‘듣보잡 신들’-철수 신, 영희 신, 영수 신 등-을 따르지 말거라,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 정착해, 나와 의리를 지키며 살거라’라고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일렸건만....

15-16 그런데 너희는 날 어떻게 취급했지? 마치 귀머거리처럼 내 말을 못 들은 척하지 않았어? 요나답(레갑의 아들)의 자손들은 자기 조상이 명한 걸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켰는데, 이 백성은 날 개무시하고 있다니!

17 그래서 너희한테 이런 일이 닥칠 거다.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우두머리들에게 대재앙을 내릴 거다. 내가 일찍이 경고했던 바로 그 재앙을 내릴 거란 말이다. 이는 내 말에 너희가 귀를 막았고, 내 부름에 너희가 등을 돌렸기 때문이야.

18-19 [해설] 그후 예레미야가 다시 레갑 공동체에게 가서 말했어요.

[예레미야] 다음은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말을 그대로 준행했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의 지시를 철저히 따랐으니,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마.

“요나답(레갑의 아들)의 자손들 중에서 나를 섬길 자가 끊임없이 나올 거다, 끊임없이!”

36 장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다

¹ [해설] 여호야김(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4 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예요.

² [하나님] 두루마리를 가져와 거기에 내가 들려준 이야기-처음 요시야가 즉위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네게 들려준 이야기,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빠짐없이 다 기록하거라. (기억력 테스트^^)

³ 어찌면 유다 공동체가 그걸 보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잖니? 내가 내릴 대재앙을 그들이 인지하고, 악한 삶에서 돌이킬 수도 있지 않겠어? 그로 인해 내가 그들의 패역과 죄를 용서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⁴ [해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룩(네리야의 아들)을 불러,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을 불러줬어요. (기억력이 멘사 급^^) 그러자 그걸 바룩이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지요.

⁵⁻⁶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나는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네. 그러니 자네가 내 대신 가 줘야겠네. 성전에 들어가, 자네가 받아 적은 내용을 전부 다 읽도록 하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금식일에 이걸 낭독하게나. 유대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해야 하네.

⁷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들이 이걸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실 거라네. 어찌면 그들이 악한 삶에서 돌이킬 수도 있겠지.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는지, 확실히 말씀하시지 않았나?

⁸ [해설] 바룩(네리야의 아들)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시한 대로 정확히 행했어요. 그렇게 바룩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메시지를 낭독했지요.

⁹ 때는 여호야김(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5 년 12 월로,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과 유대 전역에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일을 지키느라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¹⁰ 바룩(발음주의! 베틀이 아님^^)은 두루마리를 성전에 들고 들어가, 그마랴(서기관 사반의 아들)의 회의실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공개적으로 낭독했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 ‘새 문(New Gate)’ 바로 옆, 윗뜰에 있었어요. 그곳에선 모든 사람이 바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¹¹⁻¹² 미가야(그마랴의 아들)는 두루마리의 내용-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을 듣고 곧장 왕궁으로 달려갔어요. 그는 정부관료들 전원이 회의 중인 서기관실로 향했어요. 그곳엔 엘리사마(서기관), 들라야(스마야의 아들), 엘라단(악볼의 아들), 그마랴(사반의 아들), 시드기야(하나냐의 아들) 등 모든 정부관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¹³ 미가야가 바룩이 낭독한 두루마리 내용 전부를 관료들에게 보고하자, 그들이 경청했어요.

¹⁴ 그들은 즉시 여후디(느다냐의 아들이자, 셀레마의 손자이자, 구시의 증손-뻘대 있는 집안^^)을 바룩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명했어요.

[관료들] 그대가 사람들 앞에서 읽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시오.

[해설] 그러자 바룩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갔어요.

¹⁵ 관료들이 바룩에게 말했어요.

[관료들] 앉으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도 좀 들려 주시오.

[해설] 그러자 바룩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낭독했어요.

¹⁶ 모든 내용을 다 듣고 마음이 불편해진 관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관료들] 이 모든 걸 전하께 아뢰어야 하지 않겠소?

¹⁷ [해설] 그러면서 그들은 바룩에게 물었어요.

[관료들] 말해 보시오. 그대는 이걸 어떻게 다 기록하게 됐소?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것이요?

¹⁸ [해설] 바룩이 말했어요.

[바룩] 맞습니다. 이 한마디한마디가 다 예레미야 선지자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그걸 펜과 잉크로 한 자 한 자 받아 적었습니다.

¹⁹ [해설] 관료들이 바룩에게 말했어요.

[관료들] 그대는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좋겠소. 가서 그대와 예레미야, 둘 다 숨어 지내시오. (안전가옥 준비완료^^) 그대들의 거처를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요. (위치추적 방지 위해 핸드폰도 꺼 놓고^^)

²⁰⁻²¹ [해설] 관료들은 두루마리를 엘리사마(서기관)의 집무실에 안전하게 보관해 둔 채,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러 왕궁 뜰로 갔어요. 왕은 여후디를 시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어요. 여후디는 엘리사마(서기관)의 집무실에서 두루마리를 가져와, 왕과 보좌관들 앞에서 낭독했어요.

²²⁻²³ 때는 12 월이었고, 왕은 겨울별장의 화롯불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 일이에요? 여후디가 서너 문단을 낭독할 때마다, 왕은 주머니칼(스위스 군용 칼^^)로 그 부분을 찢어 불 속에 집어 던졌어요. 모든 두루마리를 다 불사를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죠.

²⁴⁻²⁶ 왕과 그의 대신들은 메시지가 낭독되는 걸 들으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엘라단과 들라야, 그리고 그마랴가 ‘두루마리를 제발 불사르지 마소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애원했지만, 왕은 이를 무시했어요. 그러더니 왕은 앞으로 나아가 여라므엘 왕자와 스라야(아스리엘의 아들), 그리고 셀레먀(압디엘의 아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와 그의 비서 바룩을 체포하라고 명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잘 숨겨 주신 후였죠. (메롱! 나 잡아봐라!^^)

* * *

²⁷⁻²⁸ [해설]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바룩이 받아 적은 두루마리를 왕이 불사른 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새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처음부터 다시 쓰거라.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사른 첫번째 두루마리에 적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기록하거라. (여차피 안전가옥에서 할 일도 없을 테니^^)

²⁹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거라.

“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가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이렇게 말했지?

(여호야김) 이게… 무슨 개소리야?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땅을 파괴하고 이 땅의 생명체를 다 죽일 거라고?

[하나님] 정말 너,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³⁰⁻³¹ 좋다, 나 하나님이, 유다 왕, 너 여호야김에 대해 할 말이 뭔지 알고 싶지? 바로 이거다.

“너의 자손 중 아무도 다윗의 왕좌에 올라 통치하지 못할 거다. 네 시체는 매장되지 못한 채 거리에 던져져 낮에는 뜨거운 태양에, 밤에는 얼어붙는 추위에 방치될 거다. 내가 너와 네 자녀들 및 관료들의 파렴치한 죄를 벌할 거다. 내가 전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에게 경고했으나, 그들이 침이나 뱀으며 무시했던, 그 대재앙을 보낼 거란 말이다.”

³² [해설] 예레미야는 새로운 두루마리를 구해 와, 비서 바룩(네리야의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살랐던 모든 내용을 다시 불러줬어요. 그러자 바룩이 그대로 받아 적었죠. 추가된 내용도 꽤 있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37 장

지하 감옥에서

¹⁻² [해설] 시드기야 왕(요시야의 아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여호야김의 아들)을 대신해 유다 땅에 세워 놓은 꼭두각시 왕이었어요.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 및 백성들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에는 하나같이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³ 그러던 중, 시드기야 왕이 여후갈(겔레야의 아들)과 제사장 스바냐(마아세야의 아들)를 통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전갈을 보냈어요.

[시드기야]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제발 간절히 기도해 주시오!

⁴⁻⁵ [해설] 당시 예레미야는 감옥에 수감되기 전이어서, 아직 백성들 가운데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어요. 한편 애굽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진군해 오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갈대아인들은 ‘애굽인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물러갔답니다. (개개개^^)

⁶⁻¹⁰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네가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구나. 유다 왕이 전에 네게 사람을 보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안을 알려달라고 했잖니? 그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거라.

“잘 듣거라. 지금 바로의 군대가 너를 도우러 오고 있다만, 그들은 여기 오래 머물지 않을 거다. 그들은 도착한 후, 곧 자기네 고향 땅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뒤로 돌아갔!^^) 그럼 바벨론인들이 다시 와서 공격을 재개할 거다. 그리고 이 성읍을 함락시켜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 거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바벨론인들이 며칠 안으로 떠날 거다’라는 거짓말로 서로 위안하지 말거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들은 떠나지 않을 거다. 너희를 공격하는 갈대아 군대를 너희가 전멸시킨다 해도, 그래서 그들 진영에 소수의 부상병만 남게 된다 해도, 그 부상병들이 이 성읍을 함락시켜 잿더미로 만들 거다.

* * *

11-13 [해설]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퇴각하던 당시, 예레미야는 개인적인 일을 보러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지역으로 갔는데,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자, 경비대장 이리야(셀레먀의 아들이자 하나냐의 손자)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 ‘당신, 지금 갈대아인에게 투항하려는 거지?’라고 몰아세우며 고발했어요.

14-16 그러자 예레미야가 항변했죠.

[예레미야] 말도 안 되요! 난 갈대아인에게 투항할 생각이 전혀 없소.

[해설] 하지만 이리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를 체포해 경비대에 끌고 갔어요. 예레미야를 보고 격노한 경비대는 예레미야를 때린 후, 서기관 요나단의 집 감옥에 처넣었어요(당시 경비대는 그 집을 감방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지하감옥으로 개조한 물웅덩이에 수감돼 오랫동안 갇혀 있었지요.

17 얼마 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데려오라’고 하명했어요. 왕은 예레미야에게 은밀하게 물었어요.

[시드기야 왕] 혹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있소?

[해설] 그러자 예레미야가 대답했어요.

[예레미야] 물론 있습니다. 전하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18-20 [해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전하께서는 왜 저를 감옥에 가두신 겁니까? 제가 전하나 대신들에게,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바벨론 왕이 전하와 이 땅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전하의 선지자들은 지금 다 어디 있나요? 통촉하여 주소서, 전하! 나의 주인, 나의 임금님이시여! 제발 저를 서기관 요나단 집에 있는 감옥으로 돌려보내지 말아 주소서. 거기 가면 저는 죽는다고요!

21 [해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왕궁경비대 뜰로 이감하라’고 명했어요. 거기서 예레미야는 매일 ‘빵공장 골목’에서 오는 빵을 한 조각씩 배급 받아먹었어요. (어쩌다 다이어트^^) 성읍의 모든 빵이 다 떨어질 때까지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왕궁경비대 뜰에 수감돼 있었답니다.

38 장

감옥에서 왕궁으로

¹[해설]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전하는 말을 스바다(맛단의 아들)와 그다랴(바스홀의 아들), 유갈(셀레마의 아들) 그리고 바스홀(말기야의 아들) 등 네 명의 대신들이 들었어요.

² [예레미야]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나님] 이 성읍에 머무르는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을 거다. 살해당하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다 죽고 말 거다. 하지만 바벨론인에게 투항하는 사람은 목숨을 건질 수 있다.

³ [예레미야]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장담하셨어요.

[하나님] 이 성읍이 바벨론 왕 군대에게 함락되고 말 거다. 바벨론 왕이 이 성읍을 접수하게 될 거란 말이다.

⁴ [해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대신 네 명이 왕에게 말했어요.

[대신들] 전하, 이자를 처형하십시오. 이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자가 지금 이런 말들을 퍼뜨림으로써 백성들뿐 아니라, 성읍에 남아 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자는 백성의 안위에는 전혀 신경도 안 씁니다. 그저 우리를 망치려 들고 있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⁵ [해설] 그 말에 시드기야 왕이 수궁하며 말했어요.

[시드기야 왕] 경들의 뜻이 정 그렇다면, 경들 마음대로 하시오. 경들의 뜻을 감히 내가 어찌 거역하겠소?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인지...^^)

⁶ [해설] 그러자 대신들은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왕궁 경비대 뜰, 말기야 왕자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예레미야의 몸에 밧줄을 매어 내려뜨린 거예요. 그 구덩이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진흙탕에 빠져 있었답니다.

⁷⁻⁹ 왕궁 관리였던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시 왕은 '베냐민 문'에서 국무를 보고 있었는데, 왕궁에 있던 에벳-멜렉이 즉시 왕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에벳-멜렉] 오 나의 주인, 전하시여! 이 사람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일은 중범죄입니다.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어, 굶겨 죽일 생각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거반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성읍에는 뽕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¹⁰ [해설] 그러자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했어요.

[시드기야 왕] 세 사람을 데리고 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시오. (왕의 마음은 갈대^^)

¹¹⁻¹² [해설] 그러자 에벳-멜렉이 세 사람을 데리고 왕궁 의복창고로 갔어요. 거기에서 그는 헌옷 조각을 묶어 하나로 만든 후, 밧줄과 함께 구덩이로, 예레미야에게 내려줬어요.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 외쳤어요.

[에벳-멜렉] 이 현웃 조각을 양쪽 겨드랑이와 밧줄 사이에 두르십시오. (이것이 패당의 원조^^)

[해설] 예레미야가 그의 말대로 하자,

¹³ 그들이 밧줄을 당겨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 올렸어요. 하지만 그후에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왕궁 경비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¹⁴ 얼마 후,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성전 제 3 출입구로 데려오게 했어요.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어요.

[시드기야 왕] 그대에게 물어 볼 게 있소. 짐에게 숨김없이 사실만을 말해야 하오.

¹⁵ [해설] 예레미야가 말했어요.

[예레미야]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전하는 절 죽이실 걸요? 뿐만 아니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전하는 전혀 신경도 안 쓰실 걸요? (협상의 천재, 예레미야^^)

¹⁶ [해설] 그러자 시드기야가 바로 그 자리에서 비밀리에 예레미야에게 맹세했어요.

[시드기야 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짐은 그대를 죽이지 않을 것이요. 또한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에게, 그대를 넘겨주지도 않겠소.

¹⁷⁻¹⁸ [해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이것은 하나님,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네가 바벨론 왕의 장군들에게 투항하면 너도 살고, 이 성읍도 불타지 않으며, 네 가족도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게다. 하지만 네가 바벨론 왕의 장군들에게 투항하지 않으면, 이 성읍은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어가 잿더미가 되고 말 거다. 그들 손아귀에서 벗어날 거란 생각은 꿈에도 말거라.

¹⁹ [해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어요.

[시드기야 왕] 하지만 짐은, 이미 갈대아인들에게 투항한 유다인들이 두렵소. 내가 그들 손에 넘어갔다면 무사하지 못할 거요.

²⁰⁻²² [해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를 안심시켰어요.

[예레미야] 전하가 그들에게 붙잡히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디 제 애길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 전하를 위함입니다. 전하가 목숨을 부지하시도록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계속해서 투항을 거부하신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으로 이런 광경을 그려 보거라. 유다 왕 왕궁에 남아 있는 여인들이 다 바벨론 왕 대신들에게 끌려가면서 하게 될 말을 상상해 보거라.

(왕궁 여인들) 그들이 전하께 거짓말을 하다니요!

소위 친구라는 자들이 전하를 속이다니요!

전하는 진흙탕에 무릎까지 빠진 신세가 되었는데

전하의 그 잘난 친구들은 다 어디 있나요?

²³ [하나님] 그들이 너희 처자식을 잡아다 갈대아인들에게 넘겨줄 거다. 설마, 너, 너만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바벨론 왕이 널 사로잡은 후 이 성읍을 잿더미로 만들게다.

²⁴⁻²⁶ [해설] 그러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어요.

[시드기야 왕]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발설하지 마시오. (소심하기는...^^) 그대에게 뭐가 유익할지 알아서 처신 잘 하리라 믿소. 만약 짐이 그대와 대화를 나눴단 소문을 대신들이 듣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요.

(대신들) 그대와 전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고하시요. 그대가 무슨 애길 했고, 전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말이요. 조금이라도 숨기는 게 있다면, 목이 날아갈 줄 아시오.

[시드기야 왕] 혹여 그런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요.

“나는 전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것뿐이요. 다시 나를 요나단의 감옥으로 돌려보내 거기서 죽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아뢰었다고요.”

²⁷ [해설] 아니나 다를까, 대신들 전원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물었어요. 예레미야는 왕이 시킨 대로 대답했어요. 그제서야 그들은 심문을 멈췄어요. 아무도 왕과의 대화를 엿들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²⁸ 그러고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왕궁 경비대 뜰에 계속 갇혀 있었답니다.

39 장

비보(悲報)

¹⁻² [해설] 유다 왕 시드기야 9 년 10 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전군(全軍)을 이끌고 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러다가 시드기야 왕 11 년 4 월 9 일, 그들은 마침내 성읍을 뚫고 들어왔지요.

³ 바벨론 장교 전원은 성읍에 들어와 중문(Middle Gate)에 통치위원회를 세웠어요. 통치위원회는 네르살사레셀(심마갈 출신), 느부사스반(랍사리스 출신), 네르갈사레셀(랍막 출신), 그리고 바벨론 왕의 모든 대신들로 구성되었답니다.

⁴⁻⁷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휘하의 남은 군사들은 이 광경을 보고 필사적으로 도망쳤어요. 야심한 틈을 타, 왕의 정원길로 도망쳐 두 성벽 사이 문을 통과, 요르단 계곡행 광야로 달아난 거예요. 하지만 바벨론 군대는 그들을 추격, 여리고 광야에서 시드기야를 생포했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를 붙잡아 하맛 지방 리블라에 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그 자리에서 시드기야를 즉결심판했어요.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귀족들도 다 죽였지요.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에게 이 살육의 현장을 다 목격시킨 후, 그의 눈을 멀게 한 다음, 그를 사슬로 묶어 바벨론에 끌고 갔어요.

8-10 한편, 바벨론인들은 유다의 왕궁과 성전 및 민가를 다 잣더미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 예루살렘 성벽까지 무너뜨렸죠. 바벨론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느부갓네살, 느부사스반과 함께 느부브라더스^^)은 성읍에 남아 있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투항한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 갔어요. 소수의 극빈자들만 유다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이랑 논밭을 가꾸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거예요.

* * *

11-12 [해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에 대한 특명을 내렸어요. [느부갓네살] 예레미야를 잘 주시하시오. 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지고 잘 돌봐 주시오. 그가 원하는 건 뭐든 다 들어 주시오. (백지수표^^)

13-14 왕의 경호대장인 느부사라단은 느부사스반(랍사리스 출신)과 네르갈사레셀(랍막 출신) 및 바벨론 왕의 최고지휘관들 전원을 왕궁 경비대 뜰로 보내, 예레미야를 데려오게 했어요. (초호화 의전, 국민급 대우^^) 그리고 그다랴(아히감의 아들이자 사반의 손자)에게 맡겨 그를 집에 데려다 주게 했어요. 이로써 예레미야는 다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 * *

15-18 [해설] 전에 예레미야가 왕궁 경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었어요. [하나님] 가서 에티오피아 사람 예벳-멜렉(일명 패딩 공신^^)에게 전하거라. 그에게 이렇게 이르거라. (예레미야)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전에 내가 이 성읍에 대해 얘기한 대로 다 시행할 거다. 이것은 회소식이 아닌 비보(悲報)란다. 그 일을 네가 눈앞에서 목격하게 될 거다. 하지만 그 패망의 날, 내가 너만은 구해 주마. 네가 두려워하는 그들 손에 널 넘기지 않오마. 아무렴, 내가 널 반드시 구해줄 게야. 네 목숨을 지켜 주마. 그곳을 무사히, 안전하게 벗어나게 해 주마. 왜냐고? 그건 네가 날 신뢰했기 때문이지!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40 장

어디든 그대가 원하는 곳에 가 사시오

1 [해설]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 준 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요.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만나러 올라왔을 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잡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무리들과 함께 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2-3 경호대장은 예레미야를 지목해 말했어요.

[느부사라단] 그대의 하나님이 이곳에 멸망을 선포하시더니, 과연 그 경고대로 행하셨구료. 이젠 그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결과 그대들이 지금 이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요. (이 정도면 거의 이스라엘 선지자급^^)

⁴⁻⁵ 하지만 나는 오늘 그대, 예레미야를 석방시켜 주려 하오. 그대의 손에서 사슬을 풀어줄 거란 말이요. 그대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길 원한다면 같이 갑시다. 내가 잘 돌봐 주겠소. 하지만 나랑 바벨론으로 가길 원치 않는다면, 그 또한 괜찮소. 보시오, 이 광활한 땅이 그대 앞에 펼쳐져 있지 않소? 그대 맘대로 하시오. 어디든 그대가 원하는 곳에 가서 사시오. 그대의 집에서 살고 싶으면 그다랴(아히감의 아들이자 사반의 손자)에게 돌아가시오. 바벨론의 국왕께서 그다랴를, 유다 여러 성읍의 총독으로 임명하셨다오. 그러니 가서 그다랴랑, 백성들이랑 함께 살아도 좋소. 아니면 그대가 원하는 곳 어디로 가도 좋으니 그대 마음대로 하시오.

[해설] 그리고 경호대장은 예레미야에게 여행길에 먹을 음식과 작별 선물을 주면서 그를 떠나보냈어요.
⁶ 이에 예레미야는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아히감의 아들)에게 가, 그다랴와 그 땅에 남은 백성들과 함께 살았답니다.

땅을 잘 일궈 주시오

⁷⁻⁸ [해설] 들판에 숨어 있던 유다의 군대 지휘관들과 군사들은 ‘바벨론 왕이 그다랴(아히감의 아들)를 그 땅의 총독으로 임명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극빈자들을 그의 손에 맡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다랴를 만나러 미스바로 갔어요. 그들은 이스마엘(느다냐의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가례아의 두 아들), 스라야(단후멧의 아들), 느도바 사람 에배의 아들들, 여사냐(마아가 사람의 아들) 및 그들의 부하들이었어요.

⁹ 그다랴(아히감의 아들이자 사반의 손자)가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약속했어요.

[그다랴] 갈대아인 관리들을 두려워할 것 없소.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면 만사형통할 것이요.

¹⁰ 나는 여기 미스바에 머물면서, 갈대아인들이 오면 그들에게 그대들을 변호해 주리다. 여러분이 이 땅을 책임지고 잘 일궈 주시오. 포도주도 만들고, 여름 과일도 수확하고, 올리브유도 짜서 그걸 항아리에 담아 잘 저장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성읍에 가 정착해 살면 되오.

¹¹⁻¹² [해설] 한편 모압, 암몬, 에돔 및 다른 나라들로 도주한 유대인들이 ‘바벨론 왕이 유다에 소수의 생존자들을 남겨뒀, 총독 그다랴(아히감의 아들이자 사반의 손자)의 관리하에 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각기 흩어졌던 곳에서 모두 유다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유다로 돌아온 그들은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 가, 대량의 포도주를 빚는 일과 여름 과일 수확하는 일을 도왔어요. (경제가 돌기 시작^^)

* * *

¹³⁻¹⁴ [해설] 어느 날, 요나단(가례아의 아들)이 오지에 숨어 있던 군대 장교들과 함께, 미스바로 그다랴를 찾아와 말했어요.

[요나단과 장교들] 총독님, 그거 아십니까? 암몬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을 살해하라고 이스마엘(느다냐의 아들)을 보냈답니다.

[해설] 하지만 그다랴(아히감의 아들)는 그들 말을 믿지 않았어요.

¹⁵ 그러자 요나단(가레아의 아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를 은밀한 곳으로 데려가 말했어요.

[요나단] 제가 가서 이스마엘(느다냐의 아들)을 죽이게 해 주십시오. 아무도 몰래 말입니다. 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이스마엘이 총독님을 죽이고 이 땅을 혼란에 빠뜨리는 걸 보고 있어야 합니까? 총독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망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¹⁶ [해설] 하지만 그다랴(아히감의 아들)는 요나단(가레아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다랴] 그러지 마시오. 그건 내가 금하겠소. 그대가 이스마엘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구려. (마냥 사람만 좋아가지고는...^{ㄷㄷ})

41 장

1 급 살인

¹⁻³ [해설] 7 월이 되자, 이스마엘(느다냐의 아들이자 엘리사마의 손자)가 도착했어요. 그는 왕족 혈통으로, 왕실 고위관직을 맡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다랴(아히감의 아들)를 만나러 부하 10 명을 거느리고 미스바에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같이 식사하던 중, 이스마엘과 그의 부하 10 명이 갑자기 일어나 그다랴를 때려 눕혔지 뭐예요? 바벨론 왕이 그 지역 총독으로 세웠던, 바로 그 그다랴를 죽인 거예요. 이스마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다랴와 함께 미스바에 있던 유대인들과 그곳에 주둔해 있던 갈대아 군인들도 다 죽였어요.

⁴⁻⁵ 그다랴가 살해당한 다음 날-아직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를 때-세겔, 실로, 사마리아 등지에서 80 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은 턱수염을 밀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후, 소제(곡식제물)와 유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순례자들이었어요.

⁶ 이스마엘(느다냐의 아들)이 미스바에서 나와, 과장되게 울며 그들을 영접했어요. (헐리우드 액션^^) 이스마엘은 순례자들에게 인사를 건넌 후, 그들을 성읍 안으로 맞아들였어요.

[이스마엘] 성읍 안에 들어오셔서 그다랴(아히감의 아들) 총독님을 만나 보시죠.

⁷⁻⁸ [해설] 그런데... 순례자들이 성읍 안에 들어서자 마자, 이스마엘(느다냐의 아들)과 그의 부하들은 순례자들을 학살해 시체를 물웅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하지만 순례자들 중 10 명은 가까스로 도망쳐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이스마엘과의 협상을 시도했죠.

[순례자 10 명] 우릴 죽이지 말아 주세요. 우리 밭에는 밀, 보리, 올리브유와 꿀을 감춰둔 비밀창고가 있습니다. (스위스 계좌^^)

[해설] 그러자 이스마엘은 다른 순례자들과 달리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뭘니뭘니 해도 머니가 중요^^)

⁹ 여러분, 이스마엘이 물웅덩이에 순례자들의 시체를 던져 넣은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건 바로 그다랴를 시해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함이었어요. (시체로 시체를 은폐^{ㄷㄷ}) 그 물웅덩이는 이전에 유다 왕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아사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세운 것이었는데, 그랬던 물웅덩이가 이제는 이스마엘(느다냐의 아들)이 학살한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물웅덩이가 시체웅덩이로^{ㄷㄷ})

¹⁰ 그후 이스마엘(느다냐의 아들)이 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느부사라단(바벨론 경비대장)이 포로로 그다랴에게 맡겨 놓았던 공주들을 포함해 미스바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죄수로 삼았지 뭐예요? 그러더니 결국엔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 암몬에 넘기려 했어요.

¹¹⁻¹² 요하난(가레아의 아들)과 그와 함께 한 모든 군대 장교들은 이스마엘(느다냐의 아들)이 저지른 만행을 전해 듣고, 이스마엘(느다냐의 아들)을 잡으러 즉시 출동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연못에서 이스마엘을 찾아냈어요.

¹³⁻¹⁵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데려온 포로들은 모두 요하난(가레아의 아들)과 군대 장교들을 보고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기뻐어요. 그렇게 포로들은 모두 요하난(가레아의 아들)의 지휘하에 고향 땅을 향해 갔어요. 하지만 이스마엘(느다냐의 아들)과 부하 8명은 요하난을 피해 암몬 땅으로 도주했죠.

¹⁶ 그러자 요하난(가레아의 아들)과 장교들은, 이스마엘(느다냐의 아들)이 그다랴(아히감의 아들)를 살해한 후 미스바에서 잡아간 포로-남자, 여자, 어린이, 환관 등-전원을 기브온에서 데려왔어요.

¹⁷⁻¹⁸ 그렇게 그들은 갈대아인을 피해 애굽으로 가다가, 도중에 게롯김함(베들레헬 근처)에서 잠깐 쉬었어요.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지역 총독으로 임명했던 그다랴(아히감의 아들)를 이스마엘(느다냐의 아들)이 살해한 것’에 대해 갈대아인들이 보복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42 장

네가 두려워하는 일이 닥칠 거다

¹⁻³ [해설] 요하난(가레아의 아들)과 여사냐(호사야의 아들)를 필두로, 모든 군대장교들이 온 백성(지위고하를 막론하고)과 함께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와 말했어요.

[사람들]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부디 들어주십시오. 우릴 위해 선지자님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우린 이렇게 극소수만 살아남았습니다. 선지자님의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⁴ [해설] 그러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했어요.

[예레미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청하신 대로 제가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전해드리겠습니다.

5-6 [해설]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어요.

[사람들] 만약 하나님께서 선지자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실하고 신실하신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좋은 싫든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무렴요, 저희를 믿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뭐든 다 행할 것입니다.

7-8 [해설] 그로부터 10 일 후,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요하난(가레아의 아들)과 장교들, 그리고 백성들(지위고하를 막론하고)을 다 불러 모았어요.

9-12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예레미야] 다음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드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만약 너희가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가 너희를 세워 주마. 너희를 이 땅에 심어 넘어지지 않게 해 주마. 너희를 잡초처럼 뽑아버리지 않겠단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으로 인해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구나. 너희는 바벨론 왕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단다.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바벨론 왕이 무슨 짓을 하건, 내가 너희 편이 되어 너희를 구원하고 구출해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물 붓듯 부어 주마. 그게 다가 아니지. 바벨론 왕도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거란다. 그가 너희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 줄 거야.

13-17 [예레미야] 그러니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싫어! 우린 여기서 안 살 거야, 우린 애굽으로 갈 거야. 거기엔 전쟁도 없고, 침략군도 없잖아? 평화롭고, 먹을 것도 풍부하잖아? 우린 애굽에 가서 살 거야’란 말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란 말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여,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어하는 이들이여,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기울이세요.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희가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살기로 작정했다면,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전쟁이 애굽까지 너희를 쫓아갈 거다. 너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굶주림이 애굽까지 너희를 따라갈 거다.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거다!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 눌러 사는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음당할 거다. 살해당하든, 굶어 죽든, 병들어 죽든, 어떻게든 다 죽게 될 거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다.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을 거다! 아무도 내가 보낼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거란 말이다!

18 [예레미야]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노와 분노를 못 이겨, 예루살렘 주민들을 싸그리 몰아냈던 것처럼, 애굽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다. 너희는 결국 저주받고, 욕먹고, 조롱당하고, 놀림감이 될 거다. 그리고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하게 될 거다.

19-20 [예레미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응답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망상에 빠져 있다’고 경고하고 싶군요. 여러분이 지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여러분이 저에게 ‘우릴 위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빠짐없이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면서 저를 여러분의 하나님께 보내지 않았습니까?

21-22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해드린 건데, 이제 와서 한 마디도 순종하려 들지 않다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에게 닥칠 일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여러분은 살해당하든, 굶어 죽든, 병들어 죽든, 어떻게든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그 ‘멋진’ 나라에서 다 죽게 될 거란 말입니다.

43 장

죽음! 포로! 대학살!

1-3 [해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다 전하자, 아사랴(호사야의 아들)와 요하난(가레아의 아들)이 ‘잘난 척 끝판왕들(자칭 VIP 들)’의 세력을 뒤에 업고 예레미야에게 말했어요.

[아사랴와 요하난] 거짓말쟁이로군! 우리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 정착해 살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라 하셨을 리가 없소! (답정너, 이럴 거면 왜 물어 뵈냐고?^^) 바룩(네리야의 아들)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게 틀림없소! 그가 당신을 부추겨 우리 뜻을 거스르게 만든 거란 말이오. 바벨론 사람들이 손에 놀아나고 있는 바룩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몰고 있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있단 말이오.

4 [해설] 요하난(가레아의 아들)과 장교들, 그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다 한통속이 되어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정착해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5-7 요하난(가레아의 아들)과 군대장교들은 느부사라단(바벨론 왕실의 경호대장)이 그다랴(아히감의 아들이자 사반의 손자)의 휘하에 맡긴 모든 백성들과 공주들, 그리고 멀리 흩어졌다 다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심지어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네리야의 아들)까지 불러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놓고 거역하면서 애굽 땅 다바네스 성읍으로 갔어요.

8-9 그들이 다바네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하나님] 큰 돌 몇 개를 가져다가 진흙으로 덧칠하거라. 진흙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 왕의 전용건물 방면 포장도로 근처에 있는 길 갖다 쓰거라. 반드시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 한다.

10-13 (예레미야) 다음은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이오.

[하나님] 잘 보거라! 내가 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올 거다. 여기에 파문은 이 돌들 위에 느부갓네살이 왕좌를 세우고 장막을 펼칠 거다. 그가 와서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다. 그가 받은 사명대로, 그는 모든 애굽인들에게 예정된 운명-죽음, 유배, 학살-을 안겨줄 거다. 그가 애굽 신의 사당들을 잿더미로 만들 거다. 그 안의 신상들을 불사르거나, 전리품으로 수거할 거다. 목동이 자기 겉옷의 이를 잡듯,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탈탈 털어 갈 거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그곳을 떠날 거다. 그가 애굽의 ‘태양의 집’에 있는 종교의식용 첨탑(obelisks)을 무너뜨리고, 애굽의 신전들을 불살라 거대한 모닥불을 피울 거다.



Obelisk of Pharaoh Senusret I, Al-Maalla area of Al-Matariyyah district in modern Heliopolis, Egypt
(자료 출처: 위키피디아)

44 장

운명공동체

1-6 [해설] 다음은 당시 애굽 땅에 살던 모든 유다 사람-믹돌, 다바네스, 뇽, 바드로스 땅에 정착해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내려진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 내린 끔찍한 재앙, 너희 눈으로 직접 다 봤지? 거기 남아 있는 게 뭔지 한번 봐! 폐허로 변한 유령도시, 연기 자욱한 잿더미! 이 모든 게 그들이 악한 길을 따라 최신 유행 우상들-그들이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나 전혀 알지 못했던 듣보잡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경배함으로써 내 진노를 돋우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지.

하루도 빠짐없이 난 아침부터 밤까지 종일 너희를 따라다녔어. 너희에게 그 모든 선지자들, 나의 종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간청했다고!

“제발, 제발 이러지 마. 내가 그토록 혐오하는 우상들이 득실대는 그 역겨운 시궁창에서 바보짓 좀 하지 말란 말야.”

하지만 내 말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든? 악을 행한 걸 참회하면서 그 ‘듣보잡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일을 그만 둔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냐고? 그러니 내가 노할 수밖에.... 유다 성읍들이랑 예루살렘 거리에 나의 불타는 진노를 쏟을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그곳을 폐허로, 황무지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말야! 그래서 그곳이 여전히 잿더미로, 황무지로 방치돼 있는 거야!”

7-8 [예레미야] 하나님,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라오.

[하나님] 너희 도대체 왜 남녀노소 가릴 것없이, 스스로를 생명의 길에서 끊어내는 거니? 도대체 왜 자신을 유다의 생명줄기에서 쳐냄으로써 스스로 고립되어 버림받고 있난 말야. 왜 너희가 살려고 온

땅, 애굽에서 ‘듣보잡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 보란듯이 내 화를 돌우는 거야? 왜 자신을 저주의 심볼로, 온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어 자멸의 길을 가는 거지?

9-11 어쩔 이리 빨리 너희 조상들의 악한 삶을 잊을 수 있니? 너희와 너희 아내 등 너희뿐 아니라, 유다 왕들과 왕의 아내들이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보란듯이 행한 그 악한 일들을 벌써 다 잊은 게야? 내가 너희와 너희 부모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 교훈, 내가 너희에게 직접 들려준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후회도, 아무런 가책도,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게야? 그러니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릴 수밖에….

11-14 잘 보거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단다. 유다와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자는 다 없애기로 작정했단 말이다. 유다에 남은 자들이긴, 애굽으로 이민 가는 자들이긴, 다 끝장이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거다.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살해당하거나 굶어 죽게 될 거다. 너희가 그렇게 욕을 먹으며, 조롱당하며, 놀림당하며, 저주받아 죽게 될 거다. 애굽으로 이민 간 자들도 예루살렘이랑 똑같이 대해 주마. 학살과 기근과 질병을 내려 주마. 유다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아, 너희가 아무리 고향이 그리워도 다시 유다로 돌아오지 못할 거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소수의 도망자들밖에는 아무도 유다로 돌아오지 못할 거란 말이다!

여신에게 바칠 빵을 굽다

15-18 [해설] 자기 아내가 ‘듣보잡 신들’에게 번제물을 바쳐왔다는 걸 아는 남자들이, 많은 여인들과 작당해 예레미야를 찾아왔어요. 애굽 바드로스에 사는 유대인 대부분도 함께 왔지요.

[사람들] 당신이 말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요? 우린 지금 당장 하늘 여왕님께 희생제물을 바칠 거요. 그 옛날 호시절에 우리 조상들-우리 임금님들이랑 고관백작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던, 그 전통을 따를 거란 말이요. 그땐 참 팔자 좋았는데…. 먹을 것도 풍부하고, 살림살이도 넉넉하고, 불행한 일도 없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하늘 여왕님께 희생제물과 전제물(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역자 주) 바치기를 멈추자 마자, 모든 게 엉망이 되기 시작했지. 그때부터 대학살과 기근이 끊이질 않았다고!

19 [해설] 그러자 여인들이 맞장구쳤어요.

[여인들] 맞아요. 정말이에요! 우린 계속해서 하늘 여왕님께 희생제물이랑 전제물을 드릴 거예요. 우리 뒤에 우리 남편들이 든든히 버티고 있는 걸요? (그걸 뺀이라고…^^) 우리가 여신들한테 바칠 빵을 굽고 전제물을 부어 드리는 걸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열녀들 나섰군^^)

* * *

20-23 [해설] 그러자 예레미야가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그들에게 큰소리로 말했어요.

[예레미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 왕들과 정부관료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다 함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바쳤던 제물에 대해 설마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생각하는 거요? 주님은 정확히 다 알고 계시다요. 주님은 이에 대해 질리셨다요. 여러분의 이 악행과 역겨운 행위를 못 참으시고 결국 여러분의 땅을 황무지로, 죽음의 골짜기로, 무시무시한 괴담으로, 유령도시로 만드신 거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듣보잡 신’에게 제물 바치는 죄를 하나님께 저질렀기 때문에 이러한 패망이 닥친 거란 말이오! 여러분은 주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소. 한번도 주님 분부대로 살지 않았지. 그렇게 주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 무시했잖소?

24-25 [해설] 이번엔 예레미야가 특별히 여인들을 향해 말했어요.

[예레미야] 잘 들으시오. 유다에서 이곳 애굽으로 이주해 와 살고 있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오.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오.

[하나님] 너희 여인들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더니만, 과연 그대로 행하고 있구나.

(여인들) 우린 ‘하늘 여왕님께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바치겠다’고 한 맹세를 계속 지킬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릴 못 말린다고요! (못 말려->고성능 드라이어 필요^^)

25-27 [하나님] 좋다, 계속 해 보거라. 너희 맹세를 실킵 지켜보거라. 하지만 이에 대해 나 하나님이 하는 말도 들어야 할 게다. 유다에서 이곳 애굽으로 이주해 와 사는 너희들아! 내가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걸고, 나의 존재 전부를 걸고 맹세하마. 나 하나님이 말한다. 다시는 애굽 어디에서도, 어느 누구도, 내 이름을 걸고 ‘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이라고 맹세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를 다 멸망시켜 버릴 거니까. 좋은 시절은 영원히 물 건너갔구나!

27-28 애굽에 내려와 사는 유대인들? 다 학살을 당하거나 굶어 죽을 거다! 그렇게 그들이 완전히 멸절될 거란 말이다! 애굽에서 살아남아 유다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건 극소수에 불과할 거다. 열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애굽에 가 살겠다고 유다를 떠난 그 오합지졸이, 그때에야 ‘누가 실세인지’ 깨닫게 될 게다.

29-30 그 증거를 보여 주마. 내가 다름아닌 바로 이곳에 징벌을 내려, 너희에게 선포했던 재앙이 사실임을 알게 해 주마. 재앙의 싸인은 이것이다. 내가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 대적에게 넘겨줘, 죽임을 당하게 할 거다. 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를 뒤쫓던 그의 대적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줬던 것처럼 말이다.

45 장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1 [해설] 다음은 여호야김 4년 어느 날,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받아 적은 내용이에요.

2-3 [예레미야] 바룩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란다. 네가 ‘정말 못 살겠네! 하나님이 내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시는구나. 난 완전히 지쳐버렸어. 정말 끝이 안 보이네(노답^^)’라고 말한단만,

4-5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단다.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렴. 내가 전에 세웠던 길 이젠 허물 거란다. 내가 전에 심었던 길 이젠 뽑을 거란다. 세상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할 거란다. 그러니 너도 원대한 계획 세울 생각일랑 말거라. 사태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될 테니…. 하지만 걱정 마! 이 모든 상황에서도 난 널 끝까지 지켜, 네 생명을 보존해 줄 테니….

46 장

아무리 약을 구해 봤자

¹ [해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불경건한 나라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²⁻⁵ 먼저, 애굽과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 4 년에 유브라테강 유역 갈그미시에 진을 쳤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했었지요.

[하나님] 무기를 들어라!

전진하라!

말에 마구를 채워라!

말 안장에 올라타라!

전투대형을 갖추라! 투구를 써라!

창을 예리하게 갈고, 완전무장해라!

그런데 웬 일이지? 보이는 거라곤

군사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모습뿐이잖아?

대열을 이탈해 달아난 병사들, 여기저기 숨느라 정신이 없구나.

군사들이 겁에 질려 있구나.

이리저리 도망가는구나.

무턱대고 달리는구나.

충체적 난관, 충체적 혼란, 충체적 위험이로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⁶ [하나님] 아무리 빠른 자도 벗어나지 못할 거다.

아무리 강한 군사도 탈출하지 못할 거다.

북쪽 나라, 유브라테강을 따라가던 그들,

비틀거리다 발을 헛디더 넘어질 거다.

⁷⁻⁹ 여기, 범람하는 나일강과 같은 자가 누구지?

넘쳐흐르는 나일강과 같은 자가 누구야?

오, 애굽이 범람하는 나일강 같구나.

애굽이 넘쳐흐르는 나일강 신세로구나.

‘내가 온 세상을 접수할 거야.
성읍들과 사람들을 남김없이 쓸어버릴 거야’라던 애굽이...
뛰어라, 말들아!
달려라, 전차들아!
진격하라, 구스와 붓에서 방패 들고 온 병사들아!
루드에서 온 군사들아!
활과 화살을 능숙하게 다루는 궁수들아!
¹⁰ 하지만 오늘은 너희의 날이 아니란다.
오늘은 주, 바로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날이란다.
내가 적들과 전쟁을 치르는 날!
내 칼이 내 대적을 죽이는 날!
내 검이 마침내 보복하는 날!
나, 주, 천군천사의 하나님이
위대한 북쪽나라 유브라데강가에서
적들을 제물삼아 제단에 어마어마하게 높이 쌓는 날!
¹¹⁻¹² 오, 처녀 딸 애굽아,
길르앗산에 올라가 치료제 연고를 구해 오거라.
하지만 네가 아무리 약을 구해 봤자
네 병을 치료해 줄 약은 없을 게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싸우다 쓰러진 군사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일 때
은 세상이 네 고뇌에 찬 울음소리를 듣게 될 게다.
네 통곡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질 게다.

애굽 군대가 뱀처럼 스프룩

¹³ [해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러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요.

¹⁴ [하나님] 애굽에게 전하거라. 므돔에 경고하거라.

넵과 다바네스에 경계경보를 발하거라.

“일어나라! 전투준비를 갖추어라! 전쟁이다!”

¹⁵⁻¹⁹ 너희의 황소 신 아피스가 왜 달아나냐고?

하나님께서 그를 뒤쫓으시기 때문이지.

너희 오합지졸 군대가 풍비박산 날 게다.

병사들 사이에 이런 말이 퍼질 게다.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치자.
 고향으로 도망가 목숨을 부지하자.’
 고향에 돌아간 그들이 바로에게 붙여 줄 별명,
 그건 바로 ‘불운의 허풍쟁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 이상,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왕의 선포다! 이름하여 천군천사의 하나님!
 저기 한 정복자가 오는구나. 산들 사이 우뚝 솟은 다불산처럼, (군계일학^^)
 바다에서 솟아난 갈멜산처럼...
 짐을 꾸려라, 너희 애굽의 귀염둥이 딸들아!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테니...
 멤피스가 폐허로 변하겠구나.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로 변하겠구나.
 20-21 세상에, 이럴 수가! 그렇게 매끈하고 아름답던 암소 애굽이 (수퍼모델 암소^^)
 북쪽에서 온 쇠파리 떼의 공격을 받다니!
 애굽이 사들인 용병들이 애굽을 방어하려 버티고 있다만,
 잘 먹어 튼실한 송아지들처럼 버티고 있다만,
 그들도 목숨이 위태롭게 되면
 하나같이 겁에 질려 도망가고 말 걸?
 전세가 불리해지면
 하나같이 도주하고 말 걸?
 22-24 적군이 들이닥치면
 애굽은 뱀처럼 스르륵 도망치고 말 걸?
 나무꾼이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듯
 적군이 도끼를 휘두르며 애굽에게 달려들 걸?
 적군이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말 걸?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애굽에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거대한 메뚜기 떼처럼 들이닥친
 헤아릴 수없이 많은 침략자들!
 북쪽에서 온 파괴자들에게 겁탈당한 딸 애굽이
 더할 나위없이 황폐해지겠구나.
 25-26 [예레미야]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오.

[하나님] 지켜보거라! 내가 테에베의 신 아몬에게 내릴 재앙을! 애굽의 우상과 왕들, 바로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릴 재앙을! 그들을 죽이러 온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에게 내가 애굽을 넘겨줄 거다. 애굽은 천년이나 되보할 거다. 언젠가는 그곳에도 사람들이 다시 살긴 하겠지만….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 * *

27-28 [하나님] 하지만 너, 사랑하는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할 필요없단다.

이스라엘아, 너는 걱정할 게 없단다.

고개를 들거라! (고개 숙인 남자^^) 내가 그 먼 나라에서 널 구해 낼 테니….

내가 네 아이들을 유배지에서 데려올 테니….

야곱이 다시 회복되게 해 주마.

순풍에 돛 단 듯 형통하게 해 주마. 그렇게 안정을 되찾게 해 주마.

아무렴, 사랑하는 나의 종 야곱아, 넌 두려워할 필요 없어.

잊지 마, 내가 네 편이란 걸….

널 쫓아냈던 그 모든 불경건한 나라들?

이젠 내가 끝장내줄 거야.

하지만 너는 끝장내지 않을 거란다.

아직 네게 취할 조치가 남아 있긴 하다면….

내가 널 징벌은 하겠지만, 그건 공정한 벌이란다.

그래, 아직 네게 취할 조치가 남아 있단다.

47 장

블레셋 패망의 날

1-5 [해설] 바로가 가사를 공격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블레셋에게 주신 메시지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이오.

[하나님] 보아라! 북쪽 나라의 수위가 높아지는구나.

홍수를 만난 강물처럼 불어나는구나.

급류가 땅을 강타해 성읍과 주민들을 쓸어버리는구나. (급류타기^^)

겉에 질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모든 집의 문마다, 창문마다 통곡소리가 흘러나오는구나.

천둥 같은 말발굽소리,

전차가 달리는 소리, 바퀴 부딪는 소리가 쫓전을 때리는구나.

두려움에 낮이 나간 아버지들,
 아기들을 안고 뛰지도 못하는구나.
 그날은 바로 블레셋 패망의 날, 온전한 멸망의 날,
 두로와 시돈이 절망에 빠지는 날!
 나 하나님께서 블레셋인들을,
 그레데 섬에서 살아남은 그들을 끝장내는 날!
 삭발 당한 가사, 삶은 계란처럼 대머리가 되었구나. (삶은? 계란!^^)
 말문이 막힌 아스글론, 막대기처럼 굳어버렸구나.
 다리가 얼어붙어 꼼짝 못하는 너희 (얼음 땡^^)
 도대체 언제까지 허우적거리고 있을 테냐?
⁶ 오, 나 하나님의 검이여!
 네가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하려느냐?
 언제나 네 칼집으로 돌아가려느냐?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니? 이제 철수명령을 내릴 만하지 않니?
⁷ 하지만 나 하나님이 공격을 명하는데
 나의 검이 어찌 그만둘 수 있을까?
 아스글론과 해변지역을 다 베어 쓰러뜨리라고
 내가 명했는데…?

48 장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치거라!

¹⁻¹⁰ [예레미야]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 주신 메시지라오.
 [하나님] 느보가 망했구나! 완전히 패망했구나!
 기랴다임이 치욕과 패배를 당하고
 철통 요새가 두더지산으로 전락했구나.
 모압의 영광이 먼지와 재로 변했구나.
 음모자들이 헤스본의 멸망을 도모하는구나.
 (음모자들) 그래, 우리가 지도에서 모압을 아주 없애 버리자.
 [하나님] 미치광이 성읍이 습격당해 꼼짝 못하는구나.
 살육이 끝날 줄 모르는구나.
 들어 보거라! 호로나임의 울부짖음을!

(호로나임 사람들) 망했네, 망했어. 폭삭 망했네!
 [하나님] 모압이 이렇게 풍비박산 날 거다.
 모압의 울부짖음이 소알까지 선명히 들리는구나.
 루히의 오르막길에서 흐느낌이 들리는구나.
 호로나임의 내리막길에서
 상실의 곡성, 파멸의 곡성이 들리는구나.
 오, 목숨을 건지고 싶거든 도망치거라!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치거라.
 광야에서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목숨을 건져 보거라.
 철옹성벽과 막대한 자금을 신뢰하던 너희,
 지금 와서 그딴 게 무슨 소용이니?
 너희의 그 잘난 신, 그모스도 끌려갈 거다.
 그모스의 제사장들, 사당 종사자들과 함께...
 파괴자가 들이닥쳐 성읍을 무너뜨릴 거다.
 건재한 성읍은 하나도 없을 거다.
 골짜기마다, 들판마다 다 황무지가 될 거다.
 드넓은 목초지들이 다 황폐해질 거다.
 내가 말한 그대로...
 모압 땅에 소금을 뿌려라!
 다시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해라!
 모압의 성읍들, 다 유령도시로 변할 거다.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일에 태만한 자들,
 전심으로 칼을 쓰지 않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거다.
 11-17 뭐든 날로 먹으려 했던 모압 (생식 선호^^)
 오뉴월 햇살 아래 개처럼 게으르기 짝이 없었지.
 생계를 위해 일한 적도,
 고생을 해본 적도,
 성장하고자 애쓴 적도,
 땀 흘려 일한 적도 없었어.
 하지만 그건 다 지나간 과거!
 이제 내가 모압에게 힘든 노동을 시켜 주마.
 고된 노동의 세계에서 모압이 정신 차리게 해 주마. (참교육^^)
 그땐 모압의 망상이 산산조각 나겠지.
 이스라엘이 한때 숭배했던 송아지 우상,

벤엘에 있던 그 송아지 우상으로 인해 수치를 당했듯
 모압도 그모스 신으로 인해 수치를 당할 거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말할래?
 (모압인들) 우리가 제일 세! 다 나와! 세상 누구든 때려눕힐 수 있다구!
 [하나님] 하지만 모압의 파괴가 벌써 시작됐는 걸?
 모압의 젊은 정예군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걸?
 이것이 바로, 왕의 선포란다.
 이름하여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선포!
 그렇다. 모압의 멸망이 초읽기에 들어갔구나.
 모압을 겨냥한 재앙의 미사일이 발사됐구나. (지대공 미사일^^)
 모압의 친구와 이웃들이여, 모압을 위해 울어라!
 모압의 명성이 얼마나 높았는지 익히 아는 자들이여!
 이렇게 애곡해라.
 (모압의 친구들) 이쭈시개처럼 두 동강나버렸구나!
 그토록 강력했던 모압의 홀(scepter)이!
 그토록 막강했던 모압 왕실의 지휘봉이!
 18-20 [하나님] 교만하게 우쭐대던 디본의 미녀들이여! (미쓰 디본 진선미^^)
 이제 그만 높은 말에서 내려오거라. 내려와 개똥 위에나 주저앉거라.
 모압의 파괴자가 곧 들이닥쳐
 안전하고 평온했던 너희 집을 다 파괴될 테니...
 아로엘의 응석받이 여인들이여! (공주병 1, 2, 3 워^^)
 길거리로 나가
 피난민들을 인터뷰해 보거라.
 그들에게 물어보거라. “무슨 일이에요? 어찌다 이렇게 된 거죠?”
 모압은 이제 수치스러운 과거,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로 기억될 거다.
 애곡하여라, 울부짖어라, 두 눈이 툭툭 붓도록! (쌍꺼풀 실종^^)
 아르는 강을 따라 이 비운의 소식을 전하거라.
 세상에 알리거라, 이제 더 이상 모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21-24 대평원에 있는 성읍들도 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다. 홀론, 야사, 메바앗, 디본, 느보,
 벳디불라다임, 기라다임, 벳가물, 벳므온, 그리웃, 보스라 등 원근 각처 모압의 모든 성읍에 심판이 이를
 거다.
 25 모압의 전력이 끊겼구나. (전국 정전사태^^)
 모압의 팔이 부러졌구나.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알거지가 된 모압

²⁶⁻²⁷ [하나님] 모압을 술독에 빠뜨려라. 내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해라. 얼굴에 똥칠한 주정뱅이로 만들어라. 온 나라를 모압의 토사물로 가득 채워라. 술에 취해 쓰러지게 해라.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줘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신랄하게 비웃던 게 누구였지? 바로 너, 모압 아니었어? 이스라엘이 악인들에게 잡혀갈 때, 낄낄거리며 욕하고 비웃은 게 바로 너 아니었냐고?

²⁸ 성읍을 떠나거라! 빨리 떠나거라! 절벽 속 거처를 찾아보거라.

모압에서 자란 너희들아!

강가 협곡 높은 곳에 등지를 튼 비둘기처럼 그렇게 살아보거라.

²⁹⁻³³ 모압의 교만, 그 전설적인 자랑질을 우리가 다 들었지.

우쭐대고, 으스대던 그 자뻑

도저히 참아주기 어렵던 그 교만

나 하나님의 선포란다.

난 알지, 수탉 울음소리 같던 그 오만과 교만이 실은 허풍에 불과했던 걸….

하지만 난 모압을 위해 울련다.

그래, 내가 모압 백성을 애도하련다.

길헤레스의 주민을 위해 슬퍼하련다.

십마의 포도나무들을 위해 흐느끼련다.

야스엘과 함께 울어 주련다.

한때 사해까지 뻗어 있던 포도나무,

야스엘까지 펼쳐 있던 포도덩굴,

너희의 여름 과일, 터질 듯한 포도알들

이 모든 걸 잔인한 약탈자들이 빼앗을 거다.

그토록 유복했던 모압에서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앗아갈 거다.

그래, 내가 포도주들을 단아 버리련다.

추수철 그 모든 외침과 환호성소리가 끊기도록….

³⁴ 헤스본과 엘르알레의 울부짖는 소리가 야하스 주민들에게까지 들리는구나. 소알부터 로로나임에도, 에글랏-셀리시야에도 울음소리가 들리는구나. 아, 니므림의 샘들조차 다 말라 버렸구나.

³⁵ 나 하나님의 선포란다. 내가 멈추어 주마, 모압의 높은 곳에 올라 우상에게 번제를 바치던 그 모든 발걸음들을….

³⁶ 모압을 위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해 내 마음이 애곡하누나. 바람결에 전해오는 애잔한 피리소리처럼… 모압이 탈탈 털리게 될 거다. 알거지가 되고 말 테니….

³⁷ 어디를 둘러봐도 탄식의 몸부림뿐….

삭발을 하고, 수염을 민 그들

상처 난 손에 피가 줄줄 흐르네.

갈갈이 찢긴 옷가지가 처량하구나.

38 모압의 모든 집이 대성통곡하게 될 거다. 모압의 모든 거리에서 방성대곡하게 될 거다. (오호 통재라!""") 산산조각 나 아무도 원치 않는 도자기처럼, 내가 모압을 박살낼 거란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39 [하나님] 모압이 무너졌구나!

보이는 거라곤 모압의 수치와 부끄러움뿐이구나!

들리는 거라곤 모압을 향한 잔인한 조롱뿐이구나!

느껴지는 거라곤 모압에 임한 끔찍한 공포뿐이구나!

* * *

40-42 [하나님] 모압을 향한 나 하나님의 최후 판결이다.

보아라! 독수리 한 마리, 모압을 덮치려는 듯

날개를 펴고 모압을 향해 내려오는구나.

성읍이 약탈당하고 요새가 점령당하는구나.

용맹스러운 전사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고통에 겨워 데굴데굴 구르는구나.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모압에 남은 거라곤 아무것도 없구나.

모압이 빈털털이가 되었구나, 내게 반항하던 모압의 교만 때문에...

43-44 공포, 함정, 덫!

이것이 바로 너, 모압이 당면한 현실이란다.

공포에 질려 달아나는 사람, 덫에 걸리고

구덩이에서 기어 나오는 사람, 함정에 빠진다.

이게 바로 모압 최후의 날, 그에게 내려질 나의 판결이란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45-47 [하나님] 헤스본 외곽에 기진맥진한 난민들이 넘쳐나는구나.

헤스본에서 하늘 높이 불길이 치솟는구나.

시혼 왕국의 수도에서 진노의 불길이 솟아오르는구나.

그 불길이 모압의 눈썹을 태우고

허풍쟁이들의 해골을 불사르는구나.

이것이 바로 모압, 네 운명이란다.

그모스 우상을 섬기던 너희, 이제 끝장났구나.

너희 아들들은 짐작처럼 수용소로 실려 가고

너희 딸들은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갈 거다.

언젠가는 내가 모압을 회복시켜 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모압에 임할 심판이란다.

49 장

넌 이미 한물간 존재야!

¹⁻⁶ [예레미야] 암몬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자녀가 없다든?

이스라엘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가 아무도 없단 말야?

그런데 어째서 밀곰 우상이 갓 지파 땅의 상속자가 된 거야?

밀곰의 추종자들이 왜 갓 지파의 성읍을 차지한 거냐고?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진 못할 거다! 때가 이르렀으니….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고.

[하나님] 내가 암몬의 큰 성읍 랍바의 킷전에

전쟁터 비명소리를 생생히 들려 주마.

암몬을 폐허더미로 만들어 주마.

성읍들을 잿더미로 만들어 주마.

그래서 이스라엘이 침입자들을 몰아낼 수 있게 해 주마.

나 하나님이 말했으니, 그대로 이루어 질 거란다.

통곡하여라, 헤스본아! 아이 성이 무너졌구나.

탄식하여라, 랍바의 마을들아!

상복을 차려 입고 눈물을 쏟아라.

미쳐 날뛰듯 뱅뱅 돌아라.

너희 우상 밀곰을 포로지로 내쫓아 줄 테니.

밀곰의 제사장들, 관리자들도 함께 내쫓아 줄 테니.

과거에 위세 깨나 떨치던 너, 이제 와 자랑해 뭐 하겠니?

넌 이미 한물간 존재인데?

트로피를 어루만지며, 지난 날의 영광에 취해 살면 뭐 하겠니?

아직도 ‘누가 날 건드려?’라며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거라! 어딜 가든 공포에 질리게 해 줄 테니….

[예레미야] 주님,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너희가 앞다투어 도망칠 거다.

여간해선 다시 모이기 어려울 거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암몬을 회복시켜 줄 날이 올 거란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고.

역사의 무대에서 뽐내기

7-11 [예레미야]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해 주신 메시지라오.

[하나님] 그 유명했던 데만에 현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나?

그들의 지혜가 다 좀먹어 없어졌단 말이나?

목숨을 부지하고 싶으면 도망치거라.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치거라.

드단에 사는 너희들아!

숨을 곳을 찾거라.

내가 에서에게 재앙을 내릴 테니...

결산할 때가 됐구나.

일꾼들이 밭에서 추수할 때에도

이삭 정도는 남기지 않든?

도둑이 남의 집에 침입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남겨두지 않든?

하지만 난 에서를 탈탈 털어 알거지로 만들 거란다.

구석구석 살살이 뒤질 거란다.

에서와 관련된 거라면 뭐든 철저히 찾아낼 거란다.

에서의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까지 남김없이 진멸해 주마.

살아남아 이런 말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해 주마.

“당신네 고아들을 내가 거두어 주겠소.

당신네 과부들을 내가 돌봐 주겠소.”

12-13 [예레미야] 그렇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오.

[하나님] 내가 말하잖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필요가 없는 사람도, 때로는 그 잔을 마시게 되지.

하물며 너 같은 자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넌 절대 못 빠져나가! 넌 반드시 그 잔을 마셔야 할 걸?

아무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셔야 하고 말고! 내 존재를 걸고 맹세하마. 너의 수도 보스라가 그렇게

될 거다. 에돔의 성읍 보스라가 잿더미, 악취나는 쓰레기더미로 변할 거다. 보스라에 딸린 성읍들도 똑

같은 신세가 되고 말 거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14 [예레미야] 내가 방금 하나님께 들은 따끈따끈한 메시지라오.

주님이 여러 나라들에 사신을 보내 말씀하셨소.

[하나님] 군대를 소집해 에돔을 치거라!

무장을 하고 전쟁터로 나가거라!

15-16 아, 에돔아, 내가 네 엉덩이를 걷어찰 거란다.

널 꼴찌 나라로 전락시킬 거란다.

네 뎡엔 네가 꽤 위대한 것 같지?

그래서 이렇게 역사의 무대 위를 으스대며 활보하는 거지?

난공불락의 높은 바위에 산다는 오만함에 취해

네가 최고봉이라도 된 것 같지?

모든 게 다 네 발 밑에 있는 것 같지? 그렇지?

높은 하늘을 활공하는 독수리라도 된 것 같지?

하지만 지금 넌 곤두박질치고 있는 걸?

내가 널 바닥에 내동댕이쳐 박살내고 말 거라고!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17-18 [하나님] 에돔이 쓰레기가 될 거다.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오물덩어리가 될 거라고! 세상이 놀랄 정도로 바닥을 칠 에돔! 일찍이 역사의 시궁창에 처박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인근 지역 주민들처럼, 에돔이 같은 신세가 될 거다. 에돔이 유령도시로 변할 거다. 아무도 에돔에 들어가 살려 하지 않을 거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이라오.

19 [하나님] 두고 보거라. 먹이를 찾아 요단 밀림에서 목초지로 뛰어오른 사자처럼

내가 에돔으로 올라가 그를 낚아채련다.

양무리에서 맘대로 낚아채련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을 거다.

에돔의 목자들, 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거다.

20-22 [예레미야] 잘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 세우신 계획을!

잘 보시오. 데만의 거민들을 향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청사진을!

[하나님] 믿어지니? 어리고 연약한 것들-새끼양들, 어린 새끼들-이 질질 끌려갈 거라는 게?

믿어지냐고? 충격에 빠진 양떼, 그걸 보고도 돕지 못한 채 바라만 본다는 게?

그들의 비명소리, 땅을 진동시키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 저 멀리 홍해까지 들리는구나.

보아라! 하늘을 맴돌던 독수리,

날개를 펴고 보스라를 덮치는구나.

용사들이 싸울 엄두도 못 낸 채, 고통으로 데굴데굴 구르는구나.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는구나.

다메섹의 얼굴이 창백하구나

23-27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관해 주신 메시지라오.

[하나님] 하맛과 아르밧이 비보를 듣고 충격에 휩싸일 거다.

두려움으로 인해 간담이 서늘할 거다.

걱정 근심에 휩싸여 전전긍긍할 거다.

도주하려 몸을 돌린 다메섹,
 얼굴이 창백하구나.
 다메섹이 발작을 일으키는구나. 풍비박산나는구나.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한때 그토록 명성이 자자했던 성읍, 왕년에 그토록 행복했던 도시,
 그런 다메섹이 지금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철저히 버림받았는지!
 그토록 수려하던 다메섹의 젊은이들, 죽어서 길에 나자빠져 있고
 그토록 용맹스럽던 다메섹의 전사들, 싸늘한 시신이 되어 말이 없구나.
 그날, 다메섹 성벽에 내가 불질러 주마.
 벤-하닷의 모든 요새를 잿더미로 만들어 주마.
 [예레미야]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선포라오.

안전한 곳을 찾아 숨거라

28-33 [예레미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한 게달과 하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오.
 [하나님] 일어나 게달을 공격하거라!
 동쪽 베두인 유목민을 습격하거라!
 그들의 담요와 남비와 후라이팬(TV와 핸드폰과 아이패드^^)을 약탈하거라!
 그들의 낙타(벤츠^^)를 훔쳐오거라!
 그들을 공포에 빠뜨리거라!
 ‘테러다! 죽음이다! 재앙이다!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다!’라고 소리쳐 겁을 주거라!
 그래, 목숨을 건지고 싶으면 도망치거라!
 하솔에서 온 너희 유목민들이여!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안전하게 숨을 곳을 찾아보거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쓸어버릴 작정이란다.
 너희를 해치려 뒤쫓고 있단다.
 그가 말하는구나.
 (느부갓네살 왕) 추격하라! 태평하게 쉬고 있는 유목민을 뒤쫓아라!
 사막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살고 있는 자들,
 문 잠글 필요도 없이 맘놓고 사는 자들,
 자기들끼리만 푹푹 뭉쳐 사는 자들
 그들의 낙타가 ‘날 잡아 잡수!’하고 있구나.
 그들의 소떼, 양떼는 거저 먹기로구나.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 버리야지.

무방비 상태의 이 유목민들을 사막 끝으로 쫓아내야지.

온 천지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공포를 몰고 가야지.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자칼들이 하술의 진영을 차지할 거다.

모래바람 속 방치된 장막을 차지할 거다.

아무도 거기서 살 수 없게 될 거다.

인적이 끊긴 유령도시가 될 거다.

엘람을 날려버릴 바람

34-39 [해설]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초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엘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어요.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잘 보거라! 내가 엘람의 주무기인 활을

내 무릎 위에서 꺾어 주마.

엘람에 바람을 풀어놓으마.

사방에서 폭풍이 몰아치게 해 주마.

그들을 사방으로 날려보내 주마.

실향민이 된 엘람인들을 다른 나라로 쫓아내 주마.

자신을 죽이려는 적들 가운데

끝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게 해 주마.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 주마.

내 진노로 불붙는 재앙을 안겨 주마.

살인마 폭도들에게 쫓기게 해 주마.

마지막 한 사람까지 쫓아가 죽이게 해 주마.

이렇게 엘람 왕과 그 심복들을 쫓아낸 후

그곳에 나의 왕좌를 세우련다.

하지만 언젠간 엘람도 다시 회복시켜 주마.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50 장

바벨론에서 탈출하라, 빛의 속도로!

1-3 [해설] 다음은 하나님께서 갈대아인들의 땅 바벨론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요.

[하나님] 온세상에 이 메시지를 전하거라. 말씀을 전파하거라.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알리거라. 널리 선포하거라.

바벨론이 함락되었구나! 벨(Bel) 우상이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는구나.

마르둑 우상이 사기꾼이었음이 드러났구나.

바벨론의 우상들? 하나같이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는구나.

바벨론의 장난감 신들? 천박한 험잡꾼인 게 밝혀졌다.

북쪽에서 한 나라가 와서 바벨론을 공격할 거란다.

바벨론의 성읍들을 무너뜨릴 거란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생명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으로,

아무 소리도, 움직임도, 호흡도 없는 곳으로 만들 거란다.

4-5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그날, 바로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거란다.

유다 백성도 함께 돌아올 거란다.

울먹이며 걸어들 거란다. 자기네 하나님을 찾을 거란다.

시온으로 오는 길을 물을 거란다.

시온으로 돌아올 거란다.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꼭 붙잡을 거란다.

내가 그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결코 잊지 않을 거란다.

6-7 한때는 길 잃은 양이었던 내 백성

목자들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지.

목자들이 그들을 산 속에 내버렸어. (유기견, 아니 유기양^^)

그래서 그들이 산속을 헤매고 다녔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었어. 고향에 대한 기억도 사라졌어.

만나는 이들에게 이용만 당했지.

원수들은 그들을 착취하면서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어.

(원수들) 당해도 짜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

그 좋은 목초지이셨던 분, 조상대대로 소망이셨던 하나님을 배신했잖아?

8-10 [하나님] 하지만 이제는 바벨론을 떠날 때가 됐구나. 서둘러 탈출하거라.

바벨론을 벗어나거라.

너희 길을 가거라. 그럴듯한 목양견이 너희를 인도해도 따라가지 말거라.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너희가 앞장서거라! (자기주도 귀향^^)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이니?

바벨론과 대결할 나라들을 집결하고 있단다.

그들이 북쪽에서 올 거란다.

들이닥친 그들, 바벨론을 정복할 거란다.

아! 전술에 능한 자들로만 이루어진 군대!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올 일은 없을 거란다.

바벨론이 딱 먹기 좋게 농익었구나!

약탈자들이 바벨론으로 포식하겠구나!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11-16 [하나님] 바벨론인들아, 네가 그동안 호강했지? 그렇지?

내 백성을 착취하며 호시절을 보냈지?

송아지 마냥 푸른 초장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지?

야생마처럼 벌판을 달리며 행복해했지?

하지만 너희 엄마는 널 기특해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널 낳은 여인은 널 그다지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게 닥칠 일을 좀 보렴! 모냐 빠진 네 모습 좀 보라고!

폐허더미, 쓰레기더미, 무성한 잡초로구나!

생명체라곤 하나도 남아 있질 않구나!

나의 거룩한 진노에, 죽음의 적막만이 흐르는 광야가 됐구나!

지나가는 여행자마다 바벨론의 쇠락을 보고

충격을 받아 고개를 젓는구나.

공격! 바벨론을 쳐라! 바벨론을 집중공략해라!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 바벨론을 공격해라!

주저하지 말고 남김없이 초토화해라!

범죄자 바벨론! 오, 날 대항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사방에서 전쟁의 함성이 들려오건만

바벨론은 손 하나 까딱 못하는구나.

방어벽이 초토화됐구나.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구나.

작전명: ‘하나님의 보복’

바벨론에 원수를 갚거라!

뿌린 대로 거두게 해 주거라!

자업자득, 인과응보를 체험시켜 주거라.
농장을 파괴하고, 농부들을 죽이거라!
밭을 못쓰게 만들고, 공간을 약탈하거라!
하지만 너희 바벨론 포로들은
이 재앙 속에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빠져나오거라!
빨리 고향으로 도망치거라!

* * *

17 [하나님]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떼,
사자들에게 쫓기는 신세로구나.
앗수르 왕이 시작했던 대학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완수했구나.
뼈까지 깨끗하게 갉아먹었구나.

18-20 [예레미야] 천군천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오.

[하나님] 잘 보거라!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땅에 재앙을 내리려 한다.
앗수르 왕에게 내렸던 바로 그 재앙을!
반면 이스라엘은 푸른 초장 고향으로 데려오련다.
갈멜산과 바산에서 풀을 뜯게 해 주련다.
에브라임과 길르앗 비탈에서 배불리 먹게 해 주련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의 죄과를 아무리 샅샅이 찾아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할 거란다.
유다의 죄악을 아무리 구석구석 뒤져도
한 가지도 찾지 못할 거란다.
내가 구해낸 이 백성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할 거란다.

* * *

21 [하나님] 반역자의 땅 브라다임을 습격해라!
재앙의 나라 브곳을 추격해라!
그들을 쳐서 쓰러뜨려라. 완전히 휩쓸어 버려라.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이는 내 명령이니, 내 지시를 따르거라.

22-24 전쟁의 굉음이 지축을 흔드는구나!
한때 망치였던 바벨론이 망치질을 당하는구나.
끊임없이 얻어맞은 바벨론, 형체도 알아보기 어렵구나.
내가 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었구나.

오 바벨론아, 네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덧에 걸리고 말았구나.

덧에 걸려 움짱달짝 못하는구나.

나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더니, 결국 이런 신세가 되었구나.

²⁵⁻²⁸ 나 하나님이 무기창고를 열었다.

나의 진노의 무기들을 꺼내 들었다.

천군천사의 주 하나님이 바벨론을 제대로 손봐 주마. (참교육^^)

사방에서 몰려온 자들이 바벨론의 공간을 약탈하는구나.

바벨론을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사르거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거라. 아무도 살려 두지 말거라.

바벨론 폭도들을 다 죽이거라.

완전히 끝장내거라.

파멸! 그래, 파멸의 날이 왔다!

시간이 이르렀다, 운명의 시간이...

깜짝 놀랄 소식!

바벨론에서 탈출한 자들이 시온에 나타났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복작전’ 뉴스를 전파한다!

이 모든 게 내 성전에 대한 보복조치였음을 알리는구나.

²⁹⁻³⁰ 군대를 소집하여라, 바벨론을 칠 군대를!

누구든 괜찮다, 활을 쏠 수 있는 사람이면...

울가미를 조여라, 빠져나갈 틈을 주지 마라!

바벨론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해 줘라.

자업자득이 뭔지, 인과응보가 뭔지 제대로 체험케 해 줘라.

오만한 바벨론이 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대들더니

이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구나.

바벨론의 젊은이들, 거리마다 죽어 나뒹구는구나.

바벨론의 군인들, 목숨을 잃고 영원히 침묵하는구나.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³¹⁻³² 천군천사의 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교만 선생’, 알겠나? 내가 바로 네 적이란 걸?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오, 패망의 날이 다가오는구나.

‘교만 선생’이 고꾸라지겠구나.

하지만 그에게 손 내밀 자 아무도 없구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놓아 주마.

그 불길의 온 나라에 들불처럼 번지게 해 주마.

* * *

33-34 [예레미야]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계속해 말씀하신다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얻어맞았구나.

유다 백성도 함께 쓰러졌구나.

압제자들의 강철 손아귀가 그들을 움켜잡았구나.

좀처럼 놓아주지 않을 기세로구나.

하지만 그들의 구원자,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은 수퍼파워!

그래, 내가 그들 편이 되어 주마.

가서 그들을 구해 주마.

그 땅을 평안하게 해 주마.

반면 바벨론 백성들에겐 참교육을 시켜 주마.

35-40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바벨론에 전면전이 벌어졌구나.

백성들, 지도자들, 현인들, 가릴 것없이 다 쓸어버릴 전쟁,

자랑질하던 허풍쟁이들을 바보로 전락시킬 전쟁,

용사들을 겁쟁으로 변하게 만들 전쟁,

고용된 킬러들도 벌벌 떨며 흩어지는, 참으로 어이없는 전쟁,

은행들마저 다 약탈당해 파산하는 전쟁 (서브프라임 물기지 사태^^)

저수지 물이 빠져 바싹 말랐구나.

가짜 신들이 미쳐 도깨비로 변했구나.

자칼과 전갈, 밤부엉이와 흡혈박쥐들이 그 땅을 점령해

으스스한 유령 나라가 되겠구나.

다시는 사람 살 곳 못 될 땅이 되겠구나.

온 땅에 죽음의 악취가 만연하구나.

내가 떠난 그 땅!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 나라처럼 되었구나.

그곳에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겠구나.

다시는 호홉하는 자가 없게 되겠구나. 영원히!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 * *

41-43 [하나님] 보아라! 북쪽에서 사람들이 파도처럼 밀려드는구나. (인해전술^^)

먼 곳에서 왕들이 때로 몰려오는구나.

무자비한 야만인들, 살상무기를 들고 달려오는구나.

바다를 때리는 거친 파도처럼 포효하며
 사나운 종마를 타고 몰려오는구나.
 전투대형을 갖춘 그들, 싸울 준비를 마쳤구나.
 너, 딸 바벨론을 치러 오는구나.
 몰려오는 적군의 소리, 바벨론 왕의 궤전을 때리는구나.
 창백하게 질린 바벨론 왕, 맥이 풀렸구나.
 공포에 휩싸인 바벨론 왕, 전의를 상실했구나.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에 겨워 몸을 비튼다.
⁴⁴ 보아라! 내가 불시에 덤벼들어 낚아챌 테니...
 먹잇감을 찾아, 요단강가 깊은 밀밭에서
 푸른 초원으로 뛰어나온 사자처럼
 내가 한 마리 양을 겨누어 덮칠 거란다. 아무도 날 못 막을 거다.
 소위 목자라는 자들도 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거다.
⁴⁵⁻⁴⁶ [예레미야] 잘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행하실 일을!
 갈대아를 치기 위한 작전계획을!
 힘없는 어린 것들, 새끼 양과 어린이들이 끌려갈 것이요.
 믿어지시오? 모두들 충격에 빠져 맥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함성이 하늘을 가를 것이요.
 그 소리로 인해 땅이 진동할 것이요.
 온세상이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요.

51 장

폭풍처럼 들이닥칠 바사(페르시아)

¹⁻⁵ [예레미야]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구료.
 [하나님] 잘 보거라. 내가 바벨론에, 그 패역한 땅의 모든 자들에게
 치명적인 폭풍-폭풍 바사(페르시아)-을 채찍 휘두르듯 일으키고 있단다.
 바벨론에 내가 청소요원들을 보내련다.
 그들이 바벨론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할 거란다.
 그들이 들이닥치는 순간, 바벨론은 초토화될 거다.
 더 이상 바벨론에서 탐낼 것도, 바벨론에 대한 관심도 없게 될 거다.
 바벨론 최후의 날, 총체적 심판의 날,

청소요원들은 한 가지도 그대로 두지 않을 거란다. (투철한 직업의식^^)
 전사들이 모든 걸 다 동원해 싸울 거란다.
 그들이 거침없이 싸울 거란다.
 아무것도, 아무도 봐주지 않고 다 쓸어버릴 거란다.
 바벨론 최후의 날, 완전한 멸망의 날, 바벨론이 끝장나는 날!
 바벨론에 부상자가 득실대는구나.
 거리마다 시체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구나.
 과부 취급을 받던 이스라엘과 유다, 그들이 더 이상 과부가 아님이 입증될 게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이 여전히 건재하게 살아 있으니까....
 그들이 비록 지극히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어
 그들 땅을 죄로 가득 채웠지만
 난 여전히 그들에게 온마음을 다한단다.
 6-8 바벨론에서 도망치거라, 최대한 빨리!
 목숨 걸고 도망치거라, 목숨을 부지하려면....
 내가 바벨론에 보복하고 그의 죄악을 갚아줄 때
 머뭇대다 너희 목숨까지 잃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바벨론은 내 손에 들린 화려한 금잔이었지.
 내 진노의 포도주를 담아 온세상에게 마시라고 건네준 금잔....
 많은 나라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었는데
 이제 바벨론 자신도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비틀거리다 넘어졌으니
 이 얼마나 슬픈 비극이란 말인가?
 바벨론의 상처에 바를 연고를 구해오거라.
 혹시 모르잖니? 상처가 나을 수도 있을지?

* * *

9 [하나님] 최선을 다했지만 바벨론을 구할 순 없었지.
 바벨론을 회생시키는 일은 이미 물 건너 갔단다.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ㄸㄸㄸ})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
 바벨론은 그냥 운명에 맡기고....
 아, 바벨론에 내려진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보복의 기념비가 하늘높이 솟아 있구나.

너희 생명줄이 끊겼구나

10 [예레미야] 하나님이 우릴 위해 사태를 반전시켜 주셨다오.

와서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우리 고향 시온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사태를 바로잡으려 행하신 일들을 전해 줍시다.
11-13 활촉을 날카롭게 갈아 두시오! 화살통을 가득 채우시오!
 하나님께서 메대 왕들을 선동하셨다오.
 그들을 도발하셨다오.
 (메대 왕들)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리자!
 [예레미야] 하나님이 전쟁을 하러 나서셨다오.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 행한 것을 보복하러 출발하셨다오.
 [하나님] 바벨론 성벽에 공격 명령을 내려라!
 24 시간 철통같이 수비해라!
 지원군을 투입해라! 군사들을 매복시켜라!
 [예레미야]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행될 거요.
 주님이 바벨론에 행하겠다고 선포하신 대로 다 실행될 거요.
 바벨론아, 엄청난 물을 보유한 너! (바벨론 댐사댐^^)
 어마어마한 자금을 보유한 너! (바벨론 중앙은행^^)
 하지만 이젠 파리 목숨이로구나. (에프킬러 살포^^)
 네 목숨이 경각에 달렸구나.

* * *

14 [예레미야] 천군천사의 하나님께서 굳게 맹세하셨소.
 [하나님] 내가 이 곳을 적군으로 가득 메울 거란다.
 적군이 메뚜기떼처럼 들이닥칠 거란다.
 그들이 널 쓰러뜨리고 승전가를 부를 거란다.

* * *

15-19 [예레미야]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세상을 빚으신 주님
 손수 우주를 만드시고
 천등과 비를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
 구름으로 창공을 날게 하시고
 번개로 폭풍을 장식하시며 (폭풍에 반짝이 장식^^)
 하늘창고의 바람을 날리시는 주님
 막대기 신을 숭배하는 자들,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기 손으로 만든 신 때문에 그 큰 수치를 당하다니...
 그들은 사기꾼, 죽은 막대기, 죽은 나무토막 신들,

재미없는 농담거리 (이 분위기 어쩔 건대?^^)
한낱 연기에 불과한 그들-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지만 야곱의 분복이신 하나님은 참되신 분
은 우주를 하나로 연결시키신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다네! (이게 믿어지냐고?^^)
그분의 이름은? 바로 천군천사의 하나님!

한번 잠든 그들, 영영 깨어나지 못하리

20-23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오.

[하나님] 너, 바벨론은 나의 망치란다. 나의 전쟁무기지.
내가 불경건한 나라들을 깨뜨리는 데 널 사용할 거란다.
널 사용해 많은 왕국들을 산산조각 낼 거란다.
널 들어올려 말과 기수들을 칠 거란다.
병거와 전사를 깨뜨릴 거란다.
널 도구로 써서 모든 남녀를 박살낼 거란다.
노인과 어린이도 다 박살낼 거란다.
널 들어 젊은이들을 칠 거란다.
목자와 양들을 칠 거란다.
널 사용해 멍에 멘 소와 농부를 박살낼 거란다.
고관대작들을 칠 거란다.

24 유다 백성아, 너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시온에서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바벨론과 갈대아인들,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25-26 [하나님] 바벨론아, ‘파괴자 산’아, 온 세상을 파괴하는 자야!

너의 적이 누군 줄 알고 까부니? 바로 나야!
내 손으로 직접 너를 잡아 목사발을 만들어 주마.
산이던 너를 무너뜨려 자갈밭으로 만들어 주마.
더 이상 네게서 기초석을 캐내지 못하도록,
더 이상 네게서 주춧돌을 잘라내지 못하도록,
돌무더기만 남도록...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 * *

27-28 [하나님] 온 땅에 신호를 올려라.

모든 나라를 향해 양각 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일-바벨론을 손봐 주는 일-을 수행할 나라들을 구별해 택하거라.
 바벨론을 향해 싸울 왕국들을 모집하거라. (1 차 서류, 2 차 필기, 3 차 면접^^)
 아라랏과 민니, 아스그나스의 군인들을 징집하거라. (신검 먼저^^)
 바벨론을 공격할 사령관을 임명하거라.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마를 동원하거라!
 거룩한 일-바벨론에 참교육 시전-을 수행할 나라들을 구별해 택하거라.
 메대의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민간인 중에도 선발해 택하거라.
 29-33 바벨론 땅이 공포에 떠는구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구나.
 바벨론이 겁에 질렸구나. 바벨론을 치려는 내 계획으로 인해...
 바벨론을 달나라처럼, 사람 살 곳 못 되는 폐허로 만들 내 계획으로 인해...
 바벨론 군사들이 전의를 상실했구나.
 폐허 속, 동굴 속으로 숨어드는구나.
 싸우기를 포기한 겁쟁이들, 그럴듯한 전투 한번 못하고 포기하는구나.
 겁에 질려 우는 아기 같구나.
 불길에 휩싸인 바벨론의 가옥들
 돌쩌귀에서 뜯겨져 나간 성문들
 꼬리에 꼬리를 문 도망자들이 앞다투어 달아나는구나.
 ‘걸음아, 날 살려라!’면서 죽기 살기로 도망치는구나.
 그들이 바벨론 왕에게 소식을 전하는구나.
 성읍이 함락되었다는 비보를 전하는구나.
 모든 강나루가 점령당했다고,
 들불마져 무서운 속도로 늪지대까지 번졌다고,
 나,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예고대로 실현됐다고...
 딸 바벨론은 추수철 타작마당,
 머잖아 바벨론의 추수가 시작될 거란다.
 알곡이 아닌 가라지는 다 날려버릴 거란다.

* * *

34-37 [하나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내 백성을 잘근잘근 씹은 후 뼈다귀만 뺐었는데...
 접시를 깨끗이 비운 후 (음식물 쓰레기 절감^^), 의자에 기대앉아 트림을 했었는데...
 게걸스럽게 먹은 후, 어마무시한 트림을 했었는데... (방독면 착용!^^)
 시온 여사가 이제야 말하는구나.
 예루살렘이 비로소 말하는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온) 바벨론이 내게 저지른 끔찍했던 일들, 이젠 그가 고스란히 당하네! (쌔통^^)

(예루살렘) 갈대아인들이 내 몸에 흘렸던 피, 그들이 그대로 보복당하네! (메롱^^)

[하나님] 나 하나님도 개입해 말한다.

“나는 네 편이란다. 네 원한을 갚아 주마.

내가 널 대신해 보복해 주마. 네 원수를 갚아 주마.

바벨론 강들이 다 마르게 해 주마. 바벨론 샘들이 다 막히게 해 주마.

바벨론을 폐허더미로 만들어 주마.

유기견, 유기묘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땅으로 만들어 주마.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어 주마.

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령도시로 만들어 주마.”

* * *

38-40 [하나님] 바벨론이 마치 먹잇감 앞에서 으르렁대는 사자 같구나.

사냥감 앞에서 침 흘리는 어미 사자와 새끼들 같구나.

그래, 좋다. 내가 그들에게 밥 한 끼를 차려 주마.

아니지, 근사한 잔칫상을 차려 줘야겠네.

그들을 술독에 빠뜨려 줘야지.

취해서 떡실신한 그들, 끝없는 잠에 빠지게 해 줘야지.

깊은 잠에 빠져 영영 깨어나지 못하게 해 줘야지.

내가 이 ‘사자들’을 도살장에 끌고 갈 거란다.

어린양, 숫양, 염소들처럼 도살장에 끌고 갈 거란다.

다시는 그들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 * *

41-48 [하나님] 바벨론은 끝났다. 온 땅의 자랑이던 바벨론, 코가 납작해졌구나.

바벨론이 시궁창에 처박혔구나.

바벨론이 혼란에 빠졌구나. 몰려드는 적군에게 얻어터지는구나.

성읍마다 썩은내가 진동하는구나.

텅 빈 땅에 적막만이 흐르는구나.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읍

여행자들도 멀찌감치 돌아가는 도성

바벨론의 게걸스러운 신 ‘벨(Bel)’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련다.

그가 꿀꺽했던 모든 걸 토해내게 만들련다.

방문객의 발길이 끊긴 바벨론

더 이상 경이로움도, 경탄할 것도 없구나.

필사적으로 도망치거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뒤돌아보지 말고 달아나거라.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가거라.
 나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통구이가 된 바벨론을 빠져나가거라.
 희망을 잃지 말거라. 포기하지 말거라.
 오늘은 이런 소문, 내일은 저런 소문,
 별별 흥흥한 소문이 다 돌아도,
 온갖 폭력과 전쟁의 소문이 돌아도...
 두고 봐라. 내가 바벨론의 ‘듣보잡 신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 테니...
 바벨론의 전국민이 사악한 사기꾼들이었음을 밝혀 주마.
 곳곳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게 해 주마.
 그에게 보복할 군대가 북쪽에서 내려와 바벨론을 덮치는 날,
 하늘의 천사들과 땅 위의 사람들이 바벨론을 놓고 승리의 파티를 열게 해 주마.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머나먼 이국 땅, 기나긴 포로생활 중에도 나 하나님을 기억하거라

⁴⁹⁻⁵⁰ [하나님]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전사자들에게 주는 보상!

바벨론인들이 당할 살육은 그들이 저지른 살육에 대해 보복!
 하지만 바벨론 땅에서 죽음을 모면한 너희 포로민들아!
 그곳을 빠져나오거라, 빨리 벗어나거라!
 머나먼 이국 땅, 기나긴 포로생활 중에도 나 하나님을 기억하거라.
 예루살렘을 잊지 말거라. 반드시 기억하거라.

⁵¹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얼마나 심한 모욕과 조롱과 학대를 당했는지 아세요?

너무 오랫동안 쫓겨가 살다 보니, 이제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자아상실^^)
 그 옛날 우리의 성소, 하나님의 집이 낯선 자들에 의해 더럽혀졌을 때
 정신이 멍해진 우리, 아무 생각도 안 났다고요. (어이상실^^)

⁵²⁻⁵³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하나님] 나도 잘 안단다. 두고 봐, 때가 오고 있단다.
 바벨론의 ‘듣보잡 신들’을 내가 멸망시킬 때가,
 바벨론 땅 전역에서 부상자들이 신음할 때가...
 바벨론이 달까지 사다리를 놓아 오른다 해도,
 그 다음 아무도 못 쫓아오도록 그 사다리를 거둔다 해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란다.
 내가 보낸 보복자들이 기필코 바벨론을 쫓아 올라갈 거란다.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포라오.

54-56 [하나님] 잘 들어 보렴! 들리니? 바벨론의 울부짖음 소리가?
 갈대아에서 울려 퍼지는 소름 끼치는 통곡 소리가? (영화 ‘곡성’ 찍는 줄^^)
 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파괴시킬 몽둥이를 들고 가마.
 바벨론의 마지막 비명소리가 들려오는구나.
 요란한 파도소리처럼, 죽음이 소리를 내는구나.
 요란한 폭포의 굉음처럼, 사망이 소리를 내는구나.
 바벨론에 들이닥친 파괴자들이, 바벨론에 보복을 시작하는구나.
 바벨론 군인들이 잡혀가고, 무기들이 폐기되는구나.
 그래, 나 하나님,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폐허로 만들어 주마.

57 그들을 술독에 빠뜨려 주마.
 그들 모두-왕자들, 현인들, 장관들, 군인들-를 취하게 해 주마.
 취해서 떡실신한 그들, 끝없는 잠에 빠뜨려 주마.
 깊은 잠에 빠진 그들, 영영 깨어나지 못하게 해 주마.
 왕의 선포란다.
 이름하여 천군천사의 하나님!

58 [예레미야] 천군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이랴오.
 [하나님] 그렇게 욕중했던 바벨론 성벽이 무너질 거란다.
 그렇게 거대했던 바벨론 성문이 불타 없어질 거란다.
 공허한 인생,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점점 더 별 볼 일 없게 될 거란다.
 그딴 야망은 한낱 잣더미가 되고 말 거란다.

* * *

59 [해설] 스라야(네리아의 아들이자 마세야의 손자)가 유다 왕 시드기야의 수행비서로 바벨론에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었어요. 때는 시드기야의 통치 제 4 년으로, 스라야는 왕의 순방업무 책임자였답니다.

60-62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재앙들을 노트에 기록한 후, 스라야에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그대가 바벨론에 도착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걸 낭독하시오.
 “오 하나님, 주님은 이곳을 멸망시켜 이곳에 아무것도-사람도, 짐승도-살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하셨죠.
 이 땅을 역사상 최악의 폐허로,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겠다고 하셨죠.”

63-64 이 페이지를 다 읽은 후, 노트에 돌을 매달아 유브라데강에 던지시오. 그리고 그게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본 후 이렇게 말하시오. (디테일한 업무지시^^)
 [하나님] 내가 바벨론에 재앙을 내리면, 바벨론이 이렇게 강바닥에 가라앉은 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거란다.

52 장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유다의 포로생활

¹ [해설] 시드기야는 21 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1 년간 통치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로, 립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이었어요.

² 하나님 눈에 시드기야는 그저 그런 또 하나의 악한 왕일 뿐이었어요. 여호야김의 관박이었죠. (붕어빵 브라더스^^)

³⁻⁵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한 멸망은 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표시로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셨던 거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반역하자, 느부갓네살이 전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진을 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 주변을 포위하는 토성을 쌓아 도시를 봉쇄해 버렸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은 시드기야 9 년 10 월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이 상태로 무려 19 개월간(시드기야 11 년까지) 포위되어 있었어요.

⁶⁻⁸ 시드기야 11 년 4 월 9 일, 기근이 너무 심해 빵 한 조각조차 구하기 어려울 때, 바벨론인들이 성벽을 뚫고 성읍에 침입했어요. 이에 유다 군대는 모두 야심한 틈을 타, 성벽 출입구(왕의 정원 위쪽 두 성벽 사이의 문)로 도주했어요. 그들은 성읍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의 감시를 피해 몰래 빠져나가 아라바 계곡을 지나 요단강으로 갔어요. 그러자 바벨론 군대가 총력을 다해 그들을 추격, 결국 여리고 평원에서 그들을 따라잡았지만,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이미 탈영해 흩어진 뒤였어요.

⁹⁻¹¹ 바벨론 군인들은 시드기야를 생포,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어요. 바벨론 왕은 그 자리에서 시드기야를 즉결심판한 후, 시드기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아들들을 처형했어요. 시드기야가 이 땅에서 본 마지막 장면은 자기 아들들의 처형 장면이었어요. 바벨론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처형한 후 그의 눈을 멀게 했으니까요. 그 다음 바벨론 왕은 유다 관리 전원을 처형했어요. 다만 시드기야만은 수갑을 단단히 채워 바벨론에 끌고 가 그를 감옥에 처 넣었어요. 그렇게 시드기야는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았답니다.

¹²⁻¹⁶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 년 5 월 7 일, 바벨론 왕의 총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른 후 왕궁에까지 불을 질러, 예루살렘 성읍을 초토화시켰어요. 온 성읍을 잿더미로 만든 거죠. 그리고 자기가 거느리고 온 바벨론군을 투입해 성벽을 무너뜨린 후, 전에 바벨론 왕에게 투항했던 사람들과 함께 성읍 안에 남아 있던 사람들 전원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단, 소수의 가난한 농부들만 남겨두어 포도원 및 남은 밭을 가꾸게 했답니다.

¹⁷⁻¹⁹ 바벨론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청동기둥과 청동물두멍, 그리고 거대한 청동대야(바다 the Sea)를 파괴, 수거한 청동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고물상의 원조^^) 또한 청동으로 만든 각종 성전기구들,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사용하던 금은 향로, 피 뿌리는 용도의 금은 대접들도 다 가져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총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귀금속이란 귀금속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작은 부스러기 하나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인간 금속탐지기^^)

20-23 이렇게 그들은 청동기둥 두 개, 청동 바다(물두멍), 바다 받침으로 쓰던 12 마리의 청동 황소상 등,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용품 제작에 사용했던 어마어마한 양의 청동을 다 노획해 갔어요. 얼마나 많은 양이었는지, 무게를 다 달 수도 없었다니까요? 청동기둥은 높이 8.2m(2~3 층 건물 높이-역자 주), 둘레 5.5m 로 속이 비어 있었고 (속 빈 강정, 아니 속 빈 기둥^^) 두께는 2.54cm 정도 됐어요. 청동기둥 꼭대기에 줄세공으로 만든 화려한 기둥머리에 청동 석류를 씌워, 높이가 2.3m 나 더 늘어났지요. 기둥머리에는 석류 96 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합치면 기둥 하나 당 총 100 개의 석류가 달려 있었답니다. (숨겨진 4 개의 석류를 찾아라!^^)

24-27 느부사라단(느부갓네살 왕의 총사령관)은 VIP 포로들도 많이 끌고 갔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제사장 스라야, 보조제사장 스바냐, 성전관리 3 명, 남아 있던 군사령관, 어쩌다 성읍에 남게 된 왕실 책략가 7 명 (어쩌다 포로^^), 질병 책임장교, 그리고 백성과 함께 남아 있던 인재 60 명. 느부사라단(느부갓네살 왕의 총사령관)은 그들 모두를 바벨론 왕이 있던 리블라로 끌고 갔어요. 그들이 하맛 땅 리블라에 도착하자, 피도 눈물도 없던 바벨론 왕은 그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렇게 자기 고향 땅에서 속절없이 쫓겨난 유다는 그때부터 포로민이자 실향민 신세로 살았답니다.

* * *

28 [해설] 느부갓네살 7 년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은 모두 3,023 명이었어요.

29 또한 느부갓네살 18 년에는 832 명의 예루살렘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30 그런가 하면 느부갓네살 23 년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유다에서 745 명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이로써 전체 포로민의 수는 4,600 명이었지요. (암산 왕 예레미야^^)

* * *

31-34 [해설] 유다 왕 여호야킨이 포로로 끌려간 지 37 년이 되던 해, 바벨론의 왕으로 즉위한 에월프로닥이 여호야킨을 감옥에서 석방시켜줬어요. (대통령 특사^^) 그래서 여호야킨은 그해 12 월 25 일(크리스마스 선물^^)에 출소했어요. (출소 후 두부부터 먹었다는^^) 에월프로닥 왕은 바벨론에 수감되어 있던 다른 정치범들과 달리, 여호야킨만은 특별히 정중히 대접해 줬어요. 그 덕에 여호야킨은 죄수복을 벗은 후, 왕과 한 식탁에서 식사했지요. 에월프로닥 왕은 여호야킨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줬답니다.